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Symposium on Dasan and the SDGs


# 지속가능한 발전, 정약용에게 묻다.

PROGRAM BOOK | DAY1

牧  
文  
心  
書

2018. 4. 5(목) - 6(금)

그랜드 워커히 서울, B1F 워커히 시어터

주최·주관  남양주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후원  교육부



牧  
文  
心  
書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Symposium on Dasan and the SDGs

## 목 차 | Contents

인사말   Welcome Message .....	04
행사개요   Overview .....	08
프로그램   Program .....	10
기조연설   Keynote Speech .....	13
세션 1   Session 1 .....	65
세션 1 토론   Session 1 Discussion .....	97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남양주시의 역사인물인 정약용 선생의 해배 및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2018년을 '남양주 정약용의 해'로 선포하고 정약용 선생의 이념과 사상을 세계사적으로 조명하며 가치를 확산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경제위기, 기후변화, 갈등과 반목, 전쟁과 질병, 빈곤 문제 등으로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고 지구공동체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저서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에 따르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仁)이다. ‘어질다’는 것은, ‘이인상여(二人相與)’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필요한 정신이고, 이런 까닭에 UNESCO는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했으며 지속 발전의 가치를 추구했던 업적을 인정하여 정약용 선생을 2012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에 선정 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교육, 과학, 문화 등을 통해 인류발전 증진을 도모해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정약용 선생의 인본주의 및 실사구시 정신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실천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다산 정신을 되살리고자 “**지속가능한 발전, 정약용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지적향연의 장인 다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5일  
남양주시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you for your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Symposium on Dasan and the SDGs'.

This year marks the 200th anniversary of releasing Dasan Jung Yak-yong, a historical person in Namyangju-si, from exile, and also completion of his book, Mokminsemseo, a guidebook on public servant ethic. To commemorate this, I declared 2018 as "Namyangju Jeong Yak-yong's Year", to spread the values by highlighting his philosophy and ideology from a world history perspective and put them into practice.

Today, human values are being damaged by economic crisis, climate change, conflict and antagonism, war and disease, poverty, and the global community is being threatened. In his book, "Noneo gogumju", Jeong Yak-yong said, "the most important virtue in the world is In (仁, humanity). And that humanity can be translated as 'I-in sangyeo (二人相與, humanity requires two persons, not one, to go together.)"

His remark, emphasizing the harmony of people living together, captures the spirit needed for mankind today. Accordingly, UNESCO acknowledged his efforts to enrich the lives of the people and his achievements in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amed him as an important world figure in 2012.

Namyangju-si convened 'Symposium on Dasan and the SDGs' in collaboration with UNESCO, which has been promoting human development through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with the aims of seeking ways to practically applying humanism and the spirit of Silsagusi (seeking truth grounded on concrete evidence) to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I sincerely welcome you to attend Dasan International Symposium, an arena for intellectual feast, on the them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ung Yak-yong**" to revitalize Dasan spirit for the future of mankind.

Thank you.

April 5 2018  
Namyangju City

안녕하십니까?

유엔은 2015년, 민족, 인종, 국가,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 인류의 공존공영을 추구하고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고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환경 보호, 사회 정의 실현, 빈곤 해소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테러와 종교 간 갈등, 기후 변화, 난민 발생과 국경 이동 제한, 경기 침체 장기화와 일자리 감소와 같은 범세계적인 문제는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과제와 그 영향을 연구하고 해법을 모색하여야 하는 2018년, 다산 선생의 해배 200주년과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다산 선생의 고향인 남양주시와 함께 다산의 인본주의와 실사구시 정신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실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학술적, 문화적 자산인 다산의 사상과 업적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유의미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산의 교육, 경제, 과학, 애민사상을 살펴보면 그가 시대를 뛰어넘는 안목을 지녔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사상이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뜻깊고 특별합니다.

다산의 사상을 통해 전통사상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4월 5일  
**김 광 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Greetings

In 2015, the United Nations set up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pursuit of coexistence and shared prosperity of humankind through harmony and peace among different ethnic groups, races, countries, and religions, and have since then endeavored to achieve i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the commitment of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attain by 2030, with the aim of creating a better society through environmental protection,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poverty alleviation. However, global issues such as terrorism and religious conflicts, climate change, refugees and restrictions of cross-border migration, prolonged recession and job reduction are impediments to achieving these goals.

In the year of 2018, which calls on us to tackle with these global challenges and study their effects and seek the solutions, which also marks the 200th anniversary of rescinding Dasan's exile and completion of his book Mokmimsimseo,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ogether with Namyangju-si, the hometown of Dasan, cohost the symposium to explore practical ways to utilize Dasan's humanism and his spirit of Silsagusi (seeking truth grounded on concrete evidence) in the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 can also seek meaningful direc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Dasan's thoughts and achievements, which are our precious mental, academic and cultural assets. If we look at Dasan's thoughts on education, governance, science, and love for the people, we realize he had a vision that transcends his times. The fact that his thoughts still can play an important role today through modern interpretation is very meaningful and special.

I hope through Dasan's thoughts, we seek theoretical basis and action plans for the sustainable society in the traditional thoughts, and they spread around the globe.

Thank you.

April 5 2018  
**Kim Kwang Ho**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행사명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주제

지속가능한 발전, 정약용에게 묻다

일시

2018년 4월 5일(목)~6일(금)

장소

그랜드 워커히 서울, B1F 워커히 시어터

주최·주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후원



교육부

TITLE

Symposium on Dasan and the SDGs

MAIN THEME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DATE

April 5(Thu)~6(Fri) 2018

VENUE

Grand Walkerhill Seoul, B1F Walkerhill Theatre

CO-HOSTED BY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UPPORTED BY



교육부

DAY1 4월 5일(목)

시간	프로그램
12:30-13:30	등 록
13:30-14:25	개회식
	기조연설
14:25-15:25	<b>다산의 정치사상, 법치(法治)와 예치(禮治)</b> 임형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b>다산 정약용의 정신과 현 시대의 연관성</b> 보데윈 왈라벤, 레이던대학교 명예교수
	<b>지속가능한 발전, 정약용에게 묻다</b> 양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대표
	[ 세션1: 교육 ] 미래인재육성의 길, 다산의 교육관에서 찾다
15:25-16:35	<b>다산의 성인(聖人)관에 관한 교육학적 성찰</b>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b>다산, 개인과 실용의 발견</b> 박노자, 오슬로대학교 인문학부 문화연구 및 동양언어학과 정교수
	<b>좌장 :</b>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b>패널 :</b>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창호,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DAY1 April 5(Thu)

Time	Program
12:30-13:30	Registration
13:30-14:25	Opening Ceremony
	Keynote Speech
14:25-15:25	<b>Dasan's Political Theory, The Rule by Law and The Rule by Rites</b> Lim Hyung Taek, Professor Emeritus, Sungkyunkwan University
	<b>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the Spirit of Dasan Jeong Yagyong</b> Boudewijn C.A. Walraven, Professor Emeritus, Leiden University
	<b>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b> Young Soo Gil, Chai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Korea
	[ Session1 : Education ] Find the way of fostering future talents in Dasan's Educational view
15:25-16:35	<b>Pedagogical Reflection on Dasan's View of Sage</b> Chung Soon Woo,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b>Dasan: Discovering Individual, Discovering Pragmaticism</b> Pak Noja (Vladimir Tikhonov), Professor, Humanities Department of Culture Studies and Oriental Languages, Oslo University, Department of Cultural Studies and Oriental Linguistics
	<b>Moderator :</b> Han Hyong Jo,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b>Panel :</b> Park Myoung Kyu, Professor, Sociolog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hin Chang Ho,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at Korea University



牧  
文  
心  
書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Symposium on Dasan and the SDGs

## 기조연설 | Keynote Speech

### 기조연사

### Keynote Speaker

#### 임형택 | Lim Hyung Taek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Sungkyunkwan University

#### 보데윈 왈라번 | Boudewijn C.A. Walraven

레이던대학교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Leiden University

#### 양수길 | Young Soo Gil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대표  
Chai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Korea



임형택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원장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원장
- 한국실학학회 회장

### 다산의 정치사상, 법치(法治)와 예치(禮治)

이 글은 '지속 가능한 발전, 정약용에게 길을 묻다'는 논제의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로 작성 한 것이다.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인간의 문제를 우선시한다는 취지로 정약용의 정치사상을 제목으로 잡았다. 정약용은 전래의 치자 본위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피치자인 민 위 주의 정치 방법론을 사고했다. 그래서 치자를 밑에서 위로 뽑아 올리는 '下而上'의 방식을 정당한 제도라고 설파하였다. 그가 이런 '민주적' 정치학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가 없지 않았지만 그 자신이 살던 시대에 일어난 민중운동에서 그 가능성을 민감하게 포착한 것이다. 그런 움직임은 혁명적 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기에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었다. 그의 민주적 정치사상은 지향점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미래지향의 반대쪽인 상고지 향으로 표현되었다. 그래서 치자의 폭력적 지배와 수탈에 이용되는 현행법을 부정하고 예치 (禮治)를 강조하게 된다. 그렇긴 하나, 거기에는 정치공학적으로 흘러가는 오늘의 속화된 정치 현실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며,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근본적 차원에서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Lim Hyung Taek | Professor Emeritus, Sungkyunkwan University

- Director, Daedong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 Director,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 President, Academy of Korean Silhak

### Dasan's Political Theory, The Rule by Law and The Rule by Rites

This article was written as a keynote speech for the symposium titled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I intended Jeong Yak-yong's political theory as title to prioritize issues on human beings living on earth. Jeong Yak-yong considered a people (the ruled)-oriented political methodology by fundamentally changing the original ruler-based system. So, he spoke of the 'Bottom-up' theory in which the ruler was elected from the bottom up was a legitimate institution. Although there was theoretical basis in his suggestion for this "democratic" politics, he sensitively caught the possibility in the popular movements that took place of his day. Such a move was extremely weak to be a driving force for revolutionary reform. His democratic political theory was merely an aim. Because of that, it was expressed as oldness-oriented, which is the opposite of future-oriented. So, he denied the contemporary law which was used for violent domination and exploitation by the ruler, and stressed the Rule by Rites (禮治). However, there was a sense of urging the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s well as realizing the problems of the contemporary, secular and politically-engineered reality of politics.



## 다산의 정치사상, 법치(法治)와 예치(禮治)

### 1. 머리말

이번 학술회의의 의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약용에게 길을 묻다’이다. 21세기 새 천년으로 넘어서는 즈음, 지구환경의 변화와 함께 자연생태의 이상징후가 심상치 않게 감지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지구의 항구성, 인류사회의 영속성을 우려하게 된 때문이다. 이 실로 자본주의적 발전이 초래한 사태로서 지구상의 전 인류가 체감하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인물이다. 그가 남긴 저작이 아무리 방대하고 심오하다 해도 오늘날에 인류가 당면한 위기로부터 구해낼 묘방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을까. 그는 먼 훗날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갖지도 못했고 미래학자도 아니었다. 다만 그의 저작 속에는 근본적인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상적 자원과 신사고를 열어줄 이론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지금 문명사적 반성을 요망하는 지점에 서서 다산의 저작은 읽기에 따라서는 잠재적 가치가 거의 무궁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학술회의의 기조발제로 작성하는 이 글은 제목을 ‘정약용의 정치사상’으로 잡았다. 나는 21세기로 넘어오는 시공간에서 “요즈음 너나없이 지구에서 인간이 사는 환경에 우려들을 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인간의 환경도 문제지만 인간 자신이 또한 문제다”는 지적을 한바 있다.<sup>1)</sup> 그런데 인간문제를 우선시한다 하여 추상적인 덕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의미 있는 해법이 되지는 못할 터다. 생존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자유롭고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고안하는 일이 일차적인 과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다산에게 길을 묻자면 먼저 정치제도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당면한 인류적 문제를 신기술과 신산업에 의존해서 해법을 구하려는 것이 주도적인 방향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이 지식생산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이 현실을 외면하기는 어렵겠으나, 이 방향에서 근본적이고 진정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지금 정약용에게 길을 묻겠다는 취지 자체가 방향을 돌려서 인문적으로 성찰해보자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산이 정치제도와 관련해서 깊이 고민한 사안이 있다. 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는 물음인데 그는 법치(法治)를 부정하고 예치(禮治)를 주장한 것이다. 다산의 개성적인 정치사상을 드러낸 대목이다. 이에 관해서도 덧붙여 논하려고 한다.

### 2. 다산이 제기한 ‘下而上’의 정치학

다산은 이르기를 “조정은 생민(生民)의 심장부이고 생민은 조정의 손발이다”<sup>2)</sup>라고 하였다. 국가를 정부와 인민의 유기적 통일체로 인식한 것이다. 이 유기체를 이루는 양측의 관계를 다산은 어떻게 사고하였을까? 곧 통치자=‘牧’과 피치자=‘民’의 관계이다. “목은 민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민은 목을 위해 살아가느냐?” 「원목(原牧)」이란 제목의 글에서 다산이 던진 물음이다. ‘목은 민을 위해 존재’라는 것이 다산의 간단명료한 답변이다. 민이 목을 위해 있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제도요, 당연시된 현실이기도 했다. 다산이 내놓은 답변은 전통적인 제도나 실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논법이다.

‘목은 민을 위한 존재’라고 한 다산의 논법에 따르면 목=통치자는 어떻게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일까? 통치기구의 정상은 군왕 혹은 황제인데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는 천자라고 일컫기도 했다. 「탕론(蕩論)」이란 제목의 글은 이 문제를 거론한 내용이다. 탕임금은 주지하듯 폭군인 걸(桀)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라 상(商)나라를 세운 존재이다. 이 혁명적인 교체를 **방벌(放伐)**이라고 일컬었다. 방벌에 대조적인 방법이 **선양(禪讓)**인데 권력의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방식이었다. 방벌이란 정치행위가 옳은 도리이냐는 것이다. 곧 혁명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다산은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론을 전개한다. 천자란 어떻게 존립하게 되는 것이냐? 먼저 전제하기를 천자란 하늘이 내려준 것도,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내놓은 방법론이 밑에서 위로 뽑아 올리거나 추대하는 ‘下而上’이다.

1) 임형택(1996, 2000), 「19세기 서학에 대한 경학의 대응: 정약용과 심대윤의 경우」, 「창작과비평」 91. 「실사구시의 한국학」 199면, 창작과비평사.  
2) 「與金公厚」, 「여유당전서」 제1집 권19 장15~16.

다산은 자신이 제기한 ‘下而上’ 방식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가(家)를 기초단위로 해서 5가가 인(隣)을 구성하여 인장(隣長)을 세우고, 5린이 이(里)를 구성하여 이장을 세우고, 5리가 현(縣)을 구성하여 현장을 세우며, 여러 현장이 모여서 제후를 추대해 세우고, 최종적으로 여러 제후가 모여서 천자를 추대해서 세우는 방식이었다.<sup>3)</sup> 천자는 다중이 뽑아 올리는 존재이다. “그를 붙잡아 끌어내리는 것도 다중이요 올려서 뒷자리에 앉히는 것도 다중이다.” 이에 비추어 탕이 걸을 축출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논법이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원목」에서 ‘목’은 ‘민’을 위한 존재로 규정한 논리나 「탕론」에서 ‘하이상’의 방식으로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제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산의 사고논리의 근거에는 ‘민’을 정치의 주체로 인식하는 민주적 사상이 도사리고 있었다. 「원목」과 「탕론」은 다산의 방대한 저작 가운데 고도로 진보적인 정치사상을 표출한 산문으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여기에 실린 정치사상은 어디에 연원한 것일까? 이 의문이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 때문에 다산의 진보적인 정치사상은 천재적 공상으로 돌려지기 십상이었고,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 그 사상사적 위상이 바르게 잡혀지지 못했다. 이 점에 유의해서 그런 방법론을 도출한 이론적 근거 및 착안하게 된 현실적인 바탕을 추구해 보았다. 다음에 이미 표명했던 견해를 간략히 제시하면서 논의를 이어가려 한다.

### 그 이론적 뿌리

다산이 제기한 下而上의 정치학은 유교적인 애민의 정신에서 발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下而上은 애민·민본과 개념의 층위가 같지 않다. 그것의 이론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었을까? 이 물음의 답은 두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바 한쪽은 인류의 역사이고 다른 한쪽은 인간자체이다.

下而上은 먼 옛날 역사상에 실재했던 제도라고 다산은 자신있게 말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증거를 대야 했다. 그는 경전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경제학과 함께 다산학의 축을 이루는 경학에서 탐색할 문제이다. 그의 경학 저술에서 몇 가지 논거를 발견했던바 복잡한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다. 그 중의 하나만을 들여본다. 요컨대 공(公)개념이다.

국토와 인민은 본디 어느 누구의 사적 소유물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공유물이라는 데서 다산의 논리가 출발한다. 「상서고훈(尙書古訓)」이란 저술에서 다산은 관(官=公)천하란 용어를 들고 나오는데 이는 천하는 공유물임을 뜻하는 말이다.<sup>4)</sup> 반대어가 가(家)천하이다. ‘가 천하’는 천하를 사적 소유물로 삼는다는 뜻이니, 사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나라를 아들 손자로 대물리기를 했다고 한다. 후계자를 정함에 있어 ‘관천하’의 시대에는 “어진이를 통치자로 선정하는 공선(公選)의 원칙이 지켜졌다”는 논법이다.<sup>5)</sup>

정치는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하는 일이다. ‘민주’ 정치를 사고함에 당해서 인간자체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다산의 인간관에 대해서 묻게 된다.

성(性)은 예로부터 유교에서 비상하게 중시된 개념이지만, 성리학으로 와서는 이 용어부터가 性과 理의 합성어다. 그런 정도로 성은 긴요한 의미를 띠었다. 인간이 타고 난 본연의 성은 순선하다고 보았으나 인간의 기질적인 성은 청탁(淸濁)으로 구분, 등급을 지었던 것이다. 다산은 이런 성리학의 정설을 부정하고 성을 인간의 기호(嗜好)라고 보았다. 그것은 기호이기에 선으로 갈 수도, 악으로 갈 수도 있다. 인간 자신의 선택사항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하기 때문에 판단의 그것은 영역이다.

인간에게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인간존재에게 자주지권을 부여함으로써 해서 도덕은 선천적으로 있는 추상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행위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행위에 대한 가치평가에 의해서 도덕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산의 인간학에서 이성과 자주로 실천하는 인간을 만난다. 바로 이 이성적·자주적 인간은 민을 위한 정치로부터 비약하여 ‘민주’의 정치를 실천할 주체로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진다.

3) 「蕩論」, 위의 책 권11 장24, “五家爲隣, 推長於五者爲隣; 五隣爲里, 推長於五者爲里長; 五鄙(里)爲縣, 推長於五者爲縣長; 諸縣長之所共推者爲諸侯, 諸侯之所共推者爲天子.”  
4) 「尙書古訓」, 위의 책, 제2집 권22. 다산은 文祖에 대한 규명에서 ‘家天下’와 ‘官天下’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5) 「上仲氏書」, 위의 책, 제1집 권20 장18.

그 현실적 바탕

「원목」과 「탕론」에 담긴 정치사상은 이론적 근거를 인류의 역사 경험 및 인간학에 두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다산이 편 논리는 기존의 정설·통론에 위배되는 신설이었다. 그것은 실상 혁명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론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논자의 핵심인 下而上은 출처가 불분명하다. 경전이나 역사서에서 딱히 그런 의미가 담긴 구절이 찾아지지 않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산으로 하여금 그런 착안을 하게 만든 곳은 다른 어디가 아니고 다산이 살았던 시대의 현실이었다.

한국 역사상에서 19세기는 민중운동의 시대다. 1862년의 임술민란은 삼남 지역의 곳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1894년으로 와서 동학농민전쟁은 조선의 왕정체제를 무너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의 중국중심질서를 해체시키기에 이르렀다. 당시 민중운동은 역사 변혁을 추동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임술민란은 동학농민전쟁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해당했던 셈이다. 여기서 운동 형태와 함께 운동을 선도한 지식인의 존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민요(民擾)형태의 농민저항'이었다. 조선왕조 국가는 농민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농민의 동요는 곧 체제의 위협이 될 밖에 없었던 바 농민이 지배질서에 저항하는 방식은 '군도(群盜)형태의 저항'과 '민요형태의 저항'이 있었다. 군도형태는 농민이 수탈과 질곡에 견디다 못해 삶의 기반을 박차고 떠나 무장항쟁을 벌이는 방식이다. 역사상에서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은 그 운동과정에서 부각된 영웅이었다. 이에 반해서 민요형태는 농민이 삶의 기반을 이탈하지 않고 불법과 학정에 항거,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난 것이 민란으로 비화하여 마침내 동학농민전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sup>6)</sup> 이 운동형태는 농민봉기이지만 대중 시위에 다름 아니며, 한국 근현대 민주화운동의 선성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임술민란 당시 지역마다 각기 운동의 리더가 있었다. 진주 고을에서 유계춘(柳繼春), 익산 고을에서 임치수(林致洙), 함평 고을에서 정한순(鄭翰淳)은 민란의 지도자로 기록에 이름이 나오는 존재이다. 함평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 고을 백성 정한순은 앞장서서 군민들을 불러 모아 관아로 난입, 관장을 끌어내 꿇어앉히고 징치한 것으로, 함평의 공형(公兄)이 발송한 문서에 나와 있다. 농민이 폭도화한 모습이다. 그런데 정한순은 조정에서 특파한 안핵사(按覈使) 앞에 나가서 “제가 만번 죽을죄를 지었다 해도 민막(民瘼)을 바로잡지 않고는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고 호소하며 10 개조의 요구 사항을 제출한다.<sup>7)</sup> 정한순은 나름으로 의식화된 인물로서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 진주와 익산의 경우 또한 봉기의 형태가 유사할 뿐 아니라 주도자로 떠오른 유계춘이나 임치수의 행동양상과 인간유형이 서로 유사하다. 이 '민요형태'의 농민저항을 주도한 인물들은 밑에서 올라온 새로운 지식인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갑오농민전쟁의 전봉준 역시 이 유형에 속했다.

민중적 지식인의 유형이 임술민란 때 홀연히 출현한 것은 아니었음이 물론이다. 민요형태의 운동이 19세기 전후에 체제적 모순과 질곡이 가중되면서 활발해졌거니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이 등장한 것이다. 이달우(李達宇)와 이계심(李啓心)을 들어볼 수 있다. 이달우는 1804년에 역적의 누명을 쓰고 처단된 인물이다. 그는 황해도 안악의 상민으로 직업이 서당 훈장이었는데 국정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초야방략(草野方略)」이란 책을 지어 임금께 바치고자 했으나 길이 허서 또 가사를 지어 자기 뜻을 세상에 유포시켰다. 이 일이 그를 처형당하게 만든 것이다.<sup>8)</sup>

이달우와 동시대에 역시 황해도의 곡산에서 활동한 인물이 이계심이다. 이계심은 관의 농간 수탈로 원성이 높음에 고을 백성 1천여 명을 이끌고 관아로 몰려가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전형적인 '민요형태의 농민저항'이었다. 이 폭동이 일어난 직후인 1797년에 다산이 곡산부사로 부임한다. 다산에게 민란을 단호히 진압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다산이 곡산 경내로 들어서자 이계심이 소첩(訴牒)을 들고 제 발로 나타났다. 그의 소첩에는 민막 12조가 열거되어 있었다. 이계심을 당장 체포해서 엄벌에 처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다산은 이계심을 조용히 불러서 정사가 바르게 잡히지 못하는 까닭은 백성이 폐막을 고치라고 대들지 못하는데 있다면서 “너 같은 사람은 마땅히 천량(千兩)을 주고라도 사야할 것이다.”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였다.<sup>9)</sup>

6) 임형택(1990, 2000), 「丁若鏞의 민주적 정치사상의 이론적·현실적 근거」,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실사구시의 한국학」 349~350.  
7) 「龍湖閒錄」 권12. 「壬戌四月 咸平公兄文狀」과 「咸平亂魁鄭翰淳條」  
8) 李達宇에 관한 기록은 「왕조실록」 순조 4년 9월 신묘조(제47책 490면)와 「罪人達宇義綱等推案」에 나와 있다.  
9) 「自撰墓誌銘, 集中本」 위의 책, 제1집 권16. 「俟菴先生年譜」에는 “一邑須有如者一個, 能不怕刑不怕死, 爲萬民伸其怨, 千金可得. 汝則難得, 今日妨汝.”(85~86)라고 나와 있다.

1797년의 이계심이나 1862년의 정한순 등, 1894년의 전봉준과 같은 민중적 지식인은 백성이 당하는 질곡과 고난을 그네들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백성들을 각성 시키고 백성들의 잠재적 역량을 조직화해낸 것이다. 다산은 민중의 자치적인 움직임에 부정적인 관점을 갖지 않았으며, 이 움직임을 이끌어낸 민중적 지식인의 존재를 평가하였다. 다산이 제기한 下而上은 이런 데서 촉발이 되었고 그 실현 가능성까지 전망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3. 현행법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법개념

다산은 민주적 정치를 착안하긴 했으나 자신의 학문 작업을 그 방향으로 밀고나간 것 같지 않다. 그의 학문체계에서 정치·사회적 실천을 의도한 영역은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의 3부작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3부작은 下而上을 구체화시킨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민중의 성장, 그것을 주도한 민중적 지식인의 존재가 다산으로 하여금 눈을 크게 뜨도록 만든 점을 위에서 주목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껏 싹이 튼 정도였으며, 그 싹이 자라날 환경은 극히 열악한 상태였다. 게다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는 아무런 모델도 없이 한 개인의 머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요컨대 다산이 착안한 下而上의 정치는 지금 당장에 실현 가능한 과제라기보다는 장차 성취해야 할 지향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국가 개조에 마스터플랜으로 구상한 저술은 「경세유표」이다.

「경세유표」의 체제는 「탕론」, 「원목」에 담긴 정치이론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폭 수정한, 근원적 개혁의 이상을 현실에 절충한 것이었다.<sup>10)</sup> 「목민심서」의 경우는 지방 행정의 실무지침서에 해당하는 책으로 목전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백성을 구제하려는 데 목적을 둔 내용이다. 「흠흠신서」의 경우 살인옥사를 다룬 책으로 인간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특화시킨 터였다. 다산의 정치·사회적 실천을 의도한 3부작은 공히 중점이 민의 문제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또 아울러 유의할 점이 있다. 모두 복고적 관점을 취한 것이다. 복고적 성격은 반계(潘溪) 유형원(柳馨遠)으로부터 다산에 이르기까지 실학의 특징적 면모이기도 했다. 실학의 기본 입장을 상고주의(尙古主義)로 규정지어도 좋다. 다산의 민주적 정치사상은 방금 지적한 대로 하나의 지향점인데 지향한 지점은 미래가 아니고 옛날로 향해 있었다. 하(夏)·상(商)·주(周)로 이어진 '성인시대'를 개혁의 준거와 지표로 설정한 것이었다. 「경세유표」를 두고 말하면 신아구방(新我舊邦, 낡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개조한다는 뜻)을 표방했음에도 「주례(周禮)」로 돌아갈 것을 회귀하였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 개혁을 의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고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가탁이나 일시적 방편이 아니고 거기에 진정성이 깃들여 있다. 이 대목에서 다산이 법치를 부정하고 예치를 주장한 논리를 들여보자. 예치를 주장한 그 자체가 전형적인 상고주의이지만 새로운 법개념을 고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세유표」는 책 이름이 당초에는 「방례초본(邦禮草本)」으로 되어 있었다. 다산은 그 서문에서 “여기서 논하는 내용은 법이다. 그럼에도 왜 책이름에 예(禮)를 썼을까?”라고 하면서 직접 해명하고 있다. 예치라면 흔히 덕치(德治)로 풀이 되지만 다산에 있어서 법치에 대체된 예치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체제 및 국정운영의 기강을 ‘예’로 세우면서 예치를 주장하는바 요컨대 「주례」를 전범으로 삼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산은 법이란 모름지기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사고했던 것일까?

다산은 예와 법을 구분지어 “천리(天理)에 비추어 합당되고 인정에 맞아 어울리는 것을 예라고 이르는데 대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바로 험박해서 우리 백성들을 덜덜 떨게 만들어 감히 저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백성들을 덜덜 떨게 만들어 감히 저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특성이라고 본다. 이런 폭력적인 성격은 후세의 제왕들이 제정한 법이 갖는 속성이라고 한다. 상고의 '성인시대'에는 “예로 법을 삼는데 반해서 후세의 제왕들은 법으로 법을 삼으니 이점이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sup>11)</sup>

다산이 문제 삼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의 폭력성이다. 반면에 예란 “천리에 비추어 합당하고 인정에 맞아 어울리는 것”이다. 다산이 강한

10) 「정약용의 민주적 정치사상의 이론적·현실적 근거」: 「蕩論」, 「原牧」의 이해를 위하여.  
11) 이 단락에서 인용한 「邦禮草本序」의 원문을 총괄해서 참고로 제시한다. “茲所論者法也. 法而名之曰禮何也? 先王以禮而爲國, 以禮而道民, 至禮之衰而法之名起焉. …… 揆諸天理而合, 錯諸人情而協者爲之禮. 威之以所恐, 迫之以所悲, 使斯民兢兢然莫之敢干者謂之法. 先王以禮而爲法, 後王以法而爲法.”(「與猶堂全書」 제1집 권12, 장39)

어조로 부정한 법은 당시에도 엄연한 현행법이었다. 다산은 법을 회의하였만 원칙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며, 법이 예의 성질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즉 '제왕의 법'—현행법을 부정하고 천리와 인정에 합당하여 보편성·항구성을 담지한 새로운 법개념을 그는 사고하고 있다.

다산이 정치·사회적 실천을 위한 3부작에서 「흠흠신서」를 특화시킨 것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까닭도 있겠으나 인명을 중시하는데 참 뜻이 있었다. 다산은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낳고 죽이고 한다”고 하였다. 이에 천권(天權)이란 개념을 쓴다. 목민관이 형벌을 판정하는 것은 천권을 대신한 행위라고 말했다.<sup>12)</sup> 그런 정도로 인명을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다. 인간존중의 정신에 다름 아니다. 요는 현행법에 문제점이 있었다.

위에서 下而上의 정치학을 논하는 단서로서 ‘목은 민을 위한 존재’라고 한 「원목」의 구절을 들었다. 민의 원망(願望)을 따라서 상향식으로 법을 제정해 올리는 방식이다 함이 「원목」의 주 논지였다. 그래서 법은 원래 민의 편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법제정의 원형이 훼손됨으로 해서 법이란 이름으로 존주비민(尊主卑民, 군주를 높이고 민을 깔아뭉개는 뜻)·각하부상(刻下附上, 아래를 깔아서 위를 살지게 한다는 뜻)이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후세에 통용된 제왕을 위한 법, 현행법의 실태이다. 이 문제점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제기한 것이 곧 예치로 돌아가자는 주장이었다.

중국과 한국 등 한자문화권에서 제도화된 법은 인권이란 개념이 부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고 통치자의 권력을 견제하는 법을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법은 오직 통치의 수단이었으며, 인간을 규제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다산이 법에 대해 근원적으로 회의하였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원목」에서 창조적인 예지로 구상하였던 민주적인 법제정을 유보해둔 상태에서는 고대적인 ‘예치’의 개념을 호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禮를 지향한 새로운 법개념을 의식하게 된 것이다.

다산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천권의 개념을 도입한 터였다. 인간의 생명은 기본적으로 천권에 달린 것으로 사고한 것이다. 천권에 의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형식이다. 이 천권에 의거해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제기하여 하늘의 이치와 인간현실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법으로 돌아갈 도리를 강구하였다. 권력자의 사리사욕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 공공성 및 합리성을 지닌 법, 그 법의 근거를 天에서 찾은 논법이다. 제왕의 현행법을 부정한 법철학은 천권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바 다산은 천권이 보장하는 인권을 사고하였다. 거기에는 자연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sup>13)</sup>

#### 4. 정의 정치학

공자는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正’이란 한 글자로 대답했다.<sup>14)</sup> 공자가 “정치는 正이다”고 규정한 문맥에서 뜻하는 바는 대개 명분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공자가 처했던 시대가 명분이 혼란스럽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 한다. 유교의 정치학은 정의 구현, 즉 바른 도리의 실천에 종지(宗旨)가 있었다고 하겠는데 각기 시대의 요구나 학자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正은 여러모로 달리 해석되어 왔음이 물론이다.

19세기 한국의 실학을 대표하는 학자라면 다산 정약용과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綺, 1803~1877)를 손꼽는데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학자가 약속이나 한듯 정치학의 첫 출발을 正에서 하는데 그 해석은 방향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다산의 해석을 들어보고 이어서 혜강의 해석을 거론할까 한다. 「원정(原政)」과 함께 「원목」, 「탕론」의 3편은 나란히 정론적 산문인데 이중에서 「원정」은 제목 그대로 정치학의 원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공자가 천명했던 政=正을 다산은 ‘우리 백성을 고르게 하는 것’(均吾民)이라고 해석한다. 본디 正과 均은 등치시킬 말은 아니다. 「원정」에서 均이 포괄한 의미는 중층적인데 均분, 균형, 공정 등의 뜻을 담고 있다. “우리 백성을 고르게 해야겠거늘 어찌 토지의 이득을 독차지해서 부를 누리게 하며, 어찌 토지의 혜택을 가로막아서 빈곤하게 만든단 말인가. 백성을 위해 토지를 측량하여, 백성에게 주어 均분해서 바로잡는 것을 일러 정치라 한다.”<sup>15)</sup> 정치란 토지의 均분을 통해

12) 「欽欽新書序」, “惟天生人而又死之, 人命繫乎天, 迺司牧又以其間, 安其善良而生之, 執有辜者而之死, 是顯見天權耳,, 人代操天權.”(위의 책, 권12, 장43)  
13) 이 단원의 논지는 필자의 「문명의식과 실학: 한국지성사를 읽다」 142~148면(돌베개, 2009)에서 진술한 내용을 일부 차용했다.  
14)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曰: “政者正也. 子帥而正, 孰敢不正.”(「論語·顏淵」)  
15) 均吾民也, 何使之竝地之利而富厚, 何使之阻地之澤而貧薄. 爲之計地與民而均分焉, 以正之, 謂之政.(「與猶堂全書·原政」 제1집 권10 장2~3)

正을 실현하는 행위라고 밝힌 것이다. 같은 논법으로 재화를 유통시켜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약육강식을 배제해서 약자도 존속하게 하는 것, 상벌이나 인재 등용을 공평하게 하는 것들이 正의 정치라는 주장을 펼쳐 냈다.

「원정」은 끝 단락에서 “왕정(王政)이 폐지되고부터 백성이 곤궁하게 되었으며, 백성이 곤궁하게 됨에 나라가 가난하게 되었고, 나라가 가난하게 됨에 부세가 번거롭게 되었고, 부세가 번거롭게 됨에 인심이 이반하게 되었으며, 인심이 이반하게 되자 천명(天命)도 떠나갔다. 고로 긴급한 일은 정치에 있다”는 문장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 왕정이란 선왕(先王)의 정치, 즉 성인시대를 상정한 발언이다. 다산의 ‘정의 정치학’은 구현 방안이 오직 均의 실천에 있었다.

혜강에 있어서 정치학에 해당되는 저술은 「인정(人政)」 25권 12책이다. 「인정」의 자서에서 그 또한 “정치란 正이다”라는 공자의 말을 전제해 놓고 인간의 “바르지 않은 행위를 금하고 막아서 천도의 정통을 본받고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sup>16)</sup> 라고 천명하였다. 혜강은 正을 인간으로 하여금 ‘천도의 정통을 본받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 해석에 의해서 자신의 정치학 저술에 人政이란 책 이름을 붙였을 터이다. ‘천도의 정통을 본받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란 그 자신의 기학(氣學)에 근거한 논법이다. 다산학이 근본을 경학에 두었음에 대해서 혜강학은 근본을 기학에 두고 있었다. 혜강의 경우 학문을 기학에 입각함으로써 탈경학적인 방향으로 추구한다. “온갖 사무는 준행해야 하는 일통의 궤도가 있다. 어렵고 의심스러운 데서 바르게 나가고 엇갈리는 길목에서 바르게 돌아가 방향이 혼미하지 않고 흔들려 빼앗김이 없는 그것을 일러 정치라 이르는 것이다.”<sup>17)</sup> 혜강이 사고한 ‘정의 정치학’이다.

혜강 역시 자기가 제창하는 정의 정치를 왕정이라고 일컬었다. 다산이 선왕의 정치를 왕정이라고 불렀던 그 말과 똑 같은데 내포 의미는 현저히 다르다. 혜강은 선왕의 정치를 지금 돌아가야 마땅한 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 자신 탈경학적 입장을 취했듯 상고주의를 거부한 것이다. 그의 기학은 동양 전래의 기(氣) 개념으로부터 유래한 것이지만 “우내인(宇內人)이 함께 측험(測驗)해서 도달한 결과”로 자부하였다. 그는 서구의 과학을 동양적 패러다임인 천인(天人)의 논리’로 수용한 셈이다. 혜강은 천인운화(天人運化)를 사고함으로써 자신의 학문 구도에 천도와 인도를 아우를 수 있었다.

혜강의 정치논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기학적 개념들은 추상도가 높는데다가 「인정」에서 폭넓게 설계한 경륜 및 이런저런 기발하고도 창의적인 제도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무언가 구체적으로 잡혀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끝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앞에 방금 언급한 기학의 논리로 인도와 천도의 자연스런 통일과 조화를 사고하게 됨에, 거기서 시야를 확대하여 국가의 경계를 소통하는 만국일통(萬國一統)을 떠올리고 천지자연의 안녕을 위해 우내녕정(宇內寧靖)이란 개념을 포착하기에 이르렀다. 만국일통과 우내녕정 또한 취지는 아주 좋지만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실의 비약으로 여겨진다. 그렇다 해서 비웃고 치울 문제는 아니다. 인류가 지금부터라도 추구해야할 ‘바른 도리’이기 때문이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꾸준한 실천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5. 맺음말

위에서 개진한 가운데 세 가지 점을 들어 두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려 한다. 첫째, ‘정의 정치학’에 대해서다. 다산도 혜강도 “정치는 正이다”는 명제에 입각해서 정치를 논하였던바 양자 모두 근대 정치학과는 거리가 먼 이론이었다. 더구나 오늘의 정치 공학으로 빠져든 현실에서 보면 심히 오할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도리어 속화되고 물신화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반성토록 하는 사상적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산은 正을 均으로 해석하여 均분·균형·공정을 역설하였으며, 혜강은 기학적 사유에 입각해서 만국일통·우내녕정을 인류적 과제로 제출하였다. 19세기의 두 학자가 내놓은 정치론은 사실상 근대 정치가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문제점을 심대하게 악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두 학자가 남겨 놓은 과제는 현재적인 것이다. 그런데 양자는 이론적 입장과 추구한 방향이 서로 같지 않은데 차라리 양자를 통합해서 강구하는 편이 바

16) 政者正也, 禁遏人爲之不正, 效順天道之正統.(「明南樓叢書·人政序」 2, 1면)  
17) 王者代天行道, 謂之王政. … 凡百事務, 有遵行之一統軌軌, 就正其疑難, 歸正其歧武, 不迷方向, 無所擾奪, 皆可謂之政.(「위의 책·人政凡例」 3면.)

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전면적 쇄신, 개편이 요망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다. 민주주의라면 선거의 방식을 통한 대의제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런 민주주의와 다산이 착안한 민주적 정치사상은 확실히 거리가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행의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제도도 아니고 완전무결한 제도도 아니다. 우리 한국의 최근 정치상황에 비추어 민주주의는 어떻게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다산의 민주사상에 관심을 두면서 내 나름으로 떠오른 생각이 있다. 민주주의는 인류 보편의 지향점이라는 점이다. 천지 사이에 삶의 주체로서 생존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과 자유를 요망하고 있다. 다산 자신 이런 인간을 발견함으로써 해서 민주적 방식을 착안하지 않았던가.

셋째, 한국사에서 특징적인 시위문화이다. 다산이 하이상의 민주적 방식을 각성하게 된 데 현실적 배경이 있었음을 앞서 주목하였다. 그는 민중의 성장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였다. 그것은 일종의 데모로 민중운동의 한 형태인데 본고에서 이를 ‘민요(民擾)형태의 농민저항’이라고 표현했다. 민중운동이 다산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치사상을 사고하게 만들었지만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사상을 실천할 동력을 얻지 못해 복고적인 경향으로 나갔다. 20세기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3·1운동으로부터, 4·19, 5·18 광주, 6·3 항쟁에서 최근의 ‘촛불 시위’에 이르기까지 시위문화가 발전하여 역사의 동력이 되었던 것이 실제 상황이었다. 최근의 ‘촛불시위’는 혁명적인 상황이었음에도 혁명으로 관철될 수 없었다. ‘촛불’이 잦아들지 않고 혁명적 동력의 밑받침이 되고 또 전진적 방향으로 끌어가야만 진정한 민주제도가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 Dasan's Political Theory, The Rule by Law and The Rule by Rites

### 1. Preface

The agenda of this conference is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By the time of the new millennium in the 21st century, as the abnormal signs of the natural habitat had become threatening with the change of the earth environment, we came to consider 'sustainable development'. It was because of concerns about the durability of the earth and the permanence of human society. This fact reflected the sense of crisis that all human beings felt on Earth as a result of capitalist development.

Jeong Yak-yong (丁若鏞, 1762-1836) had lived and died on the Korean peninsula around the 19th century. Even if the work he has left was vast and profound, can we find out the way to rescue mankind from today's crisis? He did not have eyes to look the distant future, nor was he a futurist. In his work, however, there were an abundance of theories that will open up a new mindset and an ideological resource that allowed fundamental reflection. Now, at the point of demanding a reflection in civilization, Dasan's work seems to give priceless value depending on the way of reading.

This article which was written as a keynote speech for the symposium was titled "Jeong Yak-yong's Political Theory". I pointed out that "The environment where human beings are living is a problem, but human beings themselves are also a problem."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21st century, while I am talking about the situation in which "Everyone concerns about the Earth environment where humans live."<sup>1)</sup> However, it will not be a meaningful solution with abstract virtues, even though I give priority to human problems. I think the primary task is to devise an institution so that humans as a subject of survival can enjoy a free and stable life. In order for us to ask Dasan the way, we need to first look into the political system.

It seems to be the leading way to seek solutions for the current human issues by relying on new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It is true that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rought about remarkable changes in knowledge production. It is difficult to ignore this reality, but I wonder whether we can find a fundamental and genuine solution in this direction.

I think that the intention to ask Jeong Yak-yong is aiming to reflect on it humanistically by turning around the direction. Dasan had a deep concern about the political system. That he concerned was the question on what the law should be like and the answer was denying the Rule by Law (法治) and claiming the Rule by Rites (禮治). In this part, Dasan's unique political theory was revealed. I will also discuss this in detail.

### 2. Politics of 'Bottom-up' Suggested by Dasan

Dasan said, "The royal court is the heart of common people, and the common people are the hands and feet of the royal court."<sup>2)</sup> He regarded the country as an organic unity of state and people. How did Dasan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xes of this organism? It is that 'the ruler = state (牧)' and 'the ruled = common people (民)'. The question that Dasan threw in the article titled 'Won-mok (原牧)' was "Does the state exist for the people, and the people live for the state?" Dasan's clear answer was that 'The state is present for the people'. The

1) Yim Hyeong-taek (1996, 2000), 「The Response of the Study of The Classics to Western Learning in the 19th Century: Jeong Yak-yong and Sim Dae-yun's Cases」, 「Creation & criticism」 91. 「The Korean Studies of SilSaGuSi」 p.199, Creation & criticism.

2) 「To. Kim Gong-hu (與金公厚)」, 「Yeoyudangcheonseo」 Bk.1 Vol.19 pp.15-16.

system that came from ancient times was 'the people are present for the state.', and it was a given reality. Dasan's answer was an argument that flied directly in the face of the traditional systems or the actual circumstances.

Dasan argued that "The state is for the people." and then, how did the ruler take the position according to his argument? The top of the governing body was a king, an emperor, or a son of Heaven in the world centered on China. The article titled 「Theory of Tang (蕩論)」 referred to this issue. King Tang was the one who cast out the tyrant Jie (桀) and became the king by forming the Shang (商) Dynasty. This revolutionary replacement is called **the purge of tyrant (放伐)**. **The transfer of the imperial power (禪讓)** was the way contrast to the purge of tyrant in which the replacement of power came peacefully. So, was the political act of the purge of tyrant right, which was the question on the legitimacy of the revolution. In this question, Dasan developed a theory on a fundamental level. How did a son of Heaven exist? First, he made clear the precondition that the son of Heaven was neither heaven-sent nor soared through the ground. And his methodology was 'Bottom-up' where the ruler was elected from the bottom up or selected.

Dasan had a fairly detailed account of his 'Bottom-up' approach. With Ga (家, household) as a basic unit, 5-Ga formed In (隣, neighborhood) selecting In-chang (隣長), 5-In formed Li (里, village) selecting Li-chang, 5-Li formed (縣, county) selecting Hyeon-chang, several Hyeon-changs gathered to select feudal lord and finally, feudal lords gathered and elected the son of Heaven.<sup>3)</sup> The son of Heaven was crowd-raising existence. "It is a crowd to bring him down, and it is also a crowd that places him at the top." In light of this, of course, the argument that Tang's ouster of Jie was legitimate could be established. In the 「Won-mok」 'the state' was defined as the existence for 'the people' and in the 「Theory of Tang」 the system in which a governing body was constituted in a 'Bottom-up' way was argued right. Like this at the root of Dasan's logic thought there was a democratic thought that perceived 'common people' as the subject of politics.

Among Dasan's vast writings 「Won-mok」 and 「Theory of Tang」 are prosaic works expressing highly progressive political theories. Where did the political theories come from? Since the question has not been clarified properly, Dasan's progressive political theory was tended to be a genius fantasy, and interpreted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or distorting meaning, so, the ideological status was not positioned properly. In this regard, I pursued the theoretical grounds on how he derived such a methodology, and the realistic background on how he came up with the idea. I would like to continue the discussion with a brief outline of the views I have already expressed.

### The Theoretical Grounds

The politics of Bottom-up (下而上) suggested by Dasan could be seen as originating from the spirit of the Confucian love of people. It shared the sense in common that we should love the people and exercise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the people. Bottom-up (下而上), however, did not have the same level of concept as the love of people or people-centered. What was the theoretical grounds behind i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could be found in two aspects, one was the history of mankind and the other was human itself.

Dasan confidently said that the Bottom-up was a system that existed in reality in the history for a long time ago. To make this argument convincing, he needed proof. He was proving his claim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lassics. This

3) 「Theory of Tang (蕩論)」, The above book Vol.11 p.24, "五家爲隣, 推長於五者爲隣; 五隣爲里, 推長於五者爲里長; 五鄙(里)爲縣, 推長於五者爲縣長; 諸縣長之所共推者爲諸侯, 諸侯之所共推者爲天子."

was an issue to be dealt with i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which was the axis of Dasan studies (茶山學) along with the Study of Managing a State (經世學). I have found some arguments in his writings on confucian classics, which required a complicated explanation. I took one of them as an example, that was the concept of 'the public (公)'.

The land and the people could not be anyone's private property. Dasan's logic began that they were public assets. In his writing 「Sangseo gohun (尙書古訓)」 Dasan used the term 'Official reign (官天下)' which meant that the world was a public asset.<sup>4)</sup> The opposite word was Family reign (家天下). 'Family reign' meant to make the world a private property. As they considered the country as a private property, he said that they passed down it from father to son. In determining the successor in the era of 'Official reign', he argued that "The principle of electing (公選) a man of worth as a ruler has been kept."<sup>5)</sup>

Politics is the work of humans to rule humans. I cannot help but turn my eyes to the human being itself in thinking about the politics of 'democracy'. I wonder Dasan's view of humanity.

The concept of Nature (性) has been emphasized in Confucianism for a long time, and in terms of Seongnihak (性理學, Neo-Confucianism), the term itself is a compound of Nature (性) and Principle (理). To that extent Nature has had a significant meaning. Nature, which is an inherent part of humans, was seen as pure and good, but humans' temperamental Nature (性) was classified as clarity or turbidity and graded. Dasan denied this orthodoxy of Seongnihak and saw Nature as human taste (嗜好). As it is human taste, you can be either good or evil. It is a human's own choice. As it belongs to human's free will, the judgment is his domain.

He saw 'the right of independence (自主之權)' in humans. By giving the right of independence to a human being, morality is not an inherent abstraction but a fulfillment of human self-action. Therefore, morality is recognized by valuing the act. In Dasan's anthropology we encounter humans who practice reason and self-mastery. It is believed that this rational and autonomous man is no shortage in becoming a subject to practice the politics of 'democracy' by leaping forward from the politics for the people.

### The Realistic Background

Political theory in "Won-mok" and "Theory of Tang" had the theoretical basis for humans' historical experience and anthropology. As we have seen above, Dasan's logic was a new theory running counter to existing orthodoxy and general principle. It was in fact a revolutionary thing, but it was also the result of a theoretical dispute. But the origin of the Bottom-up, the core of the argument, is unclear. There is no phrase found in the Classics or historical books that contain such meaning. In conclusion, it was the reality of the time when Dasan lived, not elsewhere, that made Dasan aim at such a point of view. In Korean history, the nineteenth century is the era of popular movement. In 1862, Peasant Rebellions were recorded in various places in the three southern Provinces. In 1894, Donghak Rebellion not only put an end of the Joseon monarchy system but also dismantled the China-centered order of East Asia. At the time, the popular movement played a role in driving the transformation of history.

Peasant Rebellion was like a middle point in the way to Donghak Rebellion. He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existence of intellectuals who led the movement along with the form of movement. It was 'the revolt-type (民

4) 「Sangseo gohun (尙書古訓)」, The above book, Bk.2 p.22 Dasan introduced the concepts of 'Family reign (家天下)' and 'Official reign (官天下)' in the investigation of King Munjo (文祖).

5) 「Sang Jungssiseo (上仲氏書)」, The above book, Bk.1 Vol.20 p.18.

擾) peasant resistance'. In the Joseon Dynasty the state was based on peasants, and the agitation of peasants was a threat to the system. The ways the peasants resisted the ruling order were 'the Kundo-type (a pack of bandits) resistance' and 'the revolt-type resistance'. In the Kundo-type the peasants who could not withstand exploitation and fetters left their foundation of livelihood and waged armed resistance. In history, Hong Gil-dong, Im Kkeok-jung, and Jang Gil-san were the heroes of such a movement. On the other hand, the revolt-type where the peasants did not leave their foundation of livelihood but to protest collectively against illegality and tyranny had become an uprising, and finally developed to Donghak Rebellion.<sup>6)</sup> This type of movement was peasants' uprising, but it was no different from a public demonstration. It would be good to say that it was the precedent of the modern democratic movement in Korea.

At the time of Peasant Rebellion, there was a movement leader in each area. In Jinju town there was Yu Gye-chun (柳繼春), in Iksan town, Im Chi-su (林致洙), and in Hampyeong town, Jeong Han-sun (鄭翰淳) and they left their names behind as a leader of uprising. In Hampyeong's case, Jeong Han-sun, one of the town's people, led the crowd to the government office, made the county magistrate knelt down to discipline, which was written in the document sent by a chief clerk (公兪) in Hampyeong. The peasants became rioters. Jeong Han-sun, however, went in front of a special investigator who was dispatched from the royal court and submitted 10 requirements, appealing that "Even if I have committed grave sins for ten thousand times, I cannot close my eyes without solving the suffering of the people (民瘼)."<sup>7)</sup> Jeong Han-sun was a conscientized figure with considerable insight. In the case of Jinju and Iksan, not only the form of the uprising was similar, but Yu Gye-chun or Im Chi-su, who emerged as the leading figure, were also similar in behavior pattern and human type. Those who led the revolt-type peasant resistance could be seen as the type of new intellectuals from below. Jeon Bong-ju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lso belonged to this type.

Of course, the type of popular intellectuals did not appear suddenly in Peasant Rebellion. The revolt-type movement became active as the systemic contradictions and fetters increased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the new type of intellectuals had appeared in the process. Lee Dal-woo (李達宇) and Lee Gye-sim (李啓心) were examples. Lee Dal-woo was a person who was branded as a traitor and executed in 1804. He was a commoner in Anak, Hwanghae-do, and his job was a private village school teacher 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He tried to offer a book called 「Choya bangnyak (草野方略)」 that he wrote to the king for the purpose of correcting the national affairs, but failed. Then, he wrote long poems to spread his will to the world. This had made him executed.<sup>8)</sup>

A figure who was also active in Koksan, Hwanghae-do in contemporary time with Lee Dal-woo was Lee Gye-sim. He led about 1,000 town's people to the government office to protest and demand correction, as a lot of people had complained for the tricks and exploitation of the government. It was a typical 'revolt-type peasant resistance'. In 1797, shortly after the uprising, Dasan was appointed as Goksan-Governor. Dasan was given the task of firmly suppressing the uprising. As Dasan entered the precincts of Goksan, Lee Gye-sim appeared on his feet with a petition (訴牒). In his petition, twelve chapters of the suffering of the people were listed. Although Dasan was urged to arrest Lee Gye-sim immediately to punish, he quietly called Lee Gye-sim and praised and

6) Yim Hyeong-taek (1990, 2000),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is of Jeong Yak-yong (丁若鏞)'s Democratic Political Thought」, 「The Development of National History and Its Culture」, 「The Korean Studies of SilSaGuSi」 349~350.

7) 「Yongho hallok (龍湖閒錄)」 Vol.12 「王戌四月 咸平公兪文狀」 and 「咸平亂魁鄭翰淳條」

8) The record of Lee Dal-woo (李達宇) appeare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King Sunjo Year 4, Sep. Sinmyojo (Bk.47 p.490) and 「罪人達宇義綱等推案」.

encouraged him saying that "The reason why the national affairs cannot be corrected is that the people cannot resist to fix the worst evil, so a man like you we have to get whatever we pay."<sup>9)</sup>

Popular intellectuals such as Lee Gye-sim, Jeong Han-sun in 1862, and Jeon Bong-jun in 1894, had awakened the people to solve the fetters and afflictions they suffered themselves and organized the potential capacity of the people. Dasan did not have a negative view on the autonomous movement of the people, and valued the existence of the popular intellectuals who led the movement. It seemed that the Bottom-up suggested by Dasan was triggered by this, and he predicted its feasibility.

### 3. Doubts about Contemporary Legislation System and New Legal Concept

Although Dasan was focusing on democratic politics, it did not seem to push his academic work in the direction. In his academic system the area where his political and social practice was intended was made up of trilogy, 「Gyeong'se yupyo (經世遺表) [Essays of Statecraft]」, 「Mokminsimseo (牧民心書) [The Mind of Governing the People]」 and 「Heumheumsinseo (欽欽新書) [Discreet Handling of the Criminal Case]」, which was hard to be seen as detailed Bottom-up. Why was it so? It was noted above that the growth of the people and the presence of the popular intellectuals who led it, led Dasan to open his eyes. But it was still sprouting stage,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shoots were grown was extremely poor. Moreover, the political system of democracy could not be created in the head of an individual without any model. In short, Dasan's Bottom-up politics should be viewed as a future goal rather than a present feasible task. The writing he envisioned as a master plan for national reconstruction was 「Gyeong'se yupyo」. The system of 「Gyeong'se yupyo」 was a compromise of the ideal of fundamental reform to reality, which greatly modified the political theories in the "Theory of Tang" and "Won-mok" in view of feasibility.<sup>10)</sup> In the case of 「Mokminsimseo (牧民心書) [The Mind of Governing the People]」, the book was the practical guide for the local administration, aiming to rescue people who groaned and died in front. In the case of 「Heumheumsinseo」, a book of murder cases, it was specialized separately because it dealt with the problems directly related to human life. The emphasis of the trilogy intended for Dasan's political and social practice was lingering on the problem of common people.

There was also a point to note. All had taken a retro perspective. The retro character has been a feature of Shirhak (實學, Practical Learning) from 'Ban-gye (磻溪)' Yu Hyong-won (柳馨遠) to Dasan. You can define the basic position of Shirhak as the Old times worship principle. Dasan's democratic political theory, as I have just pointed out, was an orientation, but the point of the orientation is toward the past, not the future. The confucian sages period, which led to Xia dynasty (夏), Shang dynasty (商) and Zhou dynasty (周), was set as the criteria and indicators of reform. When we spoke of 「Gyeong'se yupyo (經世遺表) [Essays of Statecraft]」 he expressed his desire to return to the 「Rites of Zhou (周禮)」 despite his claim of 'Reforming the old country newly (新我舊邦)'. It seemed to be contradictory, but it could be seen that he took the old times worship principle, as he intended the fundamental reform. It was not a sort of excuse or temporary measure, but it had authenticity in it. Let's take the logic of the Rule

9) 「Self-Written epitaph (自撰墓誌銘), Jipjoongbon (集中本)」 The above book, Bk.1 Vol.16 「俟菴先生年譜」 contains "一邑須有如者一個, 能不怕刑不怕死, 爲萬民伸其怨, 千金可得, 汝則難得, 今日妨汝."(85-86).

10)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is of Jeong Yak-yong (丁若鏞)'s Democratic Political Thought: To understand 「Theory of Tang (蕩論)」 「Won-mok (原牧)」

by Law that Dasan denied, and the Rule by Rites (禮治) he claimed in this paragraph. Claiming the 'Rule by Rites' itself was a typical Old times worship principle, but it could be interpreted as considering a new legal concept.

「Gyeong'se yupyo (經世遺表) [Essays of Statecraft]」 was originally named 「Bang-lae chobon (邦禮草本, Rough Draft of Design for Good Governance)」. In the preface of it Dasan explained the reason in-person "What we are discussing here is law. Nevertheless, the reason why I named it Rites (禮)..." The Rule by Rites is often interpreted to the Rule by Virtue, but for Dasan the Rule by Rites, which is replaced by the Rule by Law, is entirely different. He argued for 'the Rule by Rites' to tighten the discipline of national system and state administration through 'Rites', which was the result of using the 「Rites of Zhou (周禮)」 as a classic. What did Dasan think the law should be?

Dasan distinguished the Rites from the law and said, "It is called Rites which is worthy of the heaven's principle (天理) and suitable for human feeling, while it is called law to make our people scared and not dare to contradict by intimidating them with what they are afraid of and grievous." 'Making people afraid of and not dare to contradict' is a characteristic of the law. This violent characteristic was said to be the characteristic of the law established by kings after ages. He stated that in the old times of 'the confucian sages period' "Rites was taken for law, while kings after ages take law for law, which is quite different."<sup>11)</sup>

What Dasan pointed out to the problem was the violence of law. Rites, on the other hand, was "worthy of the heaven's principle and suitable for human feeling". The law that Dasan denied in a strong tone was the contemporary law at the time. Dasan was skeptical of the law, but he did not originally denied it, and he thought that the law should have the nature of Rites. In other words, he denied "the king's law", the contemporary law, and considered a new legal concept bearing universality and permanence being worthy of heaven's principle and suitable for human feeling.

The reason why Dasan specialized the Heumheumsinseo in the trilogy for political and social practice was that it required expert knowledge, but the true reason was to respect human life. Dasan said, "Only heaven gives birth and kills of a human being." Therefore, he used the concept of heaven's authority (天權). "Provincial Governor's judgement for punishment is an act of heaven's authority.", he said. To the extent, he valued human life. It was no different from the spirit of human respect. The problem was on the contemporary law.

The phrase 'The state exists for the people.' in the 「Won-mok」 was exemplified as a clue to discuss the politics of Bottom-up. The main argument in the 「Won-mok」 was that the law should be enacted Bottom-up according to the wishes (願望) of the common people. So, the law was originally to protect the benefits of common people. However, as the original form of this legal system had been undermined, 'Raising the monarchy and lowering the people (尊主卑民)' and 'Carving the bottom to make the top be plump (刻下附上)' had been normalized in the name of the law. That was the actual state of the law for the ruling king, the contemporary law, used after ages. What he brought up to fix this problem was his claiming to go back to the Rule by Rites. The general view was tha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s absent from the law that had been institutionalized in a cultural area of chinese character such as Korea and China. The law was only a means of governance and functioned as a regulator of humanity, since it failed to take into account on how to advocate human rights and control the ruler's power. That was why Dasan was skeptical about the law by the roots. He would be forced to call the ancient

11) The original text of the 「Bang-lae chobonin (邦禮草本引)」 [rough draft of Design for Good Governance] which was used in this passage is for reference. "茲所論者法也。法而名之曰禮何也? 先王以禮而爲國, 以禮而道民, 至禮之衰而法之名起焉。..... 揆諸天理而合, 錯諸人情而協者爲之禮."

concept of 'the Rule by Rites' in the state of reserving democratic legislation which was designed with a creative foresight in the 「Won-mok」. That was why he raised a new legal concept for Rites.

Dasan introduced the concept of **heaven's authority** to protect the basic human life. He thought that human life basically depended on heaven's authority. It was a form in which human rights were guaranteed by heaven's authority. Based on this heaven's authority, he raised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contemporary law and tried to find a way to return to a rational and universal law based on heaven's principle and human reality. In the argument he sought the law with public concern and rationality, the law that was not used for the lust of the power, and the basis of the law in heaven. As the philosophy of law which denied the contemporary law of the king had a theoretical basis in 'heaven's authority', Dasan considered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heaven's authority**. And there implicated a **meaning of natural law**.<sup>12)</sup>

#### 4. The Politics of Justice (正)

Confucius answered with one Chinese letter '正(justice)' to the question, 'What is politics?'<sup>13)</sup>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text identified as 'politics is justice' by Confucius mainly contains the meaning of setting up cause rightly. The reason is said that the age Confucius lived was very confusing with various causes. We can say that the politics of Confucianism finds its true meaning in embodying justice, that is, practicing right duty. But 'justice' has been understoo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relevant times or the scholars' perspectives of those times.

People would generally agree that Dasan Jeong Yagyong and Hyegang(惠岡) Choi Hanki can be considered two representatives among 19th Korean Shilhak(實學, Realists of Confucianism) scholars. Interestingly, these two scholars set off their politics from 'justice' as if with one accord, but their interpretations face different directions. I will take a look at the interpretation of Dasan first and then go over that of Hyegang. Three books, Wonmok, Tangnon along with Wonjeong(原政), are proses including political discourse, and especially Wonjeong has original principles of politics as the title itself. Dasan interprets 'politics is justice'(政=正) defined by Confucius as 'to make our people equal'(均吾民). Basically, politics can not be replaced quality. The equality in Wonjeong contains multiple meanings such as equal distribution, balance, fair, and so on. 'Our people should be treated equally. But how dare politicians to take the profits of land exclusively and build wealth, and how dare they to block the benefits of land from people and drop them into poverty? It is called politics to measure and adjust land for people, and then distribute it to them equally.'<sup>14)</sup> In this way, Dasan defined politics as the act of practicing justice(正) by distributing land equally. In other words, he insisted that politics is to make balance by distributing goods, to protect the weak by excluding jungle law like food chain, and to treat people equally in award and punishment or manpower recruitment. Wonjeong ends with sentences saying 'the monarchy(王政) disintegration had people get impoverished, nation get poorer, taxation get difficult, people' mind get inhospitable, and finally the God's providence also disappeared. Therefore most urgent thing is in politics.' This remark defines that the monarch is the politics of late king, that is, the

12) The argument in this unit was partially borrowed from 「The Consciousness Civilization and Shirhak: Reading the Intellectual History of Korea」 pp. 142-148 (Stone Pillow, 2009) written by the author.

13) 季康子問政於孔子，孔子曰：“政者正也。子帥而正，孰敢不正。”(「論語·顏淵」) 'If you are the first to make yourself justly, who would dare not to be just?' (The Analects of Confucius)

14) 均吾民也，何使之竝地之利而富厚，何使之阻地之澤而貧薄。爲之計地與民而均分焉，以正之，謂之政。(「與猶堂全書·原政」(Wonjeong Volume I, Book 10, Chapter 2 to 3))

times of saints. The way to embody Dasan's 'politics of justice' lies only in the practice of equality.

In case of Hyegang, his writings regarding politics signify mainly 25 volumes and 12 books of Injeong(人政, human politics). In the preface of Injeong, he also premises 'politics is justice', quoting from Confucius phrase, and defines politics as 'to prohibit and prevent unfair human behaviors and to have them emulate and follow the authenticity of heaven's way.'<sup>15)</sup> Therefore, Hyegang interpreted justice as to have human 'emulate and follow the authenticity of heaven's way.' He probably named his political writings Injeong for this interpretation. 'Emulate and follow the authenticity of heaven's way' is the reasoning based on his own pneumatics(氣學). The basis of Dasan Studies was on Confucianism while that of Hyeogang Studies was on pneumatics. Hyegang pursued sloughing off Confucianism, following pneumatics. 'Every matters has its certain track to be followed. It is called politics to advance rightly in a difficult and doubtful situation, to return rightly at a wrong corner, and eventually to go right direction without being confused or losing and waving mind. This is 'the politics of justice' which Hyegang thought of.

Hyegang called the politics monarch. Dasan also told that the late king's politics is the politics of justice, but the involved meaning is remarkably different. Hyegang did not think that the late king's politics is the point to go back at the moment. This means he refused primitivism as he himself pursued to slough off Confucianism. His pneumatics originated from an oriental tradition of 'Ki'(氣, spirit or energy from Source), but he had pride in his theory because he got the result by measure and experiment with household member(宇內人). This means he accepted the western science with 'the logic of man from heaven'(天人), an oriental paradigm. Hyegang can put heaven and human's way together in his study composition by thinking 'Cheoninunhwa'(天人運化, the universal spirit combining the spirit of heaven with human).

Hyegang's logic of politics seems not easy to understand. The reason is that the concept of pneumatics has high level of abstraction and you have to carefully examine brilliant and creative systems including plans he designed comprehensively in Injeong. I'd like to add one more thing in the end. I have come up with 'Mangukiltong'(萬國一統) to interact between the national boundaries and captured the concept of 'Wunaenyeongjeong'(宇內寧靖, to pray for the welfare of nature in heaven and earth) by expanding perspective as I can think natural unification and harmony of human and heaven way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logic of pneumatics. The meaning of Mangukiltong and Wunaenyeongjeong seems very good, but I think it a jump in reality, considering its realistic possibility. Yet those ideas are not matters of laughing and ignoring as they are right duties for mankind to follow from now on. We need to advance step by step by consistent practicing 'Wugongisan'(愚公移山, meaning consistent practice is important).

#### 5. Conclusion

I will replace conclusion with emphasizing 3 points extracted from the above discussion.

First, the politics of justice. Both Dasan and Hyegang discussed politics based on the proposition, 'politics is justice', so both of them are a theory far from modern politics. Furthermore, it would be an excessive opinion from realistic viewpoint absorbed in political technology. Therefore, it is very valuable to use it as an ideological source to reflect worldly and fetish-like politics from the basis. Dasan interpreted justice as equality and urged equal distribution, balance, and fair, while Hyegang proposed Mangukiltong and Wunaenyeongjeong as an

15) 政者正也，禁遏人爲之不正，效順天道之正統。(「明南樓叢書·人政序」 Injeong book 2, 1st page)



assignment of mankind based on pneumatic reason. However, the political theory that the two 19th scholars insisted could not dissolve the problems of politics at that time, instead they could get worse, if anything. Therefore, the assignment that the two scholars left behind is current one. It may be desirable to integrate the two theories and consider measures because both of them are different in theoretical position and pursuing direction. To do this assignment it could be necessary to change and reorganize governance completely.

Second is democracy. We naturally regard democracy as representative system by election. This democracy is certainly different from the democratic politics concept that Dasan initiated. Needless to say, current democracy is neither a perfect and clean system nor an ideal system. The way how democracy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s an assignment that we have to think indeed in the light of recent Korean political condition. I have had an idea since I paid attention to Dasan's democratic concept. So to speak, democracy is an universal directing point. Every individual who lives an independent life existing between heaven and earth hopes both equality and freedom are embodied. Dasan also discovered this kind of human and created his own democratic way.

Finally, the culture of demonstration characterizing in Korea. As I previously mentioned, there was a realistic background for Dasan to remind himself of the democratical process of 'Haisang'(下而上, Dasan's principle that the birth and replacement of political leader should be followed the process from below to above). He experienced people's growth on the spot. Although I expressed it as a 'farmer resistance' assuming shape of riot, it was a type of demonstration or popular movements. Dasan came to think the idea of democratic politics because of popular movement, but he could not help taking a retro attitude as it stayed at a low level and could not get the power to drive forward. As we know well, the culture of demonstration has developed and become powers of history, from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to April 19 Revolution, Kwangju Democratic Movement, and recent 'Candlelight Vigil.' Although the 'candlelight vigil' was certainly a revolutionary move, but it is not regarded as a revolution. To establish a true democratic system in Korea, in my opinion, the 'candlelight' should not die down, become the foundation of revolutionary power, and advance in the forward dir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보데윈 알라번 | 레이던대학교 명예교수

- 성균관 대학교 객원교수
- 유럽의 한국학 협회 창립 멤버

다산 정약용의 정신과 현 시대의 연관성

250년 전에 학자이자 관리로 생을 살다간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가 살았던 세상은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실제로 다산이 설계했던 이상적인 사회의 상세한 개요가 21 세기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이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 외에도, 필자는 우리가 "다산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의 제안의 근거가 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그가 살았던 시대에 직면했던 문제들을 다뤘던 그의 진실된 태도는 여전히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감이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다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그가 보여준 재능이다. 다산의 사고의 기초는 확고히 유교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으며 가톨릭과 불교에 관심을 보였다. 최근 인쇄된 판에서 자그마치 37 권에 달하는 그의 저서들은 그가 철학자이자 문헌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행정관료, 정치학자, 범죄학자, 사회 평론가, 시인, 교육자, 엔지니어, 의사, 약사, 역사적 지리학자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조예가 깊었던 그에 대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면에서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더욱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다.

다산이 주장했던 사회 개혁은 유교를 기본적 틀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덧붙여 새로운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호소력을 지닌다. 그는 특정 인물이 정치적 지위를 차지할 운명이 단순히 출생에 의해 결정되는 개념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일 이 아이디어를 군주 제로까지 확장시키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오직 자기 계발을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서 관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산은 또한 관료들과 왕은, 자신들의 보살핌을 받는 백성들을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항상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전통적인 유교적 위계질서에서 자신보다 높이 위치한 사람들에게 충성심을 요구했던 것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또한 당시 유교학자들 사이에서 법이 주로 하위 계층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반해,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생 전반에 걸쳐, 왕에 의해 유배지로 보내 졌던, 망명생활을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미치지 않고 지냈던지 간에 이에 크게 개의치 않고 사회를 개선할 방법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다. 그의 이론적 중심이 되었던 전제는 정부가 사회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덕성이 높은 현신적인 관료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1 세기에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와 신자유주의 및 기술의 발전으로 가속화된 사회 문제들이 인간의 행복, 심지어는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필자는 독단적인 자유 방임주의가 결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청렴하

고 현신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관료들로 채워지지 않는 정부기관은 이러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으며, 동일한 원칙에 대해 현신적인 시민들과 시민운동의 지지와 감시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 정부와 개인들 간의 연계에 초점을 맞췄던 다산의 방식은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영감을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산의 끊임없는 노력, 비 판적 태도, 지적 호기심, 다양한 관점에 열려있던 개방성은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길을 향한 개인적 견해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Boudewijn C.A. Walraven | Professor Emeritus, Leiden University

- Former Visiting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ersity
- Founding members of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AKSE)

##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the Spirit of Dasan Jeong Yagyong

In what way might the scholar official Dasan Jeong Yagyong (1762-1836), who was born more than 250 years ago, help us solve the pressing problem of sustainable development we are facing today? Is the world in which he lived not too remote from ours? In some ways, we may indeed conclude that the detailed outline of an ideal society formulated by Dasan is not congruent with twenty-first century conditions. But apart from the fact that this might induce us to rethink our own values, I firmly believe that what we may call the "spirit of Dasan," the general principles in which his proposals were grounded, and the sincere attitude with which he confronted the problems of his time, still can provide an inspiration or a guideline for our thinking and actions.

One of Dasan's most striking characteristics is his amazing versatility. The foundation of Dasan's thinking was firmly grounded in Confucianism, but he was open to other ways of thinking, showing interest in both Catholicism and Buddhism. His writings, which fill thirty- seven substantial volumes in a recent edition, show that apart from a philosopher and philologist he was also a government administrator, political theorist, criminologist, social critic, poet, educator, engineer, physician, pharmacist, and historical geographer. With this great diversity in interests it is all the more striking that in nearly everything he did he consistently had just one purpose: the creation of a more fair and equitable society.

The basis of Dasan's thinking about the social reform he advocated was Confucianism, but he added crucial emphases, which generally appeal to us today. Thus, he was an enemy of the idea that certain persons would be destined to occupy political office by mere birth (be it that he did not extend this idea to the monarchy). In his eyes, everyone was equal at birth, and only self-cultivation might raise some persons above others to become officials. Dasan also emphasized the love officials and the king should bestow on those entrusted to their care, of whatever social status. He paid by contrast little attention to the loyalty that Confucianism traditionally demanded of the people toward those put above them in the political hierarchy. He also maintained that everyone, the king included, should respect the law, whereas among Confucians it was not uncommon to believe that the law was primarily intended as a tool to control the lower orders. Throughout his life, whether he was an administrator sent by the king to a local community or an ostracized exile without any political influence, he kept

thinking about ways to improve society. All along, his central assumptions were that the reforms would need to be implemented through the way government organized society and that they should be executed by dedicated officials of high moral charact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global warming, and the social problems aggravated by neoliberalism and technical developments seriously threaten human wellbeing, perhaps even human survival, and pose a real danger to the maintenance of democracy. I believe that dogmatic laissez-faire can never be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and that governments have an important role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ment agencies will not be able to do this properly unless they are staffed by officials of high integrity and great devotion to their work, while they should be supported, and monitored, by citizens and citizens' movements equally dedicated to the same principles. Here Dasan's focus on the nexus between government and the individual may inspire our efforts to overcome the challenges we are facing. Apart from that, Dasan's constant effort, critical attitude, intellectual curiosity and openness to different ways of thought, all utilized in the service of the common good, fully merit to serve as an example, whatever one's personal views are vis-à-vis the path to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 다산 정약용의 정신과 현 시대의 연관성

### 서문

1653년, 일본 나가사키를 향해 항해 중이던 네덜란드 상선이 강풍을 만나 제주 연안에서 난파하였다. 이 배의 생존자들은 13년간 한국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덕분에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에 관한 정보를 꽤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었다. 생존자 중 한 사람이었던 헨드릭 하멜(Hendrik Hamel)은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에 관한 짧은 소개문을 썼다. 서방 최초로 알려진 이 한국 관련 문헌에서 하멜은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도 표현했다. 하멜에 따르면, 한국인은 교육에 큰 가치를 두고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녀 교육에 열중했다. 또한 교육 방식이 온화하고 자녀들에게 과거 위인들의 예를 알려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법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하멜은 그런 부분에 큰 감동을 받았다. 현 시대에서는 과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역사적 인물들을 여과 없이 찬양하는 것에 조금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역사적 인물을 칭찬할 때는 칭찬하더라도 그들의 결점에 대해서도 눈을 열어준다. 게다가 ‘현대화’ 달성에 고무된 채, 우리 세대가 과거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난 시대의 위인들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산 정약용(1762-1836)을 본받을 만한 인물로 바라보는 것이 왜 타당한지에 관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한다.

여러 면에서 다산은 현대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물이었다. 특히 한국은 다산이 죽은 지 182년 이후부터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국토의 대부분이 오로지 흙 길로 연결되어 있었고 눈에 띄는 고층 아파트도 없던 1973년에 처음 한국을 찾았던 내 생각에도 1970년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 같다. 하지만 다산의 세계는 최근의 현대화와 경제 발전으로 인한 급진적인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분, 군주의 실종, 외세 침략, 비참한 식민 지배, 국가의 분단으로 이어진 유혈 전쟁으로 인해 우리 세계와는 확연히 더 멀어지고 분리되어 있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신구(新舊) 세대가 정치적인 견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한 결과물 중의 하나라고 본다.

다산은, 한국의 운명이 다산이 살던 시기에는 전혀 몰랐던 미국 같은 나라에 일부 의존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오늘날의 세계화를 목격하였다면 매우 놀라거나 당황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그가 유교 철학에서 통치의 근본으로 삼는 백성(사회적인 계층과는 상관없이)의 이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한 국가의 정부를 결정하기 위해 남녀 모두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을 지나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19세기를 살던 많은 유럽인들도 그랬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장을 규제 메커니즘으로 보는 견해나 노동조합의 대항력이 고용주와 정부의 지배력을 완화한다는 개념은 그에게는 무척 낯설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다산의 가치관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산이 정리한 이상적인 사회의 개념이 21세기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가치관이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제안이 근거하는 일반적인 원칙인 ‘다산 정신’, 다시 말해 그가 당대의 문제에 대응할 때 가졌던 진지한 태도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영감이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는다. 그러나 나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기 전에 다산이 이룩한 다양하고 많은 업적을 여러분에게 되짚어 주고 싶다. 그의 업적은 현대 인쇄 본으로 37권의 책으로 엮여졌으며, 이 책들은 그가 철학자이자 언어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가, 정치 이론가, 범죄학자, 사회비평가, 시인, 교육자, 기술자, 의사, 약사, 역사지질학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나는 일찍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산이 이룬 무수한 업적을 살펴 보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를 비교한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행동이 조금 후회되는데, 그것은 이 두 거장을 공평하지 못한 잣대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재다능하고 우월한 지성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다 특별하므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 다산의 사상과 업적

다산은 1762년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지적인 동요가 끊어 넘치고 오랜 전통과 충돌하는 새로운 이념이 형성될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물론 다산 자신도 그런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산은 어린 시절부터 유교 경전을 배웠고, 양반 계급의 존재이유를

수 있는 사대부의 등용문인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다(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많은 양반이 과거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다산은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를 통과하여 그에 맞는 고위 관직에 올랐다. 그리고 지식인이었던 정조(1752-1800)의 총애를 받으며 그 곁에서 일을 하였다. 이 시기에 다산은 다재 다능한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한편으로는 유학을 강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기술 공부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신적인 학습과 상반되는 것으로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그가 기술에 관심을 가진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예를 들어, 다산은 왕이 신하와 시종으로 이루어진 길고 긴 행렬을 이끌고 한강을 건널 때 사용할 배다리(浮橋)를 제작하는 일을 도왔다. 또한 수원 화성 건축에도 참여하였는데,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흘러 들어온 서양 수학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인양 장치인 거중기를 발명하기도 하였다.

다산은 절대 유교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노년에는 유교의 6개 경전에 대한 해설서를 펴냈지만 그의 관심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천주교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유명하거나 악명이 높는데, 16세기 후반 이후 중국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쓴 중국 책을 통해 천주교를 접하게 되었다(18세기 후반에 베이징을 찾은 한국인들이 가져온 책). 다산은 순교를 한 형과는 달리 조정에서 천주학이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천주교도를 처형할 때 자신은 진짜 교인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다산은 모든 면에서 천주교도와 생각이 달랐다. 그는 어느 한 종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착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알고 보면, 유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불교에도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불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였고 특정 형태의 (더 인기가 많은) 불교를 비판하기도 했다. 천주교에서는 개인의 ‘초월적인 자아(Supreme Being)’라는 개념을 빌려와 유교 사상에 접목하기도 하였지만 한 인간으로서 노년에는 불교로부터 큰 위안을 얻었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그의 태도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현대에서 필요한 것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어느 한 종교가 우월하다는 독단적인 주장은 사회적인 조화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산은 의미가 없는 수많은 전통 사상에 반기를 드는 이들을 일컫는 ‘실학파’의 일원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그는 유교의 중심 개념인 국가 통치와 사회 조직 방식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철저한 정통 유학자였다. 그의 후견인이자 보호자였던 정조가 1800년에 사망한 이후로 그는 많이 알려진 대로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조정의 총애를 잃게 되었다. 그 후로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 그곳에서 18년을 살았고(1801-1818),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하는 책을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 책의 첫 부분이 유교의 6개 경전에 대한 많은 해석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하지만 유교의 사고방식은 좋은 사회는 크게는 개인에서 사회가 동심원을 이루며 점차 쌓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먼저, 개인은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소양을 쌓는 데 열중해야 한다. 자기 수양을 하고 주변 관계에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행하는 사람은 과거시험에 더 잘 대비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공동의 선을 위해 헌신하는 바람직한 관리가 된다는 것이다. 유교에 대한 다산의 해석은 그 자체로 예리한 정신과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내 판단으로 다산은 그 책들을 완성한 이후에도 우리의 현 상황과 더 관련이 있는 몇 권의 책을 더 썼다.

다산은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을 완성한 뒤에 중앙과 지방의 행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중앙의 문제는 <경세유표>(국가 통치에 관해 왕에게 남기는 기록)에서, 지방 관리의 문제는 <목민심서>(최병현이 제목 그대로 영역한 <국민을 다스리는 도리: 모든 행정가를 위한 안내서>)에서 다루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하는 수령들은 범죄 수사관과 판사의 역할도 해야 했기 때문에 다산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흠흠신서>(범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참고서)에 적었는데, 이 책은 지방 수령으로서 자신의 경험에 일부 근거를 두고 있다. 오지에서의 긴 유배 생활 역시 그곳 백성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지방 행정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법을 대하는 다산의 태도를 보면, 법을 하위 계급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많은 유학자들이 보여주는 태도) 않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특권을 지닌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법이 확정되면 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경세유표>와 특히 <목민심서>는 각각 중앙과 지방 행정부의 올바른 원칙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산의 관점으로 잘못된 문제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들은 오늘날 사회역사학자와 역사인류학자들에게는 소중한 자료로 쓰인다. 다산은 양반 계급의 권력 남용과 범죄를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무관 시험이 한양에서 열릴 때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돈과 권력을 가진 양반 집안이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시험 통과에 유리한 건장한 체격의 지방 지원자들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다산은, 응석받이로 자란 도시 소년들이 정당하게 경쟁하면 체격이 좋은 시골 소년들을 이길 수 없었으므로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식들의 합격 가능성을 높인다고 고발했다. <목민심서> 역시 고을 수령들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가르친다. 흥미로운 것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정좌'를 연습하라는 내용이다. 정좌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 일과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한 유교의 명상법이다. 나는 실제로 이 명상법을 훈련한다는 한국 외교관을 만난 적이 있다. <목민심서>가 한국 공무원의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이니,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것 같다.

다산은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다시는 관직에 불려나가지 못했지만 통치에 관한 저술 활동을 계속했다. 사실 그는 <경세유표>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다산은 유배 여건이 허락할 때, 그리고 유배가 끝난 이후로도 많은 시간을 교육에 전념했다. 관직에 나가지 않았던 오랜 세월 동안 의학과 약리학에서 평판을 쌓기도 했다.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에 병에 걸린 왕을 돌보기 위해 궁궐로 불려간 적도 있었다. 다산은 다른 모든 저술 활동과 더불어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처럼 항상 시를 썼는데, 그의 작품을 엮은 시집이 세 권에 이른다. 그의 시는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기 때문에 다산의 자서전에 담긴 내용을 보완해주면서 전기 문학으로서도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다산 정신의 연관성**

다산이 공명정대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평생을 보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유교에서 출발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의미 있는 수정을 가하였다. 유교 윤리에서는 사람들이 부모와 통치자에게 다해야 하는 의무인 효심과 충성심에 무게를 두는 반면, 다산은 부모와 특히 통치자의 의무를 훨씬 더 강조했다. 유교의 덕목인 '인(仁)'을 실천하려면, 보살펴야 할 책임을 가진 이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왕조차도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그의 주변에서는 권력자가 무자비하게 약자를 억압하는 문제적인 사회의 예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그런 배경 속에서 다산으로 하여금 계속 전진하도록 이끈 것은 그런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적어도 그것을 향해 큰 진전을 이룰 수는 있겠다는 확신이었음이 틀림없다. 더욱이, 그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물론,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공정한 관리가 되도록 부지런히 자기 수양을 계속하는 개인이 필요했다.

오늘날 우리는 나라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시민의 복지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적을수록 더 나은 정부이며, 정부는 시장의 작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권력자들도 많다. 영국노동당과 네덜란드 사회민주당의 예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사상은 사회민주주의 범주에서조차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시장을 일컫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존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문제는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이다. 환경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며, 어떤 과학자는 인류가 이 세기의 끝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이다. 두 번째 문제는 프레카리아트(preariat)의 출현이다. 프레카리아트는 일정한 계약이나 수입이 없는, 결국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새로운 저임금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이다. 신-자유주의가 유연성을 요구하고 자동화가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저학력 인구(그들만이라고 국한할 수는 없지만)가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거대하고 영구적인 최하층계급을 가진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권이 없고 (정당하게) 분노하는 계급은 정치적인 위험 요소이기도 하며, 이는 특정 지역에서는 이미 증명되기 시작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우리 생활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간혹 정부를 자기들의 의지대로 끌고 가기도 한다.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다국적 에너지 기업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미국의 한 유명한 석유

회사가 그런 사실을 잘 증명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수십 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줄기차게 부인했다. 우리에게는 환경 문제 대응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지를 가진 정부가 필요하다. 그런 정부라면 다국적 기업들의 힘을 조율할 수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이 정부에 대항하는 법적 행동을 취할 권리를 박탈하는 초국가적인 협약 확산을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다국적 기업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프레카리아트 문제와 국민 전체의 복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훨씬 더 명백해지고 있다.

다산의 예는 국가의 역할과 그에 대한 개인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고무적이다. 그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했다. 곳곳에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찾아냈지만 지나친 공권력으로 거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규제하는 주장을 옹호하지도 않았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사람이 하도록 맡기지만, 훗날 이후에 곡물 부족 문제가 생기면(19세기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상황) 정부가 미리 저장해둔 곡물을 배급함으로써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그의 관점은 20세기 유럽의 복지 국가와 닮아 있으며, 그의 예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신-자유주의 시장 이념을 선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하나 더 고무적인 것은 공정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다산의 관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산은 궁극적으로 공정한 사회는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개인은 타인을 통치하기에 적절한 자질을 스스로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통치할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당대의 관습과는 배치되었다. 양반은 본래 문관과 무관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하지만, 양반은 적어도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과거 준비를 하는 척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귀족과도 같은 신분이었다. 많은 양반들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양반 출신이 아닌 사람이 과거로 성공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관직에 오르기란 더욱더 힘들었다. 다산은 어느 계급에 속한 누구라도 자기 수양을 할 수 있으며, 이런 훈련이 잘 된 자는 얼마든지 관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다산이 공무원에 대한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했다는 사실과 같은 맥락이다. 당대에는 불가능했지만, 지원자의 출신을 고려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통해 신분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기준은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영달을 지양하고 공익에 헌신하는 윤리적인 기준이었다. 다산이 살던 시대에는 공익(gong공)을 강조하고 사익(sa私)을 낮게 평가하는 유학 교육이 원칙적으로 그런 기준과 일치했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요즘의 현실에서 그런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 순수한 유교의 양식은 그 영향력과 힘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반하는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은 일반 대중과 특히 정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듯이, 자기분위의 이기주의에 대한 아인 랜드(Ayn Rand, <이기주의의 미덕>의 저자)의 주장이 인기를 얻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산의 예는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에 관해 생각해볼 것을 촉구한다.

요약하면, 다산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 먼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과 지방 다양한 수준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믿는 헌신적인 개인이 필요하다. 다산이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런 개인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유학 교육과 자기 수양이 그런 개인들을 배출할 수도 있었다. 실현되기는 어려울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고무적인 생각 혹은 이상을 품는, 근본적으로 연결된 정치 조직체에 관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한국에서조차 재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지가 적절한 사회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명히 알도록 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더 나은 시민과 더 나은 정치인 모두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산의 끊임없는 노력, 비판적인 태도, 지적인 호기심, 다양한 사고의 방식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는 모두 공동의 선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자극을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관점이 무엇이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길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the Spirit of Dasan Jeong Yagyong

### Introduction

In 1653, a Dutch ship on the way to Nagasaki in Japan ran into a severe gale and was shipwrecked off the coast of Jeju Island. The survivors lived in Korea for thirteen years before they made it back to home, which enabled them to get fluent in the Korean language and obtain a quite thorough knowledge of the country. On the basis of this, one of them, Hendrik Hamel, wrote a short description of the country, the first made available to the West, in which he devoted also some attention to Korea's educational system. Hamel remarked that the Koreans put a high value on education, strove to make children study as much as their means allowed, and added approvingly that their method of teaching was gentle and included holding up to the children the example of the great men of the past as one of its main components. Hamel greatly admired this. In our current age, we tend to take a critical look at the past and may find it somewhat difficult to praise historical figures without reservations. Even if we see certain things to admire, we also have an open eye for the flaws of historical figures. Apart from that, impressed by the achievements of "modernity" we often believe that our own age is so different from the past that it would make little sense to look at the great men (or women) of bygone ages for examples to follow. The question then we should ask ourselves is why it would be justified to regard Dasan Jeong Yagyong (1762-1836) as such an exemplary figure.

In various ways Dasan was indeed someone who was far removed from our present world, not least because Korea has developed at such break-neck speed in the 182 years since his death in 1836. Even for me, who came first to Korea in 1973, when major parts of the country were only connected by dirt roads and there were virtually no high-rise apartments, the 1970s seems like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But Dasan's world was infinitely more remote, separated from us by internal upheavals, the disappearance of the monarchy, foreign invasions, painful colonial domination, and a bloody war that led to the division of the country, not to mention the radical changes due to more recent modern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great contrast in political attitudes of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witnessed in Korean society at the moment is but one of the consequences of the way the world has changed at such a fast pace.

It is clear that Dasan would be surprised, and perhaps even baffled, by the current globalization, which implies that the fate of Korea now partly depends o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of which he can hardly have had any knowledge. Although he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interests of the people, irrespective of social class, on whom in Confucian philosophy sovereignty ultimately rested, the extending of universal suffrage to both men and women to decide the government of a country would have seemed excessive to him (as it would to many nineteenth-century Europeans). The idea of the market as a regulatory mechanism equally was alien to his thinking, as would be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power of labor unions to mitigate the dominance of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All of this is sufficient reason to wonder whether Dasan's values still can be meaningful for us today. In some ways, we may indeed conclude that the concept of an ideal society formulated by Dasan is not congruent with twenty-first century conditions, but apart from the fact that this might induce us to rethink our own values, I firmly believe that what we may call the "spirit of Dasan," the general principles in which his proposals were

grounded, the sincere attitude with which he confronted the problems of his time, still can provide an inspiration or a guideline for our thinking about solutions to some of the most pressing problems we are currently facing. Before discussing this in detail, however, I would like to remind you of some of the many and varied achievements of Dasan, which in a modern edition have been gathered in thirty-seven volumes of his writings and demonstrate that he was a philosopher and philologist, but also a government administrator, political theorist, criminologist, social critic, poet, educator, engineer, physician, pharmacist, and historical geographer. Earlier Dasan's multitudinous achievements in different fields have led me to compare him to Leonardo da Vinci, a comparison I now regret a little as it does justice to neither of these two giants. They have great versatility and superior intelligence in common, but are both *sui generis*, literally incomparable.

### Dasan's Thinking and Achievements

Born into the yangban elite in 1762, Dasan happened to live in an age when there was considerable intellectual ferment and new ideas that broke with old traditions could be formulated. He himself would make major contributions to that. From an early age Dasan had the education in the Confucian classics that was to prepare him for the government examinations qualifying him for a career as a scholar-official, the *raison d'être* of the yangban class (at least in theory—many yangban never passed the examinations successfully). He excelled in this and duly became a high official. As such he worked closely with King Jeongjo (1752-1800), an intellectual in his own right, who showed special favor to him. In this period, Dasan proved his versatility, by on the one hand providing lectures on Confucian classics and on the other hand showing an interest in engineering. The latter was remarkable because most Confucian scholars tended to look down upon technical learning as opposed to the spiritual learning provided by the classics. Dasan assisted, for instance, in building a large pontoon bridge when the king with a great train of attendants needed to cross the Han River. He also was involved in building the fortifications of Suweon, for which he also devised lifting gear, using mathematical theory from the West that through China had filtered down to Korea.

Dasan never repudiated Confucianism and in his later years wrote commentaries on the Six Classics of Confucianism, but his interest was not limited to it. He is famous, or notorious, for his genuine interest in Catholicism, which Korean visitors to Beijing had come to know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through books in Chinese written by Jesuit missionaries who had been active in China since the late sixteenth century. Unlike a brother of his, who was martyred, Dasan declared he was not a real Catholic when Christians were persecuted by the Korean government, because the teachings were considered to undermine the state. Some think that this was but a way to save his life, but it seems more likely that Dasan genuinely did not agree with Catholicism in all respects. He seems not to have favored an unconditional adherence to any one faith, if one considers the fact that during his entire life, from childhood to old age, he also felt a great affinity with Buddhism. In this case, too, he maintained a critical distance, criticizing certain (more popular) forms of Buddhism. From Christianity, he seems to have adopted the concept of a personal Supreme Being, integrating it into Confucian ideas, while in his personal life Buddhism offered him great comfort in his later years. His attitude to religion, therefore, very well fits what is needed in our own contemporary multi-religious world, where dogmatic insistence on the dominance of one single faith clashes with social harmony.

Although Dasan is considered to be a member of the loosely constituted "Pragmatic School" (Shirhak), which repudiated many hallowed traditional ideas, he was a thoroughly traditional Confucian in the importance he attached to the ways the country should be governed and society organized, the central concerns of Confucianism. When after the death of his patron and protector, King Jeongjo, in 1800 he fell out of favor at court for his associations with known Catholics, he was sent into exile to the southernmost tip of the peninsula, to Gangjin, where he stayed for eighteen years (from 1801 to 1818) and embarked on an ambitious project to outline the ways in which a just and equitable society could be achieved. From our point of view, it may seem unlikely that the first part of this consisted of substantial commentaries to the Six Classics of Confucianism. The Confucian way of thinking, however, was that the good society should be built up gradually, in concentric circles from the individual to society at large. First the individual should engage in self cultivation, to be able to act properly in the circle of his family, then those who have cultivated themselves and been able to set everything right in their immediate surroundings will be well-prepared to study further for the government examinations and become proper government officials, dedicated to the common good, not swayed by private desires. Dasan's commentaries to the classics alone, which show a sharp mind and considerable originality, would have been sufficient to preserve his name for posterity, but after completing them he wrote several books that are even more original and, I guess, more relevant to our current situation.

After finishing the commentaries, Dasan wrote in great detail about the problems involved with government, both at the central and the local level, treating the first in Gyeongse yupyo (Memorial Left to the King about Governing the State) and the latter in Mongminshimseo (integrally translated into English by Choi Byong-hyon as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Manual for All Administrators). Because the magistrates whom the central government sent to the provinces also had to act as investigators of crimes and as judges, he also wrote about the challenges involved in this in Heumheum shinseo (New Treatise on the Handling of Criminal Cases), partly based on his own experience as a local administrator. His long exile in the remote countryside also allowed him closely to observe the life of ordinary people there and understand how local administration affected them. In Dasan's attitude toward the law it is remarkable that he did not regard it as a tool to control the lower classes (as it had been seen by many Confucians), but thought that everyone should obey it, even the king who had the prerogative of issuing new laws. Once a new law had been established, even the king should follow it.

Gyeongse yupyo and to an even greater degree Mongminshimseo do not only outline the right principles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respectively, but also contain very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many things that according to Dasan were currently wrong. For that reason, these books nowadays are a valuable resource for social historians and historical anthropologists. Dasan was not afraid to point out the abuses and crimes of his own class, the yangban. He describes for instance what happened if military examinations were held in the capital. Wealthy and powerful yangban families would hire hoodlums to rough up candidates from the countryside, who because of their strong physique had a good chance of passing the examinations, in this way to further the chances of their own sons, who as spoiled city boys in an honest contest would not stand a chance against the burly country lads. On the other hand, Mongminshimseo also instructs magistrates in detail how to behave properly. Interesting is that he tells them in the morning, right after waking up, to practice "quiet sitting", a kind of Confucian form of meditation to calm one's mind and be better prepared for the daily tasks. In fact, I have

met a Korean diplomat who told me that he followed this prescription, which should not surprise us too much, as Mongminshimseo has been used for the training of Korean public officials.

Dasan continued to work on the writings about governance after he had been released from exile until the end of his life, although he never was called to serve as an official again. In fact, he was unable to complete Gyeongse yupyo entirely. When the conditions of his exile allowed it, and afterwards, he also devoted considerable time to teaching. In the many years that was without office he moreover developed a reputation as a physician and pharmacologist, because after he had been released from exile he was called to court to tend to the ailing king. Apart from all his other writings, like many educated Koreans of his age, he constantly wrote poetry, which now takes up three volumes of his collected works. His poems often deal with his daily experiences and therefore are of considerable biographical interest, complementing an autobiography Dasan wrote.

### The Relevance of Dasan's Spir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Our Time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Dasan devoted his entire life to thinking about the problem of how society should be organized to make it just and fair. In this he set out from Confucian principles, but he tweaked these in significant ways. Whereas usually in Confucian ethics there is a stress on the duties people have towards parents and rulers, respectively filial piety and loyalty, Dasan put greater emphasis on the duty of the parents and, particularly the rulers, to love those entrusted to their care, practicing the Confucian virtue of benevolence (in 仁). As mentioned earlier, he also came to see law as something by which even the king had to abide. What must have kept him going during all those years, while around him he saw many instances of a flawed society where the powerful mercilessly abused the weak, must have been the conviction that it was possible to construct such a society, or at least make substantial progress toward it. It is clear, moreover, that in his view for attaining that goal the role of government was crucial, even if for good government individuals were needed who had achieved the level of self-cultivation that would allow them to be honest and fair officials.

Presently we certainly have governments that to a certain extent -depending on the country-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of their citizens. But there are also quite powerful forces that argue that less government is better government, and that governments should not interfere in the workings of the market. Neo-liberal thinking has had a surprising influence even in social-democratic circles, as shown by the British Labour Party and the Dutch social-democrats. Now it appears clear to me that a reliance on Adam Smith's "invisible hand" of the market<sup>1)</sup> will do little to solve two major challenges we are facing. The first consist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climate change, which threaten the lives and well-being of many and have some scientists predict that as mankind we will not make it beyond the end of this century. The second is the emergence of a precariat, a new low-paid proletariat without regular contracts and regular income, and consequently without the means to build up what one might consider a decent life. Neo-liberalism's call for flexibility and the fast increase in robotization, robs particularly the lower educated, but not only them, of job opportunities, threatening to create a society with a huge, permanent underclass. By itself this is undesirable,

1) It should be added that Smith himself did not believe that this "invisible hand" could operate properly without interventions guided by ethics.

but the creation of such an underprivileged, (rightfully) resentful class is also a political danger, which already starts to manifest itself in certain places.

Multinational companies are a powerful force deciding our lives, as in some cases they are able to make governments do their bidding. Th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roblems lies to a considerable extent with multinational energy companies. That we should not count on them to act on this responsibility was demonstrated by one well-known US oil company, which decades ago internally was already well-aware of global warming, but to the outer world persisted in denying it. We need governments, and governments that are willing to take strong action to counter the problems. Those governments should also counterbalance the power of the multinationals and try to avoid accepting regulations of globalizing transnational agreements that cede to the multinationals the right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governments that judge it necessary for the national benefit to limit the rights of the multinationals. The role of government is even more obvious if it comes to dealing with the problem of the precariat and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general.

The example of Dasan is inspiring when it comes to our thinking about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individual's relation to that. He very much believed in the role of the government, without being starry-eyed about it. He was aware of all kinds of practical problems, and also did not advocate a state that in Soviet style would plan and regulate well-nigh everything. What the people could do should be left to the people to do, but if problems arose, for instance a shortage of grain after a bad harvest (a situation that regularly occurred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government should stabilize the situation by dispensing grain that had been stored for this eventuality. In this respect his view of the ideal state resembles the twentieth-century European welfare state and his example may inspire not to abandon that for neoliberal market ideology. What is, however, an additional source of inspiration is Dasan's view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individual in the creation of a fair society.

As mentioned, Dasan believed that ultimately a fair society depended on individuals, who therefore needed to cultivate themselves to qualify as fit to govern others. Not everyone would be able to do this, but it is crucial that he did not recognize a right to govern as given by mere birth. This ran against the custom of his times. Yangban originally was a term denoting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but the yangban had in fact become a kind of aristocracy, although they still had at least to pretend to study for the examinations to keep up appearances. Many yangban never managed to pass the examinations. It was very difficult for anyone of non-yangban origin to be successful in the government examinations -although some instances can be found- and even more difficult to obtain an official position thereafter. Dasan thought that anyone, from any social class, was capable of self-cultivation and thus if sufficiently advanced in this respect could qualify to occupy government positions. This is in agreement with the fact that Dasan set a very high standard for public officials, which should be ensured by fair examinations that did not consider the pedigree of the candidates (not a reality in his age). This standard was above all a moral standard, a dedication to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prevent striving for personal gain. In Dasan's day, Confucian education, with its emphasis on the public interest (gong 公) and low evaluation of the private (sa 私) in principle offered a pathway to this. Now it may be objected that this is not a path that is of any practical relevance today. Certainly in its purely Confucian form it has lost much of its power and influence. But I would maintain that respect for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against the pursuit of self-interest is still highly desirable,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decidedly among those in positions of governmental responsibility. As

many are starting to realize, the popularity in certain circles of Ayn Rand's insistence on egoistical egoism should be countered. The example of Dasan urges us to think about ways to achieve this.

In sum, Dasan basically has two messages for us. The first is that in the search for a just and equitable society the government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The second is that it takes dedicated individuals, who believe in the mission of government at different levels, central and local, to achieve a fair society. As in Dasan's time, such individuals do not spontaneously emerge in any number without effort. In Dasan's day Confucian education and self-cultivation might create such persons, offering a view of an organically connected polity in which everyone had a stake, an ideal that could inspire, even if it was difficult to realize. Today this cannot be replicated, not even in Korea, but we should look for ways that from a young age make clear to children how our well-being depends on proper social arrangements and make them aware that everyone has a responsibility in this respect, in the hope that this will result in both better citizens and better politicians. Apart from that, Dasan's constant effort, critical attitude, intellectual curiosity and openness to different ways of thought, all utilized in the service of the common good, fully merit to serve as an inspiration in our daily lives, whatever one's personal views may be vis-à-vis the path to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양수길 |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대표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석좌교수
- 前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한 발전, 정약용에게 묻다

2015년 9월 25일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국 공통의 행동의제인 17개의 SDGs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3년째에 접어들었다. 그간 유럽, 일본 및 개발도상권에서 SDGs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실행에 들어갔고 국제 시민사회에서 SDGs 이행에 관한 협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걸치레 이상의 대응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급한 여러 현안문제로 SDGs의 이행을 출범시키는 것이 지체되어왔다. 금년 가을에 들어서서는 필요한 입법조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SDGs를 이행해 나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SDGs는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성 요소를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다섯 가지로 보고이들다섯가지의요소, 즉“5P”를 모두구축하고자이들모두에걸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합의하고 2030년까지 상호 협력을 통해 이행해나가자는 약속이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보호만을 생각하는 의제가 아니다. SDGs는 UN의 선언문이 밝히듯 “사람 중심적이며 지구를 생각하는” (people-centered, planet-sensitive) 행동의제다. 5P가 말해주듯 각국의 국가경영의 총체적인 재편을 요구하는 의제다.

SDGs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도출된 것이다. 절대빈곤, 육지와 바다의 생태계의 파괴, 가속되는 기후변화, 글로벌화와 기술발전으로 인한 낙오자의 양산, 불평등의 확산, 사회적 정치적 불안의 보편화, 국가와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 역량의 저하, 미국의 양극화 국제적 지도력 상실, 그리고 이들로 인한 평화에 대한 위협의 증대 등 인류사회가 무대책(BAU)의 길을 간다면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사회 불안, 경제의 장기 침체, 금융 불안, 정치 불안과 기후변화의 재앙, 세계 정치질서의 교란, 그리고 군사적 갈등이 서로를 부추기며 동시에 발생하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을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류 지속가능발전의 위기가 목전에 있다. 이제 우리는 “now or never”의 갈림길에 서 있다.

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영방식을 변환해야한다. ①단기주의로 인한 근시안적 국가경영 구조를 극복해야한다. ② 글로벌 문제를 남의 일로 간주하는 경향도 극복해야한다. 글로벌 문제가 곧 우리 자신의 책임이고 문제임을 인식하기 위한 의식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③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 경제, 사회, 환경에 걸치는 제반 문제들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와 제반 대책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이해해야한다. ④ 시민들과 기업들이 SDGs를 이해하도록 지속가능발전이 범국민적 운동이 되어야한다. 학생들을 포함하는 시민 대상 지속가능발전 의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정부 주도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지방정부와 기업, 각종 행위자 그룹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시민이 행복한 “좋은 사회”(good society)를 국정의 최상위 목표로 추구해야한다. SDGs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문제와 기술적, 사업적 해법의 연구 및 이러한 해법을 규모화해 이행하기위한 제도혁신 및 금융대책을



전문가들과 기업과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SDGs의 이행추진체제를 정립하는 일을 정부가 서두르고 국민이 “인간중심적이고 지구를 생각하는” 개혁의제인 SDGs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국가경영의 재편방안을 포함해 그 이행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하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선도하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의 목민(牧民)정신이고 또 촛불혁명의 소명인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Young Soo Gil | Chai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Korea

- Leading Professor, D. Technology & Societ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Korea
- Former Chairman,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2010~2011), ROK

##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This year marks the third year of the official launch seventee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each nation's common agenda for action – that were adopted at the UN Summit on 25 September 2015. In the meantime, European nations, Japan and other developing nations have begun to implement the process of fulfilling the SDGs after completing preparation, and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y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the consultation and discussion for the SDGs. However, the previous Park administration made no response other than a mere lip service. The Moon administration postponed the launch of implementing SDGs due to other urgent pending issues. It is expected that the needed legislative measures will be taken this coming fall.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how effectively South Korea fulfills the SDGs.

The SDGs are a commitment made under the belief that 5Ps -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and Partnership - are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and nations have agree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overing all five Ps and to fulfill them through mutual cooperation by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is not an agenda that solely pursues environmental protection. As clarified in the UN declaration, the SDGs are "people-centered, planet-sensitive" agenda for action. As shown in the 5Ps, it is an agenda that calls for a holistic restructuring of each nation's governance.

The SDGs were derived from a desperate awareness of our problems, Absolute poverty, destruction of ecosystems on land and below water, accelerating climate change, people falling behind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spread of inequality, prevalence of social and political instabilities, loss of problem-solving capacitie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bipolarization of the US and loss of its international leadership, and the subsequent rise of threats to peace – if the human society continues on with business as usual, the possibility of a perfect storm in the near future cannot be excluded - one that is created from factors such as social instability, prolonged economic recession, financial instability, political instability,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disruption of the world political order and military conflict encouraging one another and erupting all at once. The crisis of our sustainable development is imminent. We are now at the crossroads of "now or never."

National governance must be transformed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SDGs. ① Near-sighted governance structure stemming from short-termism must be overcome. ② The mindset of dismissing global issues as somebody else's problem must also be changed. We need to globalize our awareness to understand that global issues are our problem and we bear the very responsibility. ③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DGs, the complex correlation among different issues spanning the areas of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and the interaction of related measures must be studied and understood. ④ Sustainable development must become a nation-wide movement to ensure that citizens and businesses properly understand the SDGs. Campaign for raising the awareness of citizens including students must be engaged. ⑤ Local governments, businesses and other stakeholder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directly and indirectly in the government-led process of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 ⑥ Building "good society" with happy citizens must be pursued as the top priorit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⑦ Specific problems hind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and technological and business solutions must be studied, and experts, businesses and public officials must be encouraged to study at all times policy reform and financial measures needed to scale up and implement those solutions.

All of you here today must take the initiative to make sure that the government promptly pursues the task of establishing SDGs implementing system, and that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help people understand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SDGs - a "people-centered, planet-sensitive" agenda for reform – and study ways of implementing them including the restructuring of national governance. That is Dasan's Mokmin spirit and the calling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 지속가능한 발전, 정약용에게 묻다

2015년 9월 25일 개최된 UN 정상회의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최고지도자들이 모여 이른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 SDGs의 궁극적 목표: 각국 경영패러다임의 변환(變換)

이 의제는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성 요소를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다섯 가지로 보고 이들 다섯 가지의 요소, 즉 “5P”를 모두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국이 이들 모두에 걸치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합의하고 2030년까지 상호 협력을 통해 이행해나가자는 약속입니다. 2015년 12월 12일에는 세계 모든 나라가 파리기후협약에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그 중 13번째의 SDG인 기후행동 목표를 보완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입니다.

SDGs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1) 절대 빈곤의 종식, (2) 식량의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동시 실현, (3) 개도국에서 특히 높은 산모와 영유아 사망률의 획기적 저감 및 글로벌 전염병의 근절, (4) 양질의 교육기회의 보편화, (5)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각종 차별의 근절, (6) 안전한 식수, 위생적 화장시설의 보급, (7) 재생에너지 전기 및 안전한 취사연료의 보급, (8) 각 국가경제의 포용적 성장과 관참은 일자리의 보장, (9) 개도국의 산업과 기술 발전 촉진, (10) 확대되어 가고 있는 국제적 및 국가적 불평등의 완화, (11)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안전성과 복원력의 증진, (12) 각종 자원의 지속가능한 소비, (13) 기후변화에 대한 시급한 대응, (14)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활용,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16) 각종 사회제도의 공정성과 포용성의 구현, 그리고 끝으로 (17) 이들 각종 글로벌 목표를 세계 모든 행위자들 간 partnership 즉 협력관계를 활성화해 2030년까지 이행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듯 지속가능발전 혹은 SDGs는 환경보호만을 생각하는 의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관료와 지식사회 및 언론에 아직도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DGs는 UN의 선언문이 말하듯 “사람 중심적이되 지구를 생각하는”(people-centered, planet-sensitive) 행동의제입니다. 사실은 5P가 말해주듯 각국의 국가경영의 총체적인 재편을 요구하는 의제입니다. 그래서 SDGs를 선언하는 UN총회 합의문 제목을 보면 “우리의 세계를 변환시키고자하는”(transforming our world)이라는 수식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흔히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 강조합니다. SDGs는 세계 각 정부가 공동으로 달성하기로 약속한 목표들입니다.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현지에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현대의 격언이 말해주듯 지속가능발전은 글로벌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실천의 책임은 모든 국가가 분담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SDGs는 보편적인(universal)한 의제로서 선진국을 포함하는 모든 나라들이 SDGs가 요구하는 응분의 자기개혁을 추진해야합니다. 물론 한국도 그래야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의 문제만 시정하기 위한 의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하는 선진국들의 자기개혁 의제에는 파트너십의 차원에서 개도국들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쇄신도 포함됩니다.

### 각국의 지속가능발전 경영: 목표-세부목표-지표-정책설정-측정-평가-국제비교-평가-동료학습-조정-국제협력

이들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별로 각국이 달성하도록 추진해야할 몇 가지 정책과제 혹은 “target”들을 설정해 총 169개의 공통적 target list를 채택했습니다. 각국은 target별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국가적 목표치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달성하고자 필요한 정책들을 자국의 여건에 맞도록 채택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target별 목표치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들로 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정책체계가 구성됩니다.

UN은 이들 정책의 실천을 위해 목표별 달성 진도를 측정, 평가하기 위한 각종 지표 혹은 indicator 총 239개를 채택했습니다. 각국은 이들 지표들의 자국에 대한 수치를 주기적으로, 예컨대 연례적으로, 파악해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운

영에 환류하기 위한 SDGs 이행진도 평가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UN은 매년 한 차례 고위정책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을 개최해 각국의 SDGs 이행진도를 비교 평가하고 SDGs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협의합니다. 4년에 한 번 씩 SDGs의 이행을 평가하고 향후의 국제협력방향에 대한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 국가와 국제사회 경영방식의 대(大)전환: “아무도 낙오시키지 말자”

SDGs의 이행을 추진하고 평가하는데 대해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도 낙오시키지 말자”(Do not leave anyone behind)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각 SDG에는 “모든 이들을 위해”(for all) 혹은 “어디에서나”(everywhere)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즉 SDGs는 각 지표의 변화를 국가적 평균치를 보고자 하는 의제가 아닙니다. 지방 지역과 특성별 시민그룹을 가급적 세분화해 모든 세분화 단위에 걸쳐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소득의 향상을 평가하자면 국민 평균소득의 증가를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별, 연령대별, 지방별, 장애인 여부별, 이민자 여부별, 기타 사회적 특성 별로 증가치를 측정해 소득의 향상이 얼마나 골고루 벌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SDGs는 이처럼 복합적인 목표이고 그만큼 이행이 어려운 추진방안을 담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해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SDGs의 의의와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의 표현들입니다. 제가 그 중 세 가지를 들어 각각에 대해 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속가능발전의 위기: 다가오는 Perfect Storm

SDGs는 2015년 UN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UN을 중심으로 여러 국제기관들과 회원국 정부 및 800만명 이상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과정에서 도출되었습니다. 2012년 6월의 Rio+20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가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걸쳐 도출된 SDGs는 세계의 발전 현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절실한 문제의식에 기인합니다.

열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지(等地)에 10억 가까운 인구가 절대빈곤과 각종 전염병의 질곡에 갇혀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타 지역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생산과 소비로부터 각종 폐기물이 누적적으로 산출되어 육지와 바다의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고 온실가스의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간과 생물의 서식처로서의 지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화와 기술발전으로 세계 도처에서 낙오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사회적 차별과 불공정 경쟁이 가중되어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정치적 불안이 보편화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절대 빈곤과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할 역량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인기영합주의와 전제정치가 대두합니다. 미국 사회의 양극화와 이에 따른 국제적 지도력 상실도 그 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business-as-usual (BAU) 궤도를 좇는 한 인류사회의 발전이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if something cannot go on forever, it will stop.” 이것은 1999년에 작고한 미국 경제학자 Herbert Stein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인류사회의 발전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류사회가 BAU의 길을 간다면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사회 불안, 경제의 장기 침체, 금융 불안, 정치 불안과 기후변화의 재앙, 세계 정치질서의 교란, 그리고 군사적 갈등이 서로를 부추기며 동시에 발생하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을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Trump 대통령의 당선 이 이러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의 기점(起點)일지로 모르겠습니다.

### SDGs는 마지막 시도: Tipping Point에 이르기 전에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발전”을 주제로 한 1992년의 Rio UN정상회의 이후 여러 국제적 규약과 행동규범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BAU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도출된 17개의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궤도로의 진

입을 위한 또 한 번의 시도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자연자본 및 사회자본 잠식의 tipping point를 얼마 안 남긴 지금 이것은 아마도 인류의 마지막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now or never”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SDGs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경영 상의 흔한 의제들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인류사회는 어쩌다 오늘날의 지속가능발전 위기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국 혹은 각국 정부가 어디에서 길을 잘못 튈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주의의 비극: 근시안적 국가경영**

지속가능발전은 중장기 문제를 예상하고 풀어나가는 국가와 세계 경영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나라의 국가경영이 중장기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현 정부의 임기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후, 10년 이후의 미래, 혹은 환경 악화와 같은 차세대 및 차(次) 차세대의 문제를 무시하고 기껏해야 lip service에 그칩니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번영과 안전과 행복이 소홀하게 다루어집니다. 흔히 국가경영이 금년 혹은 길어야 향후 3~4년의 경제성장률 극대화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각국의 경영체제가 이러한 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도 마찬가지로 당장의 문제, 특히 경제문제와 안보문제에 대한 불끄기 차원의 협력에 집중됩니다. 소위 단기주의(short-termism)의 문제입니다. “단기주의의 비극”이라 할 만합니다.

**공유지의 비극: Thinking locally, acting locally**

제가 가까운 식자들과 국가현안을 논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지구온난화나 8억 이상의 절대빈곤을 문제로 제기하면 흔히 “그것은 global문제이고...”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자는 반응을 듣고 맥이 빠지곤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글로벌 문제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한민 국도 기여하고 있어 그 대책에도 한국의 기여가 중요한데도 말입니다. 글로벌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 혹은 각 행위자가 책임분담을 기피 하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 발생하기에 지속가능발전의 도모가 어려운 것입니다. 글로벌 문제를 ‘우리’ 의 문제로 인식하는 인식의 글로벌화가 필요합니다.

**Giddens’s Paradox = 단기주의의 비극 + 공유지의 비극**

“기후변화의 정치학”에서 저자 Anthony Giddens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협이 실생활에서 보이지 않으니 대책을 등한시한다는 점을 들어 이 현상을 Giddens’s Paradox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현상은 사실 단기주의의 비극과 공유지의 비극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경영의 어려움: 경제, 사회, 환경 상관관계의 복잡성**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환경적 문제 간에는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각 문제에 대한 처방은 다른 문제의 해결에 plus 혹은 minus 의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차원에 걸치는 문제들 간 상관관계를 연구, 분석, 이해하고 그러한 관계들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국가경영 체제를 구축해야합니다. 발전 현상의 복잡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각종 정책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범정부적 ‘발전운영’이 요구됩니다. 17개 SDG의 이행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대책으로 모든 행위자들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SDGs의 운영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문제의 분석과 대책의 파악 및 시행에 참여하는 국가경영체제를 운영해야한다.

**소비와 생산의 주체는 시민과 기업: 민간부문 참여의 중요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 그리고 유권자의 행태가 SDGs에 부합하도록 적응해야합니다. 따라서 시민 들과 기업들이 SDGs를 이해하고 그들의 선택과 행위가 SDGs에 부응하도록 변화해야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 범국민적 운동이 되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 포함하는 시민 대상 지속가능발전 의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각종 제도와 행위 인센티브가 SDGs에 부응하

게끔 적응해야합니다. 독일식의 시민대화가 상시화 되어야합니다. 나아가 정부 주도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지방정부와 기업, 각종 행위 자 그룹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전”의 목표/뜻의 재정립 필요: 지속가능발전 기반의 시민 행복의 향상**

한국을 위시해 여러 나라들이 국가경영의 궁극적 목표 혹은 발전의 참 뜻을 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preamble)에서 그 이념 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子孫)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가경영에서 이러한 이념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단기 경제성장의 극대화에 치중되어 왔습니다.

저는 세계에 대한 윤리적 관점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이 오늘날의 시민과 미래의 시민들의 행복을 추가하는 “좋은 사회”(good society)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나타낸다고 하는 Jeffrey Sachs 교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는 세계 시민들의 웰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개인당 소득 수준과 17개 SDG를 종합하는 SDG Index에 의해 좌우된다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록 SDGs가 ‘정치적 협상’을 통해 도출되기는 했지만 좋은 사회의 필요조건을 비교적 근사하게 포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민행복의 향상이 국가경영의 최상위 목표가 되어야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궁극적 해법: 새로운 기술의 선용(善用)과 사회적 혁신**

앞에서 SDGs의 이행을 위해서 국가경영체제와 시민의식의 변환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빈곤과 보건, 식수와 전기, 일자리, 기후변화, 생태계 등에 관한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기술기반 해법을 도출하고 이를 범지역적, 범사회적으로 이행 하는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자와 기술자들 및 기업에 의한 기술적 및 사업적 해법 연구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기술적 사업 적 해법을 규모화하고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도 개혁과 금융대책이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 SDGs의 본격적 이행에 착수**

SDGs가 세계 각국 공통의 행동의제로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유럽, 일본 및 개발도상권에서 SDGs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실행에 들어갔고 국제 시민사회에서 SDGs 이행에 관한 협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미국 에서는 트럼프대통령 취임 이후 행정부가 이러한 국제적 대세에 역주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이 려 할 때일수록 여타 국가들, 특히 한국과 같은 신예 선진국이 앞장서서 SDGs 이행에 모범을 보여 국제적 대세를 굳히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DGs와 파리기후협약의 두 가지 의제를 협상하고 도출하는 어려운 작업이 한국인이신 반기문 UN사무총장에 의해 지휘되어 성공적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업적은 현대 세계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생각하면서 저 역시 한국인의 하 나로서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DGs는 한국인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위대한 업적,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도 본격적 대응 없어**

반기문 당시 UN 사무총장은 UN이 중심이 되어 두 의제를 개발하는 협의과정을 지원하도록 2012년 8월에 세계적인 전문가 네트워크로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우리말로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발족시켰습니다. 이하 SDSN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SDSN은 2015년 이후 SDGs와 파리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해법들을 연구하고 SDGs 이행 advocacy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부터 SDSN의 Leadership Council에 영입되어 SDSN의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SDSN의 한국 chapter를 조직해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한국차원의 SDGs 해법의 연구와 공론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

다. 그리고 정부를 대상으로 SDGs의 적극적 이행에 착수할 것을 대통령과 유관 장관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겉치레 이상의 실질적인 대응이 없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의 정부에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SDGs의 효과적 이행 전망 밝지 않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100대 공약의 이행기반 수립, 복핵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급한 여러 현안문제로 인해 SDGs의 이행을 출범시키고자 하는 준비가 계속 지체되어왔습니다. 금년 가을에 들어서서는 필요한 입법조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것이 앞에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은 SDGs의 의의와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한 고위 정책당국자들의 이해가 깊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SDGs 이행년한인 2030년까지 불과 12년이 남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 다산에게 묻고 추진합니다.**

이러한 경위로 다산 정약용의 해배 200주년을 생각하는 시점에서 실학(實學)의 정신과 다산이 가르치신 목민(牧民)의 정신을 상기하고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한국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산이 보여주신 목민의 정신에 따라 “사람 중심적이고 지구를 생각하는” 혁신과 개혁 의제인 SDGs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육, 전파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나아가 국가와 세계가 SDGs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법과 그 실행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혁, 그리고 국가경영의 재편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심각한 도전을 받는 위기 국면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의식을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대책으로 금년 중 SDGs를 틀로하는 새로운 국가경영 체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다산의 목민정신이고 또 촛불혁명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산에게 여쭙어 봅시다.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At the UN Summit held on 25 September 2015, the world leaders have unanimously adopte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Ultimate goal of the SDGs: Transformation of Each Nation's Governance Paradigm

Under the belief that 5Ps -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and Partnership - are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the Agenda strives to fulfil them all. To that end, each nation has agreed to seventee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s committed to implementing them by 2030 through mutual cooperation. On 12 December 2015, all nations around the world have agreed to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The Agreement represents a detailed action plan that complements the climate action goals under SDG 13.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Eradicate absolute poverty; 2. Ensure access to food and implement sustainable agriculture at the same time; 3. Dramatically reduce maternal and child mortality that are especially high in developing nations and eradicate global epidemics; 4. Provide universal high-quality education opportunities; 5. Eradic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6. Supply safe drinking water and adequate sanitation and hygiene; 7. Provide renewable power production and safe cooking fuel; 8. Achieve inclusive economic growth at national level and ensure descent jobs; 9. Promot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developing nations; 10. Alleviate inequality rising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11. Build sustainable, safe and resilient cities;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of resources; 13. Promptly respond to climate change; 14. Ensure sustainable use of life below water; 15. Protect and recover life on land; 16. Provide access to justice and build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nd 17.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to engage all stakehold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se global goals by 2030.

Contrary to common belief, sustainable development or the SDGs are not an agenda that solely pursues environmental protection. South Korea's bureaucrats,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media still have misunderstanding about the concept. More specifically, the SDGs constitute a "people-centered, planet-sensitive" agenda for action as stated in the UN declaration. In fact, as attested by the 5Ps, it is an agenda that demand a comprehensive transformation of national governance. For that reason, the title of the declaration for the UN Summit includes the phrase "transforming our world."

There is another misconception that deserves correction. The SDGs are a set of goals jointly committed by the government of each nation. As adequately expressed by the modern maxim "Think globally, act locally,"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global goal. However, each nation must bear the responsibility for action. That is, the SDGs are a universal agenda and all nations including developed ones must pursue reform required by the SDGs. South Korea is no exception. The agenda is not just aimed at correcting the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Policy reform needed for supporting developing nations' implementation of the SDGs is also included in the agenda for self-reform of developed nations including South Korea.

### Each nation's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Target, Indicator, Policy-setting, Measurement and Evaluation, Global Comparison, Evaluation, Peer Learning and Adjustment, Global Cooperation

To fulfill these global goals, the policy tasks or "targets" to be pursued by each nation are set under each goal and a common target list consisted of 169 targets was adopted. Nations have agreed to set their own national goals to be achieved by 2030 for each target and to pursue the needed policies under their own circumstances. These detail policies that were set to meet each target together consist the policy framework for each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se policies has adopted a total of 239 indicators to measure and evaluate the progress of each goal. Each nation began to implement an evaluation process to check its SDGs progress, which is used to identify each nation's progress in figures with the indicators on a regular basis - annually for example - and to use the results as feedback for their policy operation. And the UN organizes High-Level Political Forum annually to compare and evaluate each nation's progress on the SDGs and to consult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progress on SDGs will be evaluated once every four years and a summit will be held to seek future direction for global cooperation.

### Paradigm shift of the governance of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 "Do not leave anyone behind"

There is one very important principle in place when pursuing and evaluating the SDGs - Do not leave anyone behind. Accordingly, the phrases "for all" or "everywhere" are specified in each SDG. That is, the SDGs are not an agenda that seeks to look at the national average of the changing indicators. They are designed to review local communities and civic groups with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t the most detailed level as possible.

For example, when evaluating income growth, what is being evaluated is how evenly income growth is witnessed in different gender, age group, local region, groups with disabilities, immigrants and groups with certain soci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the mere growth of average national income.

Given that the SDGs are such multi-faceted goals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orporates action plans that are that much more difficult to carry out, there are a few questions that I hear frequently. In fact, they are actually not questions but suspicions about the meaning of SDGs and the likeliness that they will be implemented. I want to share three of them and provide my answer to each one.

### Crisi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erfect storm approaching us

The SDGs were derived through the consultative course spanning more than three years from the UN Summit in 2015 that was participated by numer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member states and more than 8 million experts and civic society leaders. The cornerstone was laid by the final document of the Rio+20 UN Summit in June 2012 titled "The Future We Want." Produced through the process, the SDGs stem from desperate awareness of problems surrounding the status of global development.

In the regions of tropical Africa and South Asia, almost 1 billion people are suffering from absolute poverty and all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In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waste accumulatively produced from the growth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is suffocating lives on land and below water while the earth as the habitat for human and other living organisms is being destroyed by climate change resulting from greenhouse gas emissions.

Meanwhile, the world is witnessing people falling behind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equality rising due to social discrimination and unfair competition. As a result, social and political instabilities are prevalent and the capacity for resolving absolute poverty and other global issue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s weakening. Democracy is faltering, and populism and despotism are taking its place. Bipolarization of the American society and the nation's consequent loss of international leadership are yet another result of these problems. All these factors are adding threat to world peace.

The development of the human society cannot be sustained if we follow the current "business-as-usual (BAU)" trajectory. "If something cannot go on forever, it will stop," said Herbert Stein, a prominent American economist who passed away in 1999. His words can be aptly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the human society.

If we continue on with business as usual, I do not think we can exclude the possibility of a perfect storm in the near future - one that is created from factors such as social instability, prolonged economic recession, financial instability, political instability,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disruption of the world political order and military conflict encouraging one another and erupting all at once. President Trump's election may be the starting point that triggered the course of events leading to such a result.

#### **SDGs are our last attempt: Before we reach the tipping poi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orld has introduced various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des of conduct under the theme of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ince the UN Rio Earth Summit in 1992. However, we have yet to escape the BAU trajectory. The seventeen SDGs derived in 2015 represent yet another attempt to enter a sustainable development trajectory. And not too far from the tipping point of climate change and the encroachment of natural and social capitals, this may be the last attempt made by the human society. It can be said that we are now at the crossroads of "now or never."

If you look at the details of SDGs, you will find that they are common agendas of national governance. Then, we cannot help question why the human society ended up with today's sustainable development crisis. In which road did each nation or each government take a wrong turn? There are two dimensions to this problem.

#### **Tragedy of short-termism: Near-sighted national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task of national and global governance that seeks to predict and tackle mid-to long-term issues. However, the governance of almost all nations is focused on resolving issues within the term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dismisses the mid-to- long-term future. That is why governments merely pay lip service by neglecting the future that will unfold five or ten years from now or problems that the next generation or the generation after will face such as environmental deterioration. Therefore, the prosperity, safety and happiness of the future generation are set aside. National governance commonly place top priority in maximizing the economic growth for the next year, or three to four years from now at best. As this is how nations are governed, global cooperation on issues of global scale is also focused on quick fixes to pending issues and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economy and security. This is a problem attributable to the so-called "short-termism," and thus, the "tragedy of short-termism."

#### **Tragedy of the commons: Thinking locally, acting locally**

When I mention global warming or absolute poverty plaguing more than 800 million people while discussing national issues with my peers, I am often unnerved by their reaction that "Those are global issues" and thus

should be dismissed or set aside. They seem to be unaware of the fact that global warming is indeed a global issue and Korea should make a contribution to resolving it because it is also contributing to the problem.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 is difficult due to the so-called "tragedy of the commons," a phrase used to describe that each nation or each party avoids to take responsibility for global issues. What we need is to globalize our mindset and consider global issues as "our" problem.

#### **Giddens's Paradox = Tragedy of short-termism + Tragedy of the commons**

Anthony Giddens in his book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discusses how people neglect measures to address global warming because they do not see the threat it poses in daily lives and calls this the Giddens's Paradox. I think this phenomena is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of the tragedy of short-termism and the tragedy of the commons.

#### **Difficulty of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mplex correlation among the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Economic problems, social problems and environmental problems have complex correlation. Therefore, the prescription to one problem may have a "plus" or a "minus" effect in solving another. Therefore, governments in order to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must build a governance system to study, analyze and understand the correlation among issues of various dimensions such as the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and to adequately manage these relationships. To scientifically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various phenomenon of development and to strike balance among different policies, a government-wide "governance for development" must be in place. Implementing the seventeen SDGs is a daunting task. As such, a governance system must encourage all parties and stakeholders to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SDGs implementation process and to work together in analyzing problems, and identifying and implementing solutions.

#### **Citizens and businesses are the main agent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Importance of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ehaviors of consumers, producers and voters must ultimately be adapted to comply with the SDGs. Therefore, citizens and businesses must understand the SDGs and their choices and actions must be changed in line with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escalated to a nation-wide movement. To that end, citizens including students must be educated to have their awaren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raised and all systems and incentives must be adapted to comply with the SDGs. German-style citizens' dialogue must be carried out at all times. Furthermore, local governments, businesses and other stakeholder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directly and indirectly in the government-led process of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

#### **Need for redefining the goal and meaning of "development": Promoting citizens' happiness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Nat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have forgotten the ultimate objective of national governance and the true meaning of development.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We,

the people of Korea, pledge to ensure security, liberty and happiness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forever." However, the ideology is not fully reflected in actual national governance, which is focused on maximizing economic growth in the medium-term.

I agree to Jeffrey Sachs' opinion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normative outlook on the world represents the values of pursuing a good society that adds the happiness of citizens of today and tomorrow. He has published the results of his regression analysis which shows that the indicators representing the level of global citizens' well-being are determined by the level of individual income and by the SDGS Index produced by combining the 17 SDGs. The results imply that while derived through political negotiations, the SDGs capture the preconditions of a good society relatively well. After all, making citizens happier must be the top objective of national governance.

#### **Ultimate sol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good use of new technology and pursuing social innovation**

I have mentioned in the earlier part of my speech that to fulfill the SDGs, national governance system and people's awareness must be transformed.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task of deriving technology-based solutions to specific problems such as poverty, health, drinking water, electricity, jobs, climate change and ecosystem, and implementing these solutions across regions and societies. To that end, technological and business solutions must be studied by scientists, technicians, and businesses. Furthermore, there must be institutional innovation to scale up and apply those technological and business solutions. System reform and financial measures must also be in place. And public consensus must also be built to that end.

#### **International community – set out to implement the SDGs in full scale**

This year marks the third year since the official launch of the SDGs as the world's common agenda for action. In the meantime, European nations, Japan and other developing nations have begun to implement the process of fulfilling the SDGs after completing preparation, and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y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the consultation and discussion for the SDGs. While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is moving against the international trend after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Trump, this is just one of the few exceptions. At a time like this, other countries and especially those that have newly joined the ranks of developed nations like Korea must set a good example for fulfilling the SDGs and make this a irreversible global trend.

The daunting task of negotiating and deriving the agendas for the SDGs and the Paris Agreement was successfully completed under the leadership of our fellow Korean and former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I believe that his achievements will go down in modern history and feel very proud as a Korean.

#### **SDGs are a great achievement of our fellow Korean and former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b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yet to take a step**

The then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launched a global network of specialists call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in August 2012 to assist the consultation process of developing the two agendas by having the UN at the center. I will use the acronym SDSN for the rest of my speech. Since 2015,

SDSN has studied solutions to assist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and the Paris Agreement and served as an advocacy tool for implementing the SDGs. I have been participating in SDSN projects after joining the SDSN Leadership Council from early stage. In particular, I have organized the South Korean chapter of SDSN, invited experts and pursued projects to study solutions for the SDGs and to publicize the Goals. And I have consistently brought up the need to launch efforts for a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SDGs to the President and relevant ministers. Unfortunately, however, the previous Park administration failed to take measures more than cursory ones. And this is the government that has produced Secretary-General Ban Ki-moon.

#### **Prospect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DGs dim in the Moon administration**

Almost a year has passed since President Moon Jae-in took office. For the past year, President Moon kept on postponing the preparations for implementing the SDGs due to other urgent issues such as laying the foundation for fulfilling his 100 election pledges and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needed legislative procedure is expected to materialize when fall comes.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mes up with effective measures. The reason I believe that the prospects are not so promising is due to the limited understanding that the high-level policy makers have about the aforementioned meaning of the SDGs and measures needed for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After this year, we will only have twelve years until 2030, the deadline of the SDGs.

#### **South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 Let's ask Dasan and take action**

For the reasons above, at this juncture of commemorating the 20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Dasan's exile, we must look back and remind ourselves of the spirit of Silhak (practical learning) and the spirit of Mokmin (governing the people) preached by Dasan. Let me make one suggestion to my fellow Koreans attending today's symposium. I would like to ask you to understand, educate and disperse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people-centered, planet-sensitive" SDGs agenda for innovation and reform by referring to Dasan's Mokmin spirit. Taking one step further, please seek technical solu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s at national and global levels and study ways to reform our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reorganize national governance to put the solutions into practice.

I believe South Korea is at a critical point where its sustainable development is seriously challenged in various ways. We may not have enough time today to discuss the awareness of this problem, but if I get right to the point, I believe that we must establish a new system for governance within this year with SDGs as the framework. I believe that is Dasan's Mokmin spirit and the calling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Let us ask Dasan.





牧  
文  
心  
書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Symposium on Dasan and the SDGs

## 세션 1 | Session 1

[교육] 미래인재육성의 길, 다산의 교육관에서 찾다

[Education] Find the way of fostering future talents in Dasan's Educational view

발제자

Speaker

**정순우 | Chung Soon woo**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Professor, The Academy of the Korean Studies

**박노자 | Pak Noja (Vladimir Tikhonov)**

오슬로대학교 인문학부 문화연구 및 동양언어학과 정교수  
Professor, Humanities Department of Culture Studies and  
Oriental Languages, Oslo University, Department of Cultural  
Studies and Oriental Linguistics



정순우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문화재 전문위원
- 前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다산의 성인(聖人)관에 관한 교육학적 성찰

오늘의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이고, 우리는 다산으로부터 그 처 방전을 받을 수 있을까? 개항이후 전개된 신교육은 한국사회에 명과 암의 뚜렷한 두 개의 자취를 남겼다. 교육은 한국 근대사회의 화두였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모습의 이면에서는 근대 교육으로 파생된 짙은 어두운 그늘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의 한국교육은 과도한 경쟁체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는 즐거움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경쟁과 고통, 긴장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었다. 우리의 근대교육 모델에는 서구 근대 교육의 밑바탕에 깔려 있던 데카르트 이래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담겨 있다. 해방 후 서구화가 진전될수록 우리의 교육 이론은 과학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교육 목표의 설정은 발전과 성장에 관한 모델이 중심이 되었다. 데카르트적 인식은 인간을 유기체적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인간이 합리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측면만 부각시켰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과 격리되기 시작하였고, 자연의 수많은 조 직체와 사귀고 협동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우리의 이러한 교육적 딜레마에 대해 다산은 어떤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을까? 보고에 서는 종래의 성리학적 해석의 틀을 부수면서 전개되는 다산의 교육론을 그의 성인(聖人) 담론을 통해서 밝혀 보고자 하였다. 그는 교육의 목표인 聖人을 관념이나 추상의 그림자 속에서 발견할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의 실천적 행위 속에서 찾을 것을 당부한다. 그는 “성인은 리와 하나가 된다.”라는 성리학의 명제를 거부한다. 그는 우선 인간의 삶의 준칙인 도리(道理)와 자연적 질서인 물리(物理)가 동일한 패턴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는 종래의 성리학적 해석을 거부한다. 그는 리의 무실성(無實性)을 들어 성리학의 공부론을 공격한다. 떠도는 유령 같은 리를 통해 인간의 덕성을 가꾼다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다산은 리라는 논리적 이음새를 부셔버림으로써 얇이란 추상적인 인식행위가 아니라 삶의 구체성을 지닌 능동적인 실천행 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다산은 성인이란 황홀하고 신이한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뉘우침이 있는 역사 속의 인간이라고 보았다. 그는 성인의 본질을 마음의 원초적 고요함에 두고자 하는 성리학자들의 이해태도를 거부하고, 성인도 역시 두려움과 같은 칠정이 있고, 욕망이 있는 인간임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뉘우침이 마음을 길러주는[養心] 것은 마치 분뇨(糞尿)가 곡식의 싹을 키워주는 것과 같다. 그는 성인이란 초월적인 신성성을 갖춘 인간이 아니라,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그의 삶을 성찰하는 인간이라고 규정 하였다. 대지에 내려앉은 성인이다. 그는 성인의 표준을 조선 내부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는 문화적 표준을 맹목적인 중화주의에서 찾지 않고 문명화의 정도에서 구하고자 하는 주체적 시각을 보여 준다. 이제 비로소 관념속의 ‘성인’이 대지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현실속의 성인으로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인의 실현 방식에서도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그는 성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신독으로 하여 하늘을 섬기고, 서(恕)에 힘써서 인을 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다산은 상제를 정성으로 모시면 인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사랑의 이치를 이성적으로 깨우치고

자 한 성리학으로부터 멀찍이 벗어난 자세이다. 또한 성인 이란, “어렵고 고된 일은 남보다 먼저하고, 소득이 되는 어려운 일은 남보다 뒤에 하는 서(恕)”<sup>1)</sup>를 실천하는 인물일 뿐이다. 그는 심학화한 경의 공부를 통해서 성 인에 이르는 길이 없다고 보았다.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란 상제를 향한 신독의 공 부를 통하여, 즉 상제와 인간이 리가 아닌 영성(靈性)을 통해 서로 만나서 그 힘으 로 타자를 향한 사랑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발현하는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다산의 仁學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사실은 그 실행 방식이 철저히 원시 유학적구도속에있다는점이다. 그는인이란실천적인 행위와인간상호간의구 체적 관계 속에서 나타남을 주장한다. 다산은 “인의예지는 행사(行事)로 얻어진 이 름이지 심에 있는 이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다산은 인의 상태가 날 것 그대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사랑의 실현도 예와 악과 같은 그릇 속에 담겨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의 놀라운 문명외식이다. 다산은 참다운 성 인이란 질(質), 즉 착한 바탕만을 기르는 것에 오로지 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여기가 바로 교육이 관여할 부분이다. 다산이 기다리는 성인은 문(文), 즉 예악으 로써 꾸밀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앞의 성리학자들이 질만을 숭상하여 국가가 쇠락하고, 교육이 무너져 내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가 교육의 개혁을 법제와 전장의 개선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도 이러한 인식의 소산이었다. 전대의 성리학에서의 성인이 심학적 모형이라고 한다면, 다산의 성인관은 실천을 수반하는 행사(行事)적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1) 「論語古今註」, 雍也, “艱苦之事先於人 得利之事後於人 則恕也”



Chung Soon Woo | Professor, The Academy of the Korean Studies

- Professional, Member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 Former Policy Adviso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2012-2014)

## Pedagogical Reflection on Dasan's View of Sage

What is the biggest challenge for Korean education today, and can we get any remedies for it from Dasan? New education developed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left two distinct traces of light and darkness in Korean society. Education has made it possible to successfully accomplish two goals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which were the biggest tasks of Korean modern society. However, behind the back of positive aspect, dark shade that ensued from modern education exists. Today, Korean education suffers fiercely cut-throat competition. Schools have been reduced to a space where competition, pain, and tension rather than joy dominate students. Our modern educational model has a mechanistic worldview since Descartes that underlies Western modern education. As westernization progressed after liberation, our educational theory emphasizing science and efficiency became the mainstream. The educational goals were set up centering on development and growth. Cartesian perception views human being as an existence capable of reasoning, rather than as an organic existence. Thus, human beings began segregation from nature, and they forgot how to socialize and collaborate with the numerous organizations of nature.

To this educational dilemma, what remedies does Dasan have to offer? In this paper, I tried to reveal Dasan's theory of education, which is unfolded by breaking the frame of 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Neo-Confucianism, in the view of his sagehood discourse. He calls that the saint, the goal of education, should be sought not from the shadow of perception or abstraction, but in the practical action of intellect. He rejects the proposition of Neo-Confucianism that "a saint becomes one with Li (meaning reason)". He first rejects the conventional Neo-Confucianism interpretation that the duty, which is doctrine of human life, and the physics, which is physical order of nature, move by the same pattern. He attacks the method of study of Neo-Confucianism on the grounds that reason is not substantial. According to him, it is too abstract to cultivate human morality through a ghostly floating form of Li. Dasan tries to expose the fact that knowing is not an abstract cognitive act but a proactive practical act with concreteness of life.

Dasan also views the saint as a man living in history who can repent, rather than as a wonderful and mysterious transcendent being. He rejected the comprehensive attitude of Confucian scholars who sought to place the

essence of saint in the primordial tranquility of mind, and emphasized that a saint is also a human with the seven passions including fear and lust. According to him, repentance nourishes mind as manure grows the seeds of grain. He stipulated that a saint is not a person with transcendental divinity, but who reflects on his life regretting and repenting. It is a saint sitting on the ground. He sought to find the standard of saint within the Joseon Dynasty. Doing so, he showed an independent perspective of seeking cultural standards from the degree of civilization, rather than blindly seeking it from Chineseism. Only then, the 'saint' buried in the conception began to settle as a saint in reality who listens to the pain of the earth.

He also present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way in which In, meaning benevolence, is realized. He said that the way to become a saint is to serve King of Kings, or the heavens, by behaving rightly, and to seek benevolence by having Seo, meaning generous and mercy. Dasan says we can realize In by sincerely serving King of Kings. It is an attitude that is far away from the Neo-Confucianism that stressed to reasonably realize the meaning of love first. In addition, the "saint" refers to a person "who shows mercy by doing difficult and hard work ahead of others, and profitable hard work after others", being generous. He thought there was no way to become a saint through the study of a sermon that became mind learning. The most ideal education is done through the study of righteous behavior. In other words, it is a lifetime process to continuously manifest the realization of love towards others, with power obtained in the course of meeting with the God of Gods through spirituality, rather than reason, of human beings.

The next thing to notice in Dasan's Inhak, study of benevolence, is that the way of practice exclusively exists in the primitive Confucian structure. He argues that In appears in the practical action and concret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Dasan asserts that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wisdom is only obtained by doing acts, rather than they exist as a reason in the heart." But Dasan thought that benevolence should not be exposed in its raw form. He thought that the realization of love should be put into vessels such as etiquette and music. It shows his remarkable consciousness of civilization. Dasan thought that a true saint should not be only focused on raising quality, that is, a good background. This is where education comes. Dasan waited for a saint who can be trimmed with studies, or etiquette and music. He pointed out that states had fallen and education had collapsed because former Confucian scholars venerated only quality. It was based on this recognition that he aimed to reform education by improving law and institution. If former generation of neo-Confucianism had a mind-learning model for saint, it can be said that Dasan's view of saint was based on a behavioral model that accompanied practice.

## 다산의 성인(聖人)관에 관한 교육학적 성찰

### 한국교육에 새로운 대안은 없는가?

개항이후 전개된 신교육은 한국사회에 명과 암의 뚜렷한 두 개의 자취를 남겼다.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있는 가파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교육'에 있었다. 교육은 한국사회의 화두였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사회는 교육을 통해 산업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저개발단계의 악몽을 벗어 던졌다. 기존의 신분제 사회가 안고 있던 불평등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교육을 통해 좀 더 성숙한 근대사회가 마땅히 지녀야 할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학교와 교육도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한국사회 특유의 '교육열'이 가져온 '근대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밝음의 배면에는 근대교육으로 파생된 짙은 어두운 그늘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의 한국교육은 과도한 경쟁체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는 즐거움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경쟁과 고통, 긴장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었다. 삭막하고 무미건조한 생활, 항상 긴장하게 하는 시험과 경쟁, 졸업이후의 암담한 현실상황 등은 학교를 고통의 장소로 만들고 있다. 오늘날의 근대적 학교는 삶을 성찰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경쟁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체계이다. 이에 학교 교육은 제도로부터 소외된 다수와 지식 그 자체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학습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두고 '비교육적'인 차원을 넘어 '반교육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개탄한다.

한국교육이 내장하고 있는 갈등과 모순은 최근 돌출된 현상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진행과정을 통해 누적적으로 생성된 것이다. 개화기 이후 한국 교육은 서구 이론의 깊은 영향을 받고 상호 조응하면서 근대교육의 뼈대를 형성하였다. 우리의 근대교육 모델에는 서구 근대 교육의 밑바탕에 깔려 있던 데카르트 이래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담겨 있다. 해방 후 서구화가 진전될수록 우리의 교육 이론은 과학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교육 목표의 설정은 발전과 성장에 관한 모델이 중심이 되었다. 데카르트적 인식은 인간을 유기체적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인간이 합리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측면만 부각시켰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과 격리되기 시작하였고, 자연의 수많은 조직체와 사귀고 협동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주체와 객체를 이원적 대립 관계로 파악하는 인식 태도는 한국의 교육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타기시되던 것이다. 서원이나 서당과 같은 교육 시설을 배치할 때에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구상하였고, 내부 공간의 구성도 자연의 哲理를 깨우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학교를 둘러싼 외부공간도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최적의 상태에서 상호 교응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고안되었다. 말하자면 자연 속에 폭 잠겨 그 속에서 정신적 해방감을 갈도록 설계되었다. 학교는 사람의 삶을 구속하고 옥죄는 공간이 아니라, 정신의 자유를 확보하게 해주는 장(藏), 유(遊), 식(息)의 장소로 이해되었다. 즉 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세상사로부터 해방되고, 마음을 쉬게 해주는" 자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이었다. 더욱이 옛 사람들은 교육의 목표도 이미 존천리(尊天理)에 두고 있었다. 이를 매개로 하여 각 개인은 우주적인 질서물에 동참하라고 교육시킨 것이다. 인간 상호간의 "인륜을 밝힘으로써(明人倫)"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탁월한 문화적 전통 또한 그 속에 깃들여 있었다. 조선조 선비들의 이 세계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전체론적 사유(holistic thinking)에 근거해 있다. 선비들의 공부론에는 근대의 지식체계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사실로서의 물리(物理)의 세계와, 당위로서의 인도(人道)의 세계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 선비들의 공부론은 소이연(所以然)으로서의 지식과 소당연(所當然)으로서의 덕성이 리(理)를 매개로 만나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산에 의해 흥미로운 반발이 나타난다. 그는 리(理)를 매개로 물리의 세계와 인도의 두 차원을 결합하는 종래의 성리학적 구상을 부정한다. 그는 두 차원의 세계를 통합하면서 인격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성리학적 공부론을 사실상 부정한다. 인간의 삶의 준칙인 도리(道理)와 자연적 질서물인 물리(物理)가 동일한 패턴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유학의 전체론적 사유의 오랜 전통이다. 그렇다면 과연 다산은 주체와 객체의 조화로운 和諧를 꿈꾸는 천일합일의 오랜 염원을 부정하였는가? 나와 타자, 인

간과 세계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고 양자의 조화로운 상생을 꿈꾸는 것은 오늘날의 한국교육에서도 반드시 회복해야할 과제이다. 다산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본고에서는 그의 성인론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다산이 꿈꾸는 이상적 인간

주자는 “성인은 곧 천이고 천은 곧 성인이다”<sup>1)</sup> 라고 말한다. 이것은 유학자들이 꿈꾸는 천일합일의 경계를 압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인간이 그의 순성한 본성을 회복하여 마침내 자연의 순선함과 합치 되고자 한 이상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나아가 “성인은 리와 하나가 된다.”<sup>2)</sup> 라고 말한다. 천리를 밝게 헤아리는 자가 성인이라는 것이다. 다산은 주자의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물론 다산에게서도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성인'에 있었다. 다산은 우선 성인이란 인격과 덕성을 완성한 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점에서는 여느 성리학자들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뜻하는 덕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도달하는 방법은 이미 성리학의 그것과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다산은 오학론에서, 성리학자들과는 끝내 같이 손잡고 요순(堯舜)과 주공(周公)·공자(孔子)와 같은 성인의 문하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성리학자들이 공리학이나 형명(刑名)학은 이단으로 물고, 산림처사로 자처하면서 공소한 학문만을 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다산은 주자학에서 성인을 성취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천을 리(理)라 하고 둘째) 인을 만물을 살리는 리(理)라 하고 셋째) 중용의 용(庸)을 평상(平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서 성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신독으로 하여 하늘을 섬기고 둘째) 서(恕)에 힘써서 인을 구하며 셋째) 항구하여 중단됨이 없음을 제시하였다.<sup>3)</sup>

다산은 천을 리로 해석하는 순간 천의 선악에 대한 주재적 권능이 사라진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리는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는, 즐거움도 없고 분노도 없는, 이름과 예도 들어 있지 않은 텅 비고 막막한 것”<sup>4)</sup>이다. 그는 리의 무실성(無實性)을 들어 성리학의 공부론을 공격한다. 떠도는 유령 같은 리를 통해 인간의 덕성을 가꾼다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다산은, “리를 가지고 만물을 꿰뚫는 다지만, 자기 행실의 선악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음”<sup>5)</sup>을 말한다. 하늘을 실체 없는 리로 추상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선악을 감독할 인격천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산이 시도했던 가장 과격한 시도는 주자의 격물설을 무효화시킨 것이다. 말하자면 성리학자들의 사상적 주 진지를 허물어 버린 것이다. 주자 공부론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그는 격물론을 부정하면서 리(理)가 기반할 인식론적 근거를 소멸시켰다. 그는 주자의 대학 8조목설을 부인하고 이를 격치(格致) 6조로 불러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대학의 8조목에서 격물과 치지를 제외시키고, 격치를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6조의 선후관계와 본말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격물에서 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활연관통의 상태도 또한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공자 같은 성인이라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의 지극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모르는 대목이 있다”고 보았다.<sup>6)</sup> 격물은 '헤아리고 재는 것(量度)'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격물이란 “물에 본말이 있음을 헤아리고 재는 것”이며, 치지란 일에 관해 “먼저하고 뒤에 할 바를 지극히 아는 것”<sup>7)</sup> 이상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일의 본말과 선후를 명백하게 아는 것이 격치의 요체이며, 제가의 선후와 본말을 이해하는 행위가 격치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사상적 전회를 의미한다. 리를 매개로 물리와 도리의 세계가 결합되고, 리를 매개로 소이연과 소당연의 세계가 합치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는데 이제 그 이음새를 부셔버린 것이다. 그는 리라는 이음새를 부셔버림으로서 얇이란 추상적인 인식행위가 아

1) 「朱子語類」, 권 68, “聖人便是天 天使便是聖”  
2) 「朱子語類」, 권 8, “聖人與理爲一”  
3) 「與猶堂全書」, 2, 권 2, 40 「心經密驗」, “今人欲聖而不能者 厥有三端 一認天爲理 一認仁爲生物之理 一認庸爲平常 若慎獨以事天 強恕以求仁 又能恒久而不息 斯聖人矣  
4) 「與猶堂全書」, 2, 권 6, 「맹자오의」, “夫理字何物 理無愛憎 理無喜怒 空空漠漠”  
5) 「論語古今註」, “以一理貫萬物 於自己善惡 毫無所涉”  
6) 「論語古今註」, “特道體至大 造端乎夫婦 而及其至也 雖聖人亦有所不知焉”  
7) 「論語古今註」, “格量度也 極知其所先後則致知也 度物之本末則格物也”

나라 삶의 구체성을 지닌 능동적인 실천행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산은 성인의 본질을 미발 심체의 명경지수에 두고자 하는 성리학자들의 이해태도를 거부한다. 그는 성인도 역시 두려움과 같은 칠정이 있고, 욕망이 있는 인간임을 강조한다.<sup>8)</sup> 실제의 삶과 역사 속에서 이상적인 인간의 원형을 발견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공자가 광(匡)의 창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형병의 말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성인도 뉘우침과 욕심이 있는 인간임을 확인한다. 그는 “만약 성인이라고 해서 뉘우침이 없다면 성인이라는 자들은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니, 무엇 때문에 흠모할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그에 따르면, 뉘우침이 마음을 길러주는[養心] 것은 마치 분뇨(糞尿)가 곡식의 싹을 키워주는 것과 같다. 그는 성인이란 초월적인 신성성을 갖춘 인간이 아니라,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그의 삶을 성찰하는 인간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그의 교육관이 매우 중대한 사상적 전회를 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는, “후세에 성인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추존해서 신이하고 황홀한 사람으로 여기기만 하고 그가 성취한 것이 어떤 일인지는 까마득하게 알아보지는 못한다. 그리고 성인은 본래 높고 신성한 존재라서 나에게는 그렇게 될 분수가 아예 없으니 성인을 흠모한들 무엇 하겠는가 하고 여긴다. 이것이 성인이 나오지 않는 까닭이며, 도가 마침내 어두워진 까닭이니, 아! 슬픈 일이다.”<sup>9)</sup> 라고 말한다. 다산은 성인은 지고의 존재이고, 내가 도저히 도달하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성인은 멀리 추상 속에 머무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재차 환기시킨다. 성인 자신도 본바탕은 많은 약점과 단점을 지닌 인간일 뿐이다. 그는 만약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성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둔한 사람은 스스로 자포자기 하게 되고, 마침내 성인을 하늘처럼 치부하여 스스로 한계를 짓고 상승의 의지를 가지지 않는 유약한 인간이 될 것으로 보았다.<sup>10)</sup> 참된 인간, 가치로운 인간은 소수의 뛰어난 현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초월적 경계가 아니라 노력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획득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성인의 모형을 조선 후기의 모순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 역사 속에서 구하고자 하였음을 뜻한다. 다산은 성인을 저 멀리 추상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성인의 뜻은 당시의 피폐한 백성의 삶을 구제하는데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적당한 사람을 얻어서 전지를 맡겨, 그가 힘을 다해서 농사하면 곡식 소출이 많아질 것이다. 곡식 소출이 많아지면 백성의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백성의 먹을 것이 풍족하면, 피폐한 자, 병자, 쇠약한 자, 어린이, 공인, 장사꾼, 우자(虞者), 형자(衡者), 목자(牧者), 포자(圃者), 빈자(孀者 : 織婦)들도 모두 그 중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인(聖人)의 뜻이다.”라고 갈파한다.<sup>11)</sup>

이렇게 그는 성인의 표준을 조선 내부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는 연경에 사행을 가는 친구가 이를 뽐내자 성인은 학문은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이른바 ‘중국’이란 무엇을 두고 일컫는 것인가. 요 · 순 · 우 · 탕(堯舜禹湯)의 정치가 있는 곳을 중국이라 하고, 공자 · 안자(顔子) · 자사(子思) · 맹자의 학문이 있는 곳을 중국이라 하는데 오늘날 중국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성인의 정치와 성인의 학문 같은 것은 동국이 이미 얻어서 옮겨왔는데, 다시 멀리에서 구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sup>12)</sup> 라고 반문한다. 그는, “성인(聖人)의 법은, 중국이면서도 오랑캐와 같은 행동을 하면 오랑캐로 대우하고, 오랑캐이면서도 중국과 같은 행동을 하면 중국으로 대우한다.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은 도리와 정치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역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sup>13)</sup> 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는 문화적 표준을 맹목적인 중화주의에서 찾지 않고 문명화의 정도에서 구하고자 하는 주체적 시각을 보여 준다. 이제 비로소 관념속의 ‘성인’이 대지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현실속의 성인으로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산이 생각하는 성인은 구체적인 역사성을 지닌, 욕망과 분노까지도 함께 하는 능위적인 인물이었다.

8) 「다산시문집」 권 13, 記, 〈每心齋記〉  
9) 「論語古今註」, 〈爲政〉 제2  
10) 「孟子要義」〈告子 第六〉 “上智生而善, 下愚生而惡, 此其說有足以毒天下而禍萬世, 不但爲洪水猛獸而已. 生而聰慧者, 將自傲自聖, 不懼其陷於罪惡. 生而魯鈍者, 將自暴自棄, 不思其勉於遷改. 今之學者, 以聖爲天, 決意自畫, 皆此說禍之也.”  
11) 「經世遺表」 권6, 〈地官修制〉, 田制 4  
12) 「다산시문집」 권13, 〈序〉  
13) 「다산시문집」 권12 〈論〉. 拓跋魏論

사랑(仁)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앞서 거론한 바대로, 그는 성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신독으로 하여 하늘을 섬기고, 서(恕)에 힘써서 인을 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다산은 상제를 정성으로 모시면 인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사랑의 이치를 이성적으로 깨우치고자 한 성리학으로부터 멀찍이 벗어난 자세이다. 그는 ‘상제(上帝)’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덕의 존재근원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다산에 따르면 상제는 “하늘, 땅, 귀신, 사람의 바깥에서 하늘, 땅, 사람, 만물의 등속을 ‘조화(造化)’하고 재제(宰制)하고 안양(安養)하는 존재이다.”<sup>14)</sup> 이렇게 인격적 유일신인 상제를 인간은 리가 아닌 영성(靈性)을 통해 서로 만나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상제를 소사하면 仁을 행할 수 있지만 태극을 헛되이 높여 이를 천으로 여기면 仁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리의 총체로서의 태극을 이해한다고 하여 그것이 사랑의 실현으로 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과 천과의 합일을 신독을 통한 事天의 종교적 경감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는 새로운 형식으로 인간과 우주간의 상관적 관계(co-relative relation)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는 ‘신독으로 하늘을 섬기고 힘껏 서(恕)를 행하여 인(仁)을 구하면서 또한 오래토록 쉬지 않는다면 이것이 성인이다’라고 단언한다. 또한 성인이란, “어렵고 고된 일은 남보다 먼저하고, 소득이 되는 어려운 일은 남보다 뒤에 하는 서(恕)”<sup>15)</sup>를 실천하는 인물일 뿐이다. 그는 심학화한 경의 공부를 통해서 성인에 이르는 길이 없다고 보았다. 리의 체인을 전제로 한 도문학과 존덕성 공부로는 인(仁)의 본질에 가까이 할 수 없고, 성인됨의 길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 후기 교육사에 새로운 학습 체계이다. 즉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란 상제를 향한 신독의 공부를 통하여, 즉 상제와 인간이 리가 아닌 영성(靈性)을 통해 서로 만나서 그 힘으로 타자를 향한 사랑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발현하는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다산의 仁學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사실은 그 실행 방식이 철저히 원시 유학적 구도 속에 있다는 점이다. 다산은 ‘인仁’이라는 글자를 字意的으로 뿔뿔 ‘인사’와 ‘이2’를 결합한 것이며, 옛 글자에서 ‘인사’자 두 개를 겹쳐서 ‘인인人人’으로 썼던 사실을 들어, 仁이란 곧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유교의 도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교제를 잘하는 것(善於際)’라고 정의한다. 인이란 추상적인 마음의 흐름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 단단하게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랑을 ‘효제’의 실현으로 이해하였다. 그가 자제들과 문족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강조한 덕목이 효제(孝弟)의 정신이다. 그는 자손들에게 효제는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사람들이 평소애 측은, 박애 등의 감정을 마음 속에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인을 행하는지 모른다고 비판한다.<sup>16)</sup>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인이란 실천을 통해 비로소 획득되는 가치덕목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마음의 이치라고 파악하는 것에서 기인된다는 것이다.

다산은 “인의예지는 행사(行事)로 얻어진 이름이지 심에 있는 이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sup>17)</sup> 단언한다. 그는 자손들에게 인의 예지란 생활 속에서 사람으로서의 할 바를 다 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임을 알려준다. 다산은 “인(仁)이란 두 사람이 서로 함께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부모와 자식은 두 사람이니 아버이를 효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인(仁)이고, 백성을 자애롭게 다스리는 것이 인이니, 목민관과 백성은 두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8)</sup> 그는 어린 선비들에게 주는 글에서 “친친(親親)은 인이요, 존존(尊尊)은 의(義)이며, 장장(長長)은 예(禮)요, 현현(賢賢)은 지(智)이다.”<sup>19)</sup> 라고 하여, 인의예지도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형성되는 덕목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다산은 인의 상태가 날 것 그대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사랑의 실현도 예와 악과 같은 그릇 속에 담겨야 할 것으로 보

14) 「全書」, 第二集 經集 第三十六卷, 春秋考微四, 凶禮, “上帝者何. 是於天地神人之外. 造化天地神人萬物之類. 而宰制安養之者也.”  
15) 「論語古今註」, 雍也, “艱苦之事先於人 得利之事後於人 則恕也”  
16) 「茶山詩文集, 書」〈答李汝弘〉 “至於仁字, 並其平日之所識認, 亦確然以爲在內之理, 而孝於親, 忠於君, 篤於友, 慈於民, 凡人與人之相與者, 別自爲德, 不似爲人. 其平居想念, 惟惻隱博愛等數句, 往來心上, 冲融葱蒨, 恍惚髣髴, 若見有愛人生物之象, 而實不知如何八頭, 可以居仁, 如何下手, 可以行仁.”  
17) 「茶山詩文集, 書」, 〈答李汝弘〉, “智者 謂能辨別黑白 可云有知耳 老子曰 知其白守其黑 知其白者 智也 由是觀之 仁義禮智 皆以行事得名 不可曰在心之理.”  
18) 「論語古今註」〈學而第一〉 “仁者, 二人相與也. 事親孝爲仁, 父與子二人也 事兄悌爲仁, 兄與弟二人也 事君忠爲仁, 君與臣二人也 牧民慈爲仁 牧與民二人也.”  
19) 「茶山詩文集」 권 12 (箴), 敬己齋箴

있다. 그의 놀라운 문명식이다. 다산은 참다운 성인이란 질(質), 즉 착한 바탕만을 기르는 것에 오로지 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여기가 바로 교육이 관여할 부분이다. 다산이 기다리는 성인은 문(文), 즉 예악으로써 꾸밀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주나라 이후, 그 “문(文)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덕교, 예악, 전장, 법도가 다시 흥성할 수 없어,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하고, 교체(郊締)는 교체(郊締)답지 못하고, 조종(祖宗)의 종통은 조종답지 못하게 되어, 질서가 무너지고 도리가 어두워져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된 것”<sup>20)</sup>으로 파악하였다. 즉 인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출 때 비로소 완전함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이 망하면 질 또한 온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옛날에는 그 문을 이루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그 질에 힘써야 하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 그 질을 돌이키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그 문을 닦아야 하는 것”이다.<sup>21)</sup>

그는 질만 있고 문이 없는 자는 야인(野人)이 됨을 면하지 못하고, 질만 있고 문이 없는 나라는 인이(仁夷)가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의 시대에는 아학(雅學)만 아니라 속학(俗學)도 함께 공부할 것을 요구한다.<sup>22)</sup> 그는 앞의 성리학자들이 질만을 숭상하여 국가가 쇠락하고, 교육이 무너져 내란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교육의 개혁을 법제와 전장의 개선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도 이러한 인식의 소산이었다. 그는 명백하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에 적합한 성인(聖人)상을 유교적 전통 속에서 새롭게 창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대의 성리학에서의 성인이 심학적 모형이라고 한다면, 다산의 성인관은 행사(行事)적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산의 시점에서 본 오늘의 교육

학교의 본래적인 존재의의는 무엇인가? 학교는 인간의 삶을 고양시키고 존엄성을 긍정하며 자연과 세계에 대하여 화해의 정신을 길러 주는 것에 그 주된 설립 이유가 있다. 학교가 비인간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인간을 세계로부터 소외시키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자연과 세계와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며 인격의 존엄성과 존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학교는 비록 그것이 사회 발전을 위한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교육에서의 비인간화 현상은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근대화를 뒷받침한 발전 교육학은 상업적 가치와 국가적 부의 확대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으나, 인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는 소홀하였다. 교육을 단순한 자본재로 취급하는 오늘날의 일반적 인식은 이제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산이 제시하는 교육의 목표는 매우 깊은 울림을 준다. 그의 교육목표를 보여 주는 성인관은 매우 능위적이며 실천적인 지식인상을 드러낸다. 유가에서는 인간 존재 그 자체가 모든 이데올로기, 규범, 가치, 사상을 넘어서는 상위 개념이다. 다산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공자가 “인능홍도(人能弘道), 비도홍인(非道弘人)”이라고 할 때 이는 도로 지칭되는 일체의 이데올로기, 사상, 윤리, 규범 등이 인간 자신을 구속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즉 모든 이념과 가치는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조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출된 종속물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의 존재 근거가 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인간 자신임을 갈파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 유가적 휴머니즘의 독특한 면모가 있다. 도란 인간이 찾아야 할 구원(久遠)의 빛이요 로고스임은 틀림이 없으나, 이것이 구체적인 인간의 삶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경직된 신념 체계로 전락하면 전도된 허위의식으로 변질될 것임을 밝게 드러내고 있다. 다산은 원시유가로의 복귀를 통해 이 점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의 상위 개념으로서의 인간도 인의 실현이 없으면 공허함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유가의 주장이고 다산의 지론이다. 논어에서 “사람이 인하지 않으면 예는 무엇에 쓰며, 사람이 인하지 않을 때 낙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유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곧 인의 실천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산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仁)이란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20) 「論語古今註」〈雍也 下〉  
21) 「論語古今註」〈雍也 下〉  
22) 「다산시문집」권 20, (書), 上仲氏

사람들의 관계(際) 속에서 최선의 조화를 이루는 행위라고 하였다. 주체로서의 나와 타자로서의 세계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만남을 이룰 때 비로소 사랑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산의 이러한 ‘관계’의 철학은 지금의 학교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지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다산의 일련의 기획에서 새롭게 조망되어야 할 한계점은 없는가? 우리는 앞에서 다산의 철학에서 종래의 천일합일적 세계관이 일정 부분 손상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칼튼(M.C.Kalton)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다산은 유학의 우주 인간동형론적(Anthropocosmic) 사고를 폐기하였다. 그는 또한 자연과의 조화와 인간세상의 전체적인 균형과 질서를 꿈꾸는 전체주의적 시스템적 세계관(holistic systems world view)을 해체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명백하게 인간과 우주를 이기론적 체계로 융합한다던가, 오행론의 형식으로 통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관념적이고 비합리적 방식이라 하여 적극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한 논문에서 그가 일종의 국가론적 유비(state analogy)를 통해 강력한 현실적 군주를 끌어 들이면서 천과 인간의 상호 화육을 시도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sup>23)</sup> 이것은 다산의 과잉된 정치의식이 빚어낸 국가우선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한다.

23) 즐고, 「다산에 있어서의 천과上帝」, 「다산학」 통권 9호, 2006.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 Pedagogical Reflection on Dasan's View of Sage

### Are there new alternatives to Korean education?

The new education began from opening of port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has left clear upside and downside to the Korean society. It was "education" that drove South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unprecedented in the world history. Education enabled South Korea to successfully achieve two goals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that also were the top social priorities. Based on education, the South Korean society was able to constantly procure high-quality talent fit for an industrial society and escape the nightmares of underdeveloped phase. The inequality inherent in the traditional caste society was dramatically reduced. Education also provided opportunity for people to learn the universal values and norms to be acquired by a more mature modern society. In the course, South Korea's schools and education made enormous external growth in terms of quantity. This is a "modern achievement" brought on by "education zeal" unique to the South Korean society.

That being said, the quality of modern education is overshadowed by these bright sides. South Korea's education is currently suffering from its overly competitive system. Schools rather than being a space filled with joy have become a place dominated by competition, pain and tension. Soulless and dull school life, tests and competition that stress out students and the bleak reality waiting students after graduation have turned school into a place of pain. Today's modern schools rather than representing a space for reflecting life has been reduced into an efficient organization fit for competition. Thus, school education is currently producing a majority of members ostracized from the system and countless students that are isolated even from knowledge itself. People in regards to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lament that it is not longer just "uninstructive" but "anti-educational."

The conflict and contradiction embedded in the South Korean society is not a recently emerged problem but the result accumulated in the course of history. Since the time of enlightenment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modern framework of the South Korean education system was established under the deep influence of western theories and the subsequent mutual interaction. The model of modern education in South Korea embodies the mechanistic world view that had been at the heart of western modern education since Descartes. With the progress of westernization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mainstream of the nation's education theory became one emphasizing scientific values and efficiency. A model focused on development and growth took the center stage when setting education goals. Instead of perceiving human beings as organic beings, Cartesianism only highlighted them as being capable of rational thinking. Thus, man began to be isolated from nature and started to forget how to interact and cooperate with the countless organisms in nature.

The attitude of perceiving the subject and the object to be in a dualistic conflict has long been rejected by the traditional Korean education. Educational facilities such as Confucius lecture halls and village schools were positioned to ensure the harmony of man and nature and the internal space was also laid out to help students discover the laws of nature. The external space surrounding school was also laid out to ensure the mutual interaction of man and nature in the most optimized state. That is, spaces were designed to allow students to be immersed in nature and gain a sense of spiritual liberation. Schools were understood as a space not restricting and strangling students' lives but as the repository, playground and shelter that grant spiritual freedom. Thus, the most crucial function of schools was to serve as a free space that enables students to "be liberated from

worldly affairs and relax their minds." Moreover, the education goal of our ancestors were centered on preserving the heavenly principles (存天理). Each individual was educated to use learning as a medium and participate in cosmic order. Also embedded was the insightful cultural traditional that sought to "elucidate morality" between men and to resolve conflicts. The world view of the aristocrats of the Joseon Dynasty is fundamentally founded on holistic thinking. In the academic theory of aristocrats, the physical world existing as fact and the humane world existing as mandate were combined, rather than being distinguished as in modern knowledge system. Their academic theory is founded on the belief that knowledge as natural principle (所以然) and virtue as ethical principle (所當然) converge through the medium of li (principle or order, 理).

Here, Dasan raises an interesting objection. He denies the traditional Neo-Confucian concept of combining the two dimensions of physical and humane worlds. The Neo-Confucian theory that human personality can be completed by combining the two-dimension worlds is rejected by Dasan. The logic - that the righteous way which guides people's lives and the physical law which rules the nature move in the same pattern - has long been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s holistic thinking. Then, why did Dasan deny the long-cherished aspiration of the convergence of man and nature and the harmony of subject and object? Overcoming the conflict between self and others and between man and the world and pursuing harmonious coexistence are objectives that must be met in today's South Korean education as well. How is Dasan preaching about this matter? This paper seeks to review the topic by focusing on Dasan's view of sage.

### Ideal man envisioned by Dasan

Zhu Xi said "Sages and heaven are the same." The succinct phrase describes the convergence of man and nature. It reveals the ideology of man finally uniting with the goodness of nature after having recovered his intrinsically good nature. Taking one step further, Zhu Xi said, "Sages become one with li." That is, sages are those with lucid understanding of truth. Dasan squarely refuted Zhi Xi's teaching. Obviously, Dasan also thought that the ultimate objective of education lies in producing sages. First, he made it clear that sages are those who have completed their personality and virtue. In that sense, his thoughts are no different from other Neo-Confucians. However, the meaning and value of virtue that he preached and the way of achieving it are strictly different from those of Neo-Confucians. In his Essay of Five Learning, Dasan held that it is impossible to reconcile with Neo-Confucians and become a pupil of sages like Yao and Shun, Duke of Zhou or Confucius. He criticized the fact that Neo-Confucians denounce utilitarianism and the study of forms and names, and pursue pendency by calling themselves as hermits in the mountain.

Dasan cited three reasons why the spiritual realm of sage cannot be achieved by Zhu Xi's Neo-Confucianism: First, it calls heaven li; second, it considers human as the li that gives lives to all objects, and third, it calls moderation as the normal state. On his part, Dasan preached that in order to be a sage, you must: First, worship heaven with abstinence; second, achieve ren (benevolence, 仁) by pursuing generosity; third, always be consistent.

Dasan believed that the moment heaven is translated as li, heaven's presiding authority over good and evil disappears. To him, li is "empty and vague and is without love, hate, joy, anger, name or decorum." Dasan criticizes the learning method of Neo-Confucianism by citing that li is void of substance. That is, it is overly abstract to pursue virtue through li as it is like a wandering ghost. "While people say all objects can be understood

with li, li is irrelevant with the good or evil of one's own actions." According to Dasan, by turning heaven into an abstract li which is void of substance, heaven's authority to supervise people's good and evil has vanished.

One of the boldest attempts made by Dasan was one aimed at nullifying Zhu Xi's theory of investigation of things (格物說). Easily put, he tried to tear down the very ideological stronghold of Neo-Confucians. He has fundamentally rejected the basis of studying Zhu Xi's Neo-Confucianism. By denying the theory of investigation of things, Dasan has erased the perceptual foundation of li. He denied the eight categories in Zhu Xi's Great Learning and proposed that they should be called the six categories of ghezi (格致). Dasan explained that gewu (investigations of things, 格物) and zhizhi (extension of knowledge, 致知) should be excluded from the eight categories and that ghezi (格致) should be understood as having sequential and cause-and-effect relationship with rest of the six categories. Dasan denied the existence of li in gewu and that there is no such state as having insight into the interconnectedness of things (豁然貫通). Dasan held that if a sage like Confucius failed to experience the state, then "there are sides to the extreme level of dao (the Way, 道) that we do not know." Gewu is "fathoming and measuring." Therefore, gewu is "fathoming and measuring that there is order to everything" while zhizhi is nothing more than "knowing precisely what to do first and then next." For instance, knowing the sequence and the cause-and-effect of ruling a nation (治國) is the essence of ghezi, and the fundamental of ghezi is the action of understanding the sequence and the cause-and-effect of regulating one's family (齊家).

This represents a remarkably transformative thinking. Until then, scholars preached that the physical world and the humane world were combined using li as the medium and li was the medium that justified the convergence of the two worlds of natural and ethical principles, and Dasan sought to have the link shattered. By breaking that link of li, Dasan tried to reveal the fact that knowing is not an abstract action of perceiving but an actively practiced action embodied in life. Thus, Dasan was opposed to Neo-Confucius understanding that the essence of sage lies in the clear and serene mind (明鏡止水) of weifaxinti (未發心體). He stressed that sages are also human bearing seven emotions and desire. His attempt was to find the ideal prototype of human amidst real life and history. Dasan squarely denied Xing Bing's teaching that Confucius did not feel afraid even when threatened with a spear in Kuang, and confirmed that sages are only human capable of repenting and desiring. "If sages do not repent, then they are not in the same category with us and thus have no reason to be admired," he refuted. According to Dasan, repenting nurtures one's mind just as feces and urine help the budding of crops. He defined a sage as a human being that regrets, repents and reflects on his life, rather than being a human being with transcendent sanctity. It signifies that Dasan's view of education has taken a very important ideological turn.

"Future generations that speak of sages all honor them and consider them as mysterious and magical beings, and are unable to understand their achievements. Then, they conclude that there is no point in admiring them because sages are innately divine and they can never reach such a state. That is why there are no sages these days and dao is finally darkened. Ala, this is regrettable," Dasan said. Dasan denied that sages are divine beings and are at a level that one cannot possibly reach. Dasan reconfirms that sages are not some abstract beings but people that we can look after through education. Deep down, sages are only human with countless weaknesses and shortcomings. Dasan held that if one considers that only the brightest and wisest can become a sage, then he will eventually give up, and identify sages with heaven, which will limit him and reduce him into a weak being without the strong will be improve himself. Dasan held that true and valued beings are made in the course of life's endeavor, rather than

existing in some transcendent boundary that only a limited number of brilliant wise men can reach.

His thoughts reflect that Dasan sought to find the model of sages within the living history capable of overcoming the contractions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producing an alternative. Dasan was against sages being left as faraway abstract beings. He made it clear that the intention of sages is to salvage the impoverished lives of people. "When proper men are found and placed in charge, they can devote to farming and help produce more crops. More crops mean more food for people, and more food for people means everybody including the impoverished, the sick, the weak, the young, traders, merchants, those with worries, shepherds and farmers will all have food. That is the intention of sages," Dasan preached.

As such, Dasan sought to find the model of sage within Joseon. When a friend boasted that he is dispatched to Yenching, Dasan held that the learning of sages has already arrived in Joseon. "Where is the place that we call China? China denotes the place where the politics of benevolent rulers of Yao, Shun, Wu and Tang exist, and the place where the teachings of Confucius, Yan Hui, Zisi and Mencius exist. And which place today can be called China? Joseon has already acquired the politics and teaching of sages, so what is the need to look for something so far away once again?" he questioned. "According to the rules of sages, you are treated as barbarian even you are Chinese but act like barbarian, and even barbarians are treated as Chinese when they act like one. The difference between Chinese and barbarians is not determined by location but by the existence of virtue and good politics," Dasan reminded people. He reveals his independent perspectives that seek to find cultural standards not in blind Sinocentrism but in the level of civilized state. Sages that only remained in thoughts have finally begin to listen in real life to the world's pain. The sage that Dasan pursued was dignified being that has specific historicity and shares people's desires and anger.

### How is love (仁) realized?

As mentioned already, Dasan preached that you can become a sage by worshipping heaven with abstinence and achieving ren by pursuing generosity. Dasan said people can achieve ren by sincerely worshipping god. His attitude shows that Dasan distanced himself from Neo-Confucianism by logically understanding the way of love. He reinterpreted "god" to newly define the fundamental existence of virtue. According to Dasan, god is a being that "Exists outside of heaven, land, ghost and people and strikes balance, rules and comforts heaven, land, people and all objects." He saw that people should meet with the one and only god having personality not through logic but through spirituality. He preached that "People can achieve ren by worshipping god, but if they deify the ultimate extremes in vain and regard them as heaven, no ren will be achieved." In other words, just by understanding the ultimate extremes as the whole of li, this does not transform into practicing love. He sought to find the convergence of man and nature in religious warmth stemming from worshipping god with abstinence. Dasan sought to recover the co-relative relation between man and universe in a new format. "If one does not stop his effort to worship heaven with abstinence and achieve ren by pursuing generosity. then he is a sage," Dasan declared. And sages are "merely people who practice generosity by doing difficult and painful tasks before others and doing profitable but difficult tasks after others. Dasan preached that there is no way to become a sage by being devoted in study that is only focused in self-discipline. That is, you cannot go close to the fundamentals of ren (仁) nor become a sage by being committed to self-discipline and respecting virtue under the precondition of



learning li. This was a new learning thesis that emerged in the education history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at is, Dasan preached that the most ideal education is to study the abstinence towards god so that in the course of life, god and men meet not through li but through spirituality and use that power to consistently practice love towards others.

Another noteworthy teaching of Dasan with respect to education is that it is practiced based strictly on the ancient origins of Confucianism. Dasan held that the word ren (仁) is literally created by combining 人 and 二. Since two 人 were combined and expressed as 人人 in the ancient Chinese alphabet, Dasan held that 仁 is expressed from the relation between a man and another man. Dasan defined dao in Confucianism as "having a good relationship between men." He thought that ren is not an abstract flow of mind but should be solidified in specific human relationship. To him, the most basic and specific form of love was the spirit of filial piety and brotherly love (孝弟). The virtue that Dasan emphasized most frequently to his children and underlings was the spirit of filial piety and brotherly love. Dasan stressed the fact that this is the very basic action of practicing ren. He criticized that although people learn emotions such as pity and charity in everyday life, they do not know where to start and what actions should be taken to practice ren. The reason is because people neglect the fact that ren is a virtue that is ultimately accomplished through action and understand it as merely as the mind's logic.

Dasan declared that the four cardinal virtues (ren, yi, li, zhi, 仁義禮智) can be achieved from action, and are not some logic that exists in mind. To his descendants, Dasan taught that the four virtues are created when people fulfill their duties in real life. "Ren is about two people being together," Dasan stressed. A parent and a child make two people and thus, sincerely respecting his parent creates ren. Ren is also tenderly governing the people, because there are two sides - the ruler and the people. To young aristocrats, Dasan wrote, "Ren is being close with people that you should be close to, yi is respecting those who deserve respect, li is looking up to the elderly and zhi is being gentle with those who are benevolent," to teach them that the four virtues are also established amidst human relationship.

Dasan preached, however, that the state of ren should not be expressed in raw form. Dasan thought that the practice of love should also be contained in a vessel such as decorum or art. This shows his surprising sense of civilized consciousness. To Dasan, sages must not just focus on nurturing the basics, or virtuous fundamentals. That is where education should intervene. The sage that Dasan awaited was someone who can decorate with wen (culture, literature, or writing, 文), or decorum and art. He said, since the Zhou Dynasty, "That wen has fallen, and moral education, decorum and art, culture, and custom can no longer flourish. Thus, kings no longer befit kings, children no longer befit children, vassals no longer befit vassals, fathers no longer befit fathers, rituals no longer befit rituals, and the ancestors of rulers no longer befit ancestors, resulting in the collapse of order and darkening of the right way beyond recovery." That is, ren can be obtained in complete form only when capable rules and systems are in place. Upon the collapse of wen, the basics can no longer be intact. According to Dasan, "In the past, people strived to achieve the basics in order to accomplish wen, but that is no longer the case these days, and if we want to recover the basics, then it is only natural to pursue wen."

Dasan warned that those with the basics and not with wen cannot help but being barbarians, and those with wen but without the basics cannot escape being benevolent barbarians. He preached that in his times, people should learn practical knowledge, and not just for self-discipline. Dasan seems to have concluded that

the preceding Neo-Confucians' sole focus on the basics resulted in the decline of Joseon Dynasty and the collapse of education. Due to the perception, he held that education should be reformed by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His intention was to newly create from Confucian tradition the model of sage fit for the new age and new education. Therefore, whereas the sage described in Neo-Confucianism was a model for self-discipline, the sage preached by Dasan was focused on action

### Today's education observed from Dasan's perspective

What is the fundamental reason that schools exist? The main reason schools are established is because they help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fe, affirm the sense of dignity, and nurture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of man and nature. Schools should not be a space that diminishes humanity and excludes man from the world. In addition, if schools promote the constant conflict of man and nature, and deny people's dignity and the justification for their existence, such schools must be corrected, even if their system maximizes efficient social development. If education diminishes humanity, then that is a problem that must be approached with wariness. In that sense, the development-focused pedagogy that has supported South Korea's modernization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increasing commercial values and expansion of national wealth but failed to pay attention to people's inner voices. Today's general perception that treats education simply as capital goods should now be dispelled.

In that sense, the ultimate goal of education presented by Dasan resonates deeply with us. His view of sages which reflects his education goals is very proactive and reveals a model of intellectuals who take action. In Confucianism, the very existence of man stands above all ideology, norms, values and belief. That is no exception to Dasan. When Confucius preached that "it is human beings who are able to broaden dao, not dao that is able to broaden human beings," his intention was to firmly maintain that no ideology, belief, ethics or norm collectively expressed as dao should bound or suppress human beings. That is, Confucius declared that all ideologies and values are merely created as the means of making people's lives richer and more balanced, and their very reason for existence lies in men themselves. This is humanism unique to Confucianism. It clearly stated that while dao certainly is the light of salvation and logos that all men must seek, once it is reduced to a rigid belief system that distorts and oppresses people's lives, then it has been degenerated as reversed and false awareness. Dasan by returning to ancient origins of Confucianism has made that point clear.

In addition, it is Confucius' belief and Dasan's cherished opinion that even though human beings exist as the super ordinate concept above all things, their lives are empty if they fail to obtain ren. The phrase "If we do not pursue ren, what use is decorum (禮), and what use is art?" written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succinctly shows that the ultimate value pursued by Confucianism is the practice of ren. Dasan takes one step further and preaches that love (ren) is not an abstract discourse but an action that strikes the best balance among the specific relations between people. He thought that love is finally realized when the self as the main agent and the world represented by others encounter in the most beautiful state. Dasan's philosophy of "relationship" is an important intellectual legacy that today's schools must recover.

Then, are there any limitations in the series of Dasan's thoughts that deserve revisiting? As already mentioned, the existing world view of the convergence of man and nature was somewhat tarnished in Dasan's philosophy. As pointed out by M. C. Kalton, Dasan has abandoned the antropocosmic vision of Confucianism. Moreover,

Dasan seems to have dissolved the holistic systems world view which seeks the harmony of nature and the overall balance and order of the human world. Dasan squarely rejected all attempts to converge man and universe under the Theory of LiKi (理氣) or to ensure unison in the form of the Theory of Five Elements (五行論) as he thought they were ideational and irrational. However, the author's another paper sought to elucidate that Dasan in a form of state analogy attempted to nurture man as well as nature by citing a powerful ruler in real life. This seems to be the result of his state-centric view produced by Dasan's excessive political awareness.



Sustainable Development,  
Ask Jeong Yak-Yong



박노자 | 오슬로대학교 인문학부 문화연구 및 동양언어학과 정교수

• 前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러시아어과 강의전임강사

### 다산, 개인과 실용의 발견

다산의 학문이 개화기에, 장지연과 박은식 같은 개신 유림들에 의해서 재발견됐을 때에 그 주된 매력은 무엇보다 그 속에서의 '근대성'으로 이해됐다. 1970-80 년대에, 재야 지식인들이 다시 다산으로 눈을 돌렸을 때에 역시 일차적으로 실학의 집대성자인 그 글 속에서의 '근대적 개념'들은 재발견의 대상이었다. 예컨대 다산의 유명한 <湯論>은 일종의 "민주주의에 대한 제안서"로 읽혀지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 텍스트를 시대적 맥락 속에서 보자면 차라리 상고(上古)에 대한 전형적인 유교적 이상화의 차원에서 "아래로부터의 정치"라고 인식됐던 한나라 이전까지의 정치와, 그 후의 중앙집권적 정치가 매우 조심스럽게 비교됐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다산의 글 속에서 근대적 민주주의를 찾기가 힘들어도, 넓은 의미에서는 다산이 근대적 가치들과 일맥상통하는 담론들을 분명히 생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다산의 신독(慎獨) 개념은 칸트 이후의 근대적 '양심'의 이해와 충분히 비교 가능하다. "人每靜坐其室, 默念自己所爲, 油然良心發見"라고 하여 내면 속에서 보편적인 절대자인 천(天)을 섬기면서 자신의 대타적 행동에 대한 양심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근대적 "개인의 발견" 내지 "내면의 발견"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 다산의 실용주의적 태도는 탈중세적 지향성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Pak Noja (Vladimir Tikhonov) | Professor, Humanities Department of Culture Studies and Oriental Languages, Oslo University, Department of Cultural Studies and Oriental Linguistics

• Former Lecturer, Department of Russian, College of Foreign Language &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 Dasan: Discovering Individual, Discovering Pragmatism

When Tasan's writings attracted the attention of such reformist Confucians as Chang Chiyôn or Pak Ūnsik in early modern Korea, it was mainly due to what reform-minded contemporaries saw as Tasan's anticipation of modernity. In 1970's South Korea, democracy-loving intellectuals tended to view Tasan's famed T'angnon as an evidence of great thinker's advocacy of some sort of proto-democratic order, although the treatise basically just cautiously compares what Tasan considered a down-top political mores of the idealized Chinese antiquity with firmly top-down, centralized regime of post-Han Dynasty imperial China. Still, even without making too far-fetched claims, we do find some traits broadly reminiscent of certain Enlightenment-age European developments in Tasan's thinking. Tasan's understanding of the Confucian virtue of "being watchful over oneself and being prudent even in solitude" (sindok) implies the focus on individual's internal world comparable to the Kantian vision of individual conscience. Tasan's generally pragmatic attitude towards life and learning, his professed anti-dogmatism may also be seen as an indication of certain post-traditional epistemological shift.

## 다산, 개인과 실용의 발견

“原來慎獨云者，謂致慎乎己所獨知之事，非謂致慎乎己所獨處之地也。人每靜坐其室，默念自己所爲，油然良心發見。此所以瞻其屋漏而發其愧悔，非謂屋漏所臨之地，毋敢行惡也。人之行惡，每在於與人相接之處，其或行之於暗室者，唯有偃臥淫褻之咎而已，所謂慎獨，豈唯此咎是慎哉。今人認慎獨二字，原不清楚，故其在暗室，或能整襟危坐，而每到與人相接之處，施之以鄙詐險詖，謂人罔覺，謂天罔聞，所謂慎獨，豈如是非乎。”

《心性總義》，〈心經密驗〉

## 근대가 재발견한 다산: 합리적 «정학» (政學)의 大家

▶ “嗚呼라 我國에도 李星湖는 憲法意味를 發하고 丁茶山은 政學主旨를 扞하얏시니 專制下에 在하여 他人의 夢想不到의 說을 說하은 人類界研究에 起見하이러 然則 彼兩先生은 別書를 讀한 것은 안이라 幼而天地玄黃과 次而天皇水德과 又 次而初命晉大夫 固是一般이나 如彼하여 卓見을 養成하여 我東의 特色을 作하니 人의 知識은 書籍에 不在하고 研究에 在하다 ”

李喆柱, «研究», 〈기호흥학회월보〉, 제12호, 1909년7월, 6-7면

“정치학자»로서의 다산의 근대적 위상은,  
«도학자»와도 «문학자»와도 본질상 달랐다.

▶ “道學家는 金佔畢 宗直 金寒暄 宏弼 鄭一蠹 汝昌 金河西 麟厚 李晦 齋彦迪 諸先生은 世가 五賢이라 稱하고 趙靜庵 光祖 李退溪 滉 李栗谷 珥 三先生이 我東 儒賢에 最히 光明俊偉한 宗師오.

成牛溪 渾金沙 溪長生 金慎獨 集宋尤庵 時烈 宋同春 浚吉 諸先生이 皆一代 儒門 宗匠이오 政治學은 潘溪 柳馨遠과 潛谷 金堉과 茶山 丁若鏞 諸氏의 著述이 皆經世의 必需한 大手筆이오.

▶ 文章家는 谿谷 張維 澤堂 李植 月沙 李廷龜 象村 申欽 東阜 崔崧 五山 車天輅 燕岩 朴趾源 淵泉 洪奭 周沆 濯洪 吉周 臺山 金邁 淳諸氏가 詞林 宗匠이오 大家 筆法이라.”

一惺子, «我韓教育歷史», 〈서우〉, 16호, 1908년3월, 3-8면

<황성신문>, 동시에 茶山을 “我國經濟學大先生”으로 칭송했다. 전근대적 “경세”는, 이렇게 해서 “정치학”과 “경제학”으로 분리되고 다산은 兩 분과 학문의 大家로 이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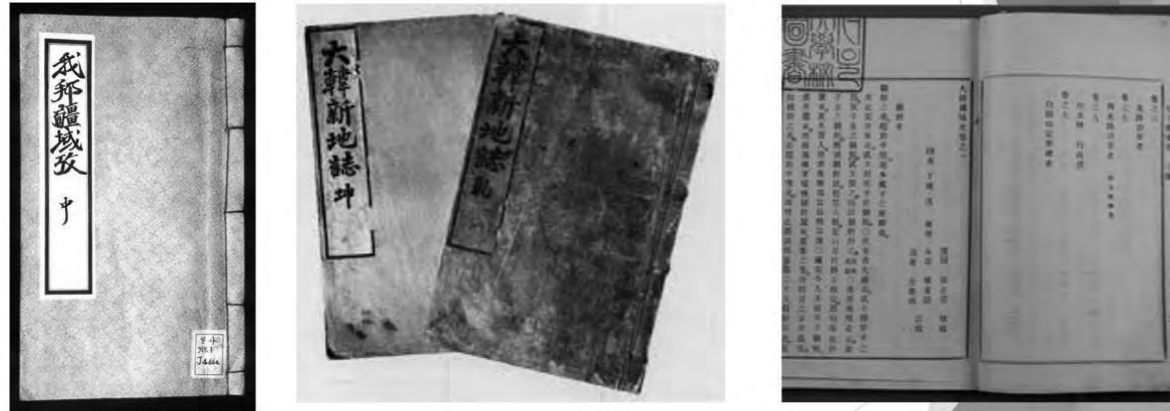
▶ <황성신문>, 1903년4월14일-4월28일간 <我韓疆域考> 연재.

▶ 1903년4월14일 <我韓疆域考> 논설:

▶ “不可不 先明乎 疆域之分 而我韓은 自在古昔으로 分割이 無常하고 沿革이 不一而但 文獻이 無徵에 史志脫略하야 後之談史者 各主臆見하며 傳會疑似하야 雖不無偶合이나 要之 謬解居多일어 余每以是爲病하야 有志於 攷辨이 久矣러니 今得 茶山 丁先生 若鏞氏 所著 疆域考 一書하야 玩繹一通에 最爲 綜核明瞭하야 爲本國地志之集成而大有 補於 史誌之學也라 余는 故로 取其中 疆域大概하야 參以 諸他先儒之著述하야 敢以 愚見으로 左右 錯綜에 增刪成文하야 以便 諸君子之 攷閱하노니 博雅 研古之君子난 庶或有 參証而 究解에 否아”



특히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등 «本國學» 관련 다산의 저술들이 구한말에 자주 인용되곤 했다.



다산에 대한 개화기 개신 유림들의 “상식”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매천 황현의 평가:

- ▶ “그 [다산]는 유배된 후 아무 할 일도 없었으므로古今을 연구하고 민생문제와 국가대계에 유념하여 토론도 하고, 저술도 하였다. 그는 근본적인 것을 규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문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후세의 법이 되었던 것이다.
- ▶ 그중에서 <牧民心書>, <欽欽心書>, <邦禮艸本>, <田制考>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동방에서 공전절후의 작품이며 磻溪柳馨遠과 星湖李瀾의 학문에 비해서 더욱 큰 업적을 남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 『梅泉野錄』 제1권 上(1894년 이전), 13.



일제강점기: 최남선: <朝鮮歷史講話> (1930)에서 처음으로 “實學의 風”을 명명한다. “[민족적] 自我라는 사상이 鮮明해지면서 조선의 本質을 알고 實際를 밝히려는 경향이 날로 깊어져 [...]”. 茶山 - “실학파의 최고조”로 자리매김된다.



일제강점기: 현상윤: 茶山을 “위대한 유림”으로 보면서 동시에 “실학파”로 규정하며, 무엇보다 그의 “정책론”과 “지리서”를 강조했다. 동시에 탄압을 피해야 하는 다산이 “자유스러운 사상”을 마음대로 서술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동아일보>, 1935년7월16일, “李朝 儒學史上의 丁茶山과 그 位置”



일제강점기: 김태준: 「진정한 정다산 연구의 길」( <조선중앙일보>, 1935.7.25~8.6 연재) - 다산의 토지 공유론 강조



五十生男一歲加嶺  
山晚慶喜無涯如玉  
如金真可貴無災無  
害最堪誇惟嗣箕裘  
希往哲肯同世俗逐  
虛華曰君英特成季  
後母負吾人翹望耶

▲ 김태준의 글씨

일제강점기: 백남운: 茶山을 그 당시 사회의 문제들을 깊이 인식한 반항적이며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서술하며 그 천주교 입교 등 “구미사상”과의 접점들을 강조했다. <동아일보>, 1935년 7월 16일, “丁茶山의 思想”



남북한의 茶山: 북한에서 김일성의 1955년 “주체연설”에서 언급되며,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진보적 사상가”로 널리 국역, 연구, 대중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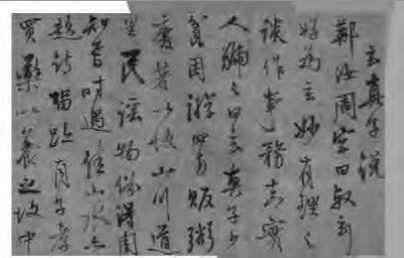
- ▶ 최익한(崔益翰): 『실학과와 정다산』(1955): “실학 사상, 학설이 그 시대의 역사발전과 인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실리와 실용성 있는 학문”. 한데 다산의 “관념론”도 언급함.
- ▶ 『정다산: 탄생 2백주년 기념논문집』(1962): “유물론적 철학세계를 수립하고 사회발전에서 생산력의 발전이 미치는 주요한 역할에 착안한 진보적 사상가”
- ▶ 김석형 원사의 다산 평가: “조선의 마르크스”, 조선노동당의 노선만이 다산 사상을 올바르게 규명했다고 논급.
- ▶ 1970년대: 약간의 평가절하 (“기본적 입장은 지배계급”)
- ▶ 1980년대 이후 다시 평가 절상 (“자본주의적 요구를 반영한 애국적 사상”)



남북한의 茶山: 남한에서 천관우 등은 “근대 지향”과 “민족 지향”을 실학 여부의 기준으로 여겼다. 다산의 “민주 지향” (“湯論” 등)은 재야로서 매력적이지만, “근대지향적 실학” 서술은 제도권의 “조국 근대화”와도 공명하는 면이 있었다.



茶山의 학문: “근대”를 예시하는 면은 있었다 해도 근본적으로는 유교적 修己齊家治國과 經學을 본위로 했음.



▶ “志學必須先立根基。根基謂何。曰惟孝弟是已。先須力行孝弟以立根基。則學問自然浹洽。學問既浹洽。則讀書不須別講層節耳” (寄二兒 壬戌十二月廿二日康津謫中: <여유당전서> 第一集詩文集第二十一卷○文集 > 書)

▶ “鏞在謫十有八年。專心經典。所著詩書禮樂易春秋及四書諸說共二百三十卷。精研妙悟。多得古聖人本旨。” (自撰墓誌銘 壙中本: <여유당전서> 第一集詩文集第十六卷○文集 > 墓誌銘)

茶山의 유명한 1817년 井田制 안은 물론 그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의 독자적 發案이었지만, 그 立案의 주된 논거 역시 經典이었다.



▶ “井田者。聖人之經法也。經法。可通於古今。利行於古而不便於今者。必其法有所不明而然。非天下之理。有古今之殊也。今言井田不便者。其大端有二。其一曰地勢不便。其一曰民數無恒。斯皆不深考乎先王之制而麤爲之說者也。 (...) 天下之理一也。今人之所必不能。亦堯舜三王之所不能。堯舜三王之所已能。亦今人之所必能。豈有疑哉 (...) 聖人而迂闊。孰爲縝密。聖人而嘗昧。孰爲疏明。信道篤。無往而不釋然也”



茶山은 보다 넓은 인재 등용을 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종래의 신분제를 대체로 긍정했으며 오히려 그 문란을 경고하곤 했다.

- ▶ “옛날에 천하 국가를 다스리던 자에게는 네 가지의 대의(大義)가 있었으니, 첫째 친친(親親), 둘째 존존(尊尊), 셋째 장장(長長), - 바로 노로(老老)이다. - 넷째 현현(賢賢)인데, 친친은 인(仁)이고, 존존은 의(義)이며, 장장은 예(禮)이고, 현현은 지(知)이다. 친족(親族) 이외에는 벼슬 [爵] - 나이 [齒] - 덕(德)으로 삼달존(三達尊)을 삼는 것이 고금의 통의(通義)이다.
- ▶ 이른바 존존이란 입사(入仕)하여 군자(君子)가 된 자는 그 지위가 존귀(尊貴)하고, 조업(操業)하여 소인(小人)이 된 자는 그 지위가 비천(卑賤)한 두 등급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군자의 자손은 대대로 도를 지켜 문장(文章)을 짓고 예를 행하므로 비록 입사하지 않았다 하여도 귀족(貴族)이니, 저 농민의 자손이 어찌 감히 공경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1등으로 분별해야 할 일이다.
- ▶ 향승(鄕丞)이 비록 사환(仕宦)은 아니나 본현(本縣)에 살면서 대대로 수령의 정사를 보좌하였으므로 역시 등설(滕薛)의 대부(大夫)와 같다고 할 수 있으니, 천한 우리들이 으레 예모(禮貌)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2등으로 분별해야 할 일이다.
- ▶ 그중에 혹 천한 신분으로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된 자의 자손으로서 뇌물을 바쳐 향승이 되어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바꾸어 거짓 족보(族譜)를 만들고, 전지(田地)나 종을 바치고서 귀족들과 혼인을 하며, 구멍을 뚫고 길을 찾아 관장(官長)과 인연을 맺는 무리가 있으면 이런 무리들은 징계하고 억제해야 되고 복돈아 주어서는 안 된다. 그중에 혹시 행의(行誼)가 돈후(敦厚)하여 앞으로 일어날 조짐이 있는 자가 있으면 복돈아 주고 도와주는 것이 덕(德)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니, 만약 마을의 머슴살이하는 천한 백성이 술에 취하여 이 사람에게 행패(行悖)를 부리면 약간의 징계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3등으로 분별해야 할 일이다.” <목민심서> 예전(禮典) 제5조 변등(辨等)

茶山은, 노비제가 점차 힘을 잃어가는 사회에서 노비제의 존속을 지지하는,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 ▶ “옹정(雍正) 신해년(1731)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노(私奴)의 양처(良妻) 소생(所生)은 모두 어미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하니, 이때부터 위는 약해지고 아래가 강해져서 기강이 무너지고 민심이 흩어져 통솔할 수 없게 되었다. 시험 삼아 그중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말해 보겠다.
- ▶ 만력(萬曆) 임진년(1592) 난리 때에는 남방에서 창의(倡義)한 사람들이 모두 집안의 종 [家僮] 수백 명으로 군대를 편성(編成)했는데, 가경(嘉慶) 임신년(1812) 난리 - 서적(西賊)이다. - 때에는 고가(故家) 명족(名族)들이 창의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한 명의 종도 구하기 어려웠으니,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대세가 완전히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 ▶ 국가에서 믿을 곳은 사족(士族)뿐인데, 그들의 실세(失勢)가 이와 같으니, 만약 위급한 일이 생겨 백성들이 모여 난을 일으킨다면 누가 그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 이를 가지고 본다면 노비법은 잘 변한 것이 아니다.
- ▶ 지금 먼 시골의 무지한 토인(土人)들은 대부분 형편이 넉넉한 반면 고가(故家)의 후예(後裔)들은 형편이 말이 아닌데, 수령이 되어 온 자들은 백 년 전에 떠돌던 말만을 듣고 오히려 이 모양 아닌 고가의 후예들을 귀족(貴族)과 호강(豪強)으로 여겨 소송 사건이 있을 적마다 먼저 억강(抑強)할 마음을 두니, 이는 큰 잘못이다. 대세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선견(先見)만을 고집하여 사족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예전(禮典) 제5조 변등(辨等)

다산의 실용적 경향: “실천”에 대한 강조

- ▶ “必先以經學立著基址。然後涉獵前史。知其得失理亂之源。又須留心實用之學。樂觀古人經濟文字。此心常存澤萬民育萬物底意思。然後方做得讀書君子。如是然後或遇煙朝月夕。濃陰小雨。勃然意觸。飄然思至。自然而詠。自然而成。天籟瀏然。此是詩家活潑門地。勿以我迂也。” (寄二兒 壬戌十二月廿二日康津謫中: <여유당전서> 第一集詩文集第二十一卷○文集 > 書) 공부의 목적: 실용.



윤리적 주체와 개인화된 수양: 내면 속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대타적인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 실천을 추구한다.

- ▶ “原來慎獨云者。謂致慎乎己所獨知之事。非謂致慎乎己所獨處之地也。人每靜坐其室。默念自己所爲。油然良心發見。此所以瞻其屋漏而發其愧悔。非謂屋漏所臨之地”



윤리적 실천의 가능성은 天命之性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주체로 말년의 茶山의 글에서 인간 자신의 마음의 능력과 힘이 부상된다.

- ▶ “天之賦靈知也，有才焉，有勢焉，有性焉。才者，其能。其權也。麒麟定於善，故善不爲功，豺狼定於惡，故惡不爲罪。人則其才可善可惡，能在乎自力，權在乎自主，故善則讚之” (閻氏古文疏證 百一抄: <여유당전서> 梅氏書平 卷四 > 梅氏書平 十)



다산의 심성론과 경세론: 仁, 忠, 恕, 그리고 事天學-人倫 속에서의 개체화와 주체성의 모색, 혹은 경학을 기반으로 하는 실용적 경세론의 모색?

- ▶ “수오재(守吾齋)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 ▶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발뚱 일어나 이렇게 스스로 말하였다:
- ▶ -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발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발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꾀면 떠나가고, 위협과 재앙이 겹치면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스러운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이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으리요?”







牧  
文  
心  
書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Symposium on Dasan and the SDGs

## 세션 1 토론 | Session 1 Discussion

[교육] 미래인재육성의 길, 다산의 교육관에서 찾다

[Education] Find the way of fostering future talents in Dasan's Educational view

좌장

Moderator

한형조 | Han Hyong Jo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패널

Panel

박명규 | Park Myoung Kyu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Professor, Sociolog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신창호 | Shin Chang Ho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at Korea University

[교육] 미래인재육성의 길, 다산의 교육관에서 찾다

[Education] Find the way of fostering future talents in Dasan's Educational view

좌장

Moderator



한형조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한국학대학원 철학과, 고전번역학부 교수
- 장서각 관장



Han Hyong Jo |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 Center for East Asian Classics
- Director, Jangseogak Archives

패널

Panel



박명규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前 한국사회학회 회장
- 前 통일평화연구원장
- 前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Park Myoung Kyu | Professor, Sociolog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Former President,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17
- Former Director,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2006-2016)
- Former Director, Social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2002-2004)



신창호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前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2004-2008)
- 前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장(2012. 11-2016. 11)
- 前 한국교육철학학회 회장(2015. 1 - 2016. 12)



Shin Chang Ho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at Korea University

- Former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 Former Chief Admission Officer, Korea University
- Former President, The Philophy Of Education Society Of Korea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Symposium on Dasan and the SDGs

주최·주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교육부

